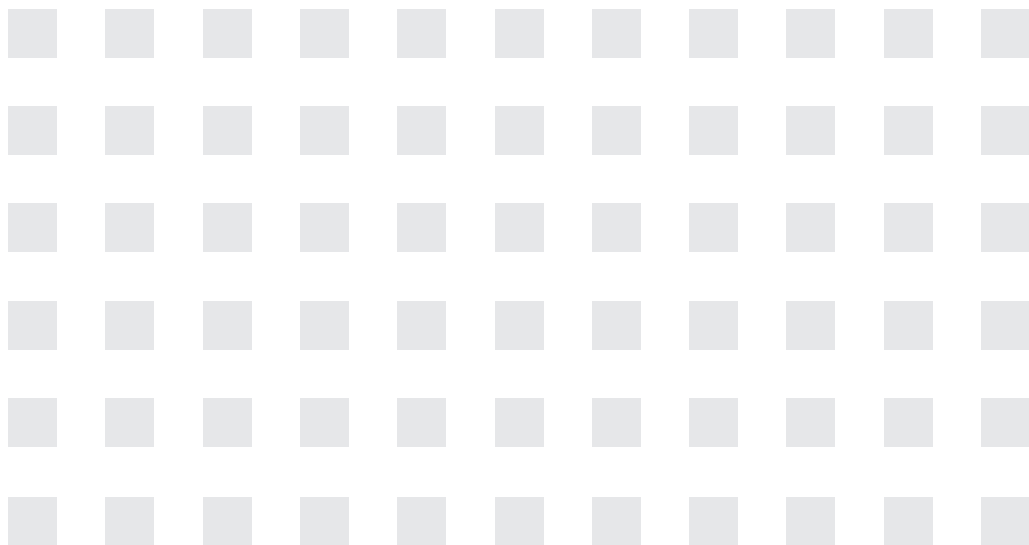


4·3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

—

김종민 · 한상희 · 강남규



발 간 사

제주4·3사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주로 진상규명 및 피해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지역을 넘어 세계적 관심 주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3사건이 발발한 지 70여년이 넘어가는 지금, 생존해 계신 4·3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생존해 계신 4·3사건 피해자들의 삶의 경로를 추적하는 구술조사를 통하여 생존해 계신 4·3사건 피해자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4·3사건 이후 4·3피해자들이 피해지역인 제주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응을 통하여 삶을 회복하여 왔는지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사회의 환경이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민주화운동과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제주사회 환경에 큰 영향이 있었는지 또한 변화되어야 할 제주사회 환경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김종민 책임연구원님을 비롯하여 한상희 선생님, 강남규 선생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가 향후 4·3연구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1월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2-1. 연구범위	3
2-2. 연구방법	5
2-3. 연구기간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II. 제주4·3 관련 사회 변화와 회복탄력성	9
1. 제주4·3 관련 사회 환경	9
1-1. 제주4·3 당시 피해	9
1-2. 민주화운동 이전 사회 환경 변화	14
1-3. 대화의 장으로 나온 제주4·3	15
1-4. 민주화운동 이후 제주 사회 환경 변화	16
2. 회복탄력성과 제주4·3	36
2-1. 회복탄력성의 정의	36
2-2.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의 회복탄력성	38
III. 제주4·3 관련 사회 환경과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조사 분석	40
1. 민주화운동 이전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41
1-1. 능동적 회복탄력성 : 일본 밀항	41
1-2. 능동적 회복탄력성 : 모친과 절약	42
1-3. 능동적 회복탄력성 : 본적 이동 - 연좌제	45
1-4. 능동적 회복탄력성 : 진로 개척	45
1-5. 조력자를 통한 회복탄력성 : 결혼	47
1-6. 조력자를 통한 회복탄력성 : 일가친척	48

2. 민주화운동을 통한 공동체 변화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50
2-1. 공동체 인식의 변화와 회복탄력성.....	50
2-2. 유족회 활동과 회복탄력성	52
3. 민주화운동 사회제도의 변화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53
4. 정치 변화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54
5. 현재 제주사회 인식	56
 IV. 결론과 제언	58
1. 결론	58
2. 제언	60
 참고문헌	61
Abstract	62
〈부록〉 구술 녹취록	64

표 목차

〈표 1〉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4
〈표 2〉 면담 일시	4
〈표 3〉 면담 질문지	6
〈표 4〉 제주4·3 관련 사회 환경 및 제도 변화	36

그림 목차

〈그림 1〉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	38
〈그림 2〉 고한조 씨의 대통령 표창장	68
〈그림 3〉 구술자 고한조 씨와 고신하 씨	68
〈그림 4〉 김순녀 씨의 왼쪽 다리 총상	72
〈그림 5〉 김순녀 씨의 총상 후유증	72
〈그림 6〉 증언하고 있는 김춘보 씨	83
〈그림 7〉 2019. 9. 12,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4·3피해를 증언하고 있는 김춘보 씨	83
〈그림 8〉 김필문 씨의 각종 표창장	90
〈그림 9〉 증언하고 있는 김필문 씨	90
〈그림 10〉 4281년(서기 1948년) 10월 16일자로 발행된 부원휴 씨의 농업학교 신분증명서	105
〈그림 11〉 부원휴 씨의 무공훈장증	106
〈그림 12〉 증언하고 있는 안인행 씨	110
〈그림 13〉 의귀리 4·3길 센터에서 만난 양봉천 씨	115
〈그림 14〉 오맹은 씨	119

연구요약

○ 배경 및 필요성

- 지금까지 분단과 냉전의 과정에서 있었던 4·3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4·3의 진상규명과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 최근의 4·3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물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지역을 넘어 세계적 주요 관심 주제로 확산되고 있다.
- 그러나 4·3피해자들이 4·3과 4·3 이후 어떻게 그들의 삶을 유지해갔는지, 어떤 요인들이 그들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 이런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4·3 이후 정치·사회 변화와 개인의 삶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4·3피해자의 삶의 경로를 추적하는 구술조사를 진행하였다.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4·3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4·3 이후 4·3피해자들이 피해지역인 제주사회에서 70년 넘게 생활하면서 어떠한 사회적응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이나 또는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 제주 사회 환경은 4·3피해자들의 사회적응에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 등 다양한 사회제도적 장치가 담겨있었다. 따라서 사회 환경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4·3의 충격적 상처가 치유되지 못함으로써 4·3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더욱 축적되어갔고, 연좌제라는 사회제도는 4·3피해자의 사회적응을 막는 족쇄로 작용하였다.
- 4·3피해자의 삶의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민주화운동과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제주사회 환경이 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주 사회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본 연구는 4·3피해자들이 제주사회의 어떠한 요인들로 의해 자신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현재에도 회복되지 않았는지를 구술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 연구범위

- 대상자 범위: 직접 4·3 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71세 이상 11명을 심층인터뷰 했는데, 가족의 희생이 삶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삼았다. 즉 '할아버지나 삼촌이 희생된 사례'가 아니라 '10살 안팎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형을 잃고 노동력이 부족한 어머니와 살거나 또는 고아가 된 사례'를 주로 인터뷰했다. 본 연구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대개 본 연구 수행 이전(4·3특별법 제정 이전)에 심층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2차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6개월)로 지정되어 있다. 구술조사는 한정된 시간적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로 현지 조사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4·3연구의 경험적 맥락에 맞추어 정의하고, 정치·사회적인 변화가 제주4·3 희생자들의 회복탄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그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 연구방법은 많은 사람을 도식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화·도표화하기보다는 심층 인터뷰라는 질적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은 과거 4·3피해를 경험한 대상자를 조사한 적이 있다. 즉 책임연구원이 제민일보 기자 시절 「4·3은 말한다」를 연재하기 위해 1990년대에 이미 만나 인터뷰를 했으며(11명의 인터뷰이 중 8명),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명과 지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본문은 익명이지만, 부록으로 실린 구술 내용에서는 모두 실명을 사용했다. 구술자들도 이에 적극 동의했으며 사진 촬영은 물론 동영상 촬영도 허락했다. 실명을 쓴 까닭은 구술 내용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구술 내용이 훗날 역사의 사료로써 기능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물론 구술자들이 구술을 마친 후 '어떠어떠한 내용은 빼 달라'고 한 부분은 삭제했다.

○ 연구내용

- 첫째, 민주화운동 이전 시기의 4·3피해자의 회복탄력 과정에 주목하였다. 사회 환경(정치, 경제, 법, 문화)이 직접 개인을 억누르던 이 시기에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와 같이 생존이 위협받던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인 태도(일본 밀항, 절약) 또는 조력자(재혼, 일가친척)에 의지해 어려운 경제·사회 환경을 극복해 갔다.
- 둘째, 1987년 6월항쟁으로 본격화된 민주화운동은 시민 역량을 강화시켰고 4·3 연구소, 4·3유족회 등이 발족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문화예술 단체의 4·3행사도 활발히 벌어졌다. 이는 4·3피해자의 회복탄력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동체

의식의 변화는 4·3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정신적 상처의 치유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 셋째, 민주화운동 이후 변화된 사회제도에 주목하였다. 즉, 4·3특별법 제정, 진상 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사과, 4·3추념일 제정 등이 4·3피해자들의 회복 탄력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정치가 공동체의식과 사회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개인의 회복탄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정책제언

첫째,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수준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사회 분위기가 민주화됨에 따라 4·3 진상규명운동이 활기를 띠었고 4·3에 관한 제도의 발전이 있었다.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화운동 이후 회복탄력성 향상의 주요 변수는 공동체 의식의 변화였다. 앞으로도 4·3 이해 및 4·3의 세대전승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셋째, 민주화운동 이후 4·3특별법, 노무현 대통령 사과, 추념일 지정 등 일련의 변화는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4·3 피해자의 회복탄력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4·3의 시급한 현안과제인 군법회의 무효화, 배·보상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4·3의 현안 과제 해결과 더불어 4·3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평화와 인권 의식 신장,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논의의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 키워드

제주지역 정치·사회 환경, 4·3피해자, 트라우마, 사회적응, 연좌제, 회복탄력성, 삶의 경로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지금까지 4·3 연구는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주로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사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계기로 최근의 4·3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결과물을 기반으로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적, 세계적 주요 관심 주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4·3 연구는 진상규명과 더불어 주로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 등 거시적인 담론에서 이루어져 왔고, 4·3피해자들의 삶이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주목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4·3피해자들은 현재 고령의 나이로 피해지역인 제주사회에서 70년을 넘게 생활하고 있다. 4·3을 겪는 동안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을 잃는 등 극한의 단절, 배제, 절멸되는 상황을 겪었다. 또한 4·3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생긴 여러 제도와 사회적 담론, 공동체 활동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4·3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했을까? 무엇이 그들의 삶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어떤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 회복을 돕는 요인이 되었을까? 피해자들이 겪은 70년이 넘는 삶의 경로를 추적하면서 어떠한 사회 환경, 사회 제도 그리고 시민의식 등이 4·3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긍정적으로 회복하는데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회복력을 돕기 위해 향후 어떤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제도,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할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3 이후 변화되는 사회 환경이 4·3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과 접목하여 4·3피해자의 삶의 경로를 추적하는 구술조사를 진행하였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역경에 노출된 개인이 보호요인의 긍정적 작용으로 인하여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적응을 잘 이루어내는 것을 말한다(Germezy, 1993; Masten, 2001; McWhiter et al, 2004). Roberts와 Masten(2004)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형성하는 데에 환경적 요소와 전후 맥락적인 요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Dyer와 McGuinness(1966)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면서 회복탄력성은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고 하였다(Lee Ji Hee et al, 2012). 회복탄력성은 개인과 가족, 사회공동체, 사회시스템과 같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적응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개인과 사회환경, 중간매개 등이 다양한 상호작용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성된 사회제도, 공동체 의식 등이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의 변화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기도 하는 개연성이 존재하거나 우연성이 진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조사를 통해 개연성과 우연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연구할 수 있다. 결국 회복탄력성은 사회 환경, 사회제도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까지의 제주 사회 환경은 4·3피해자들이 사회적응을 원활히 할 수 없도록 사회제도적 장치 및 시민의식 체계가 닫혀 있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과 제도적 장치들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4·3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더욱 축적되어갔고, 연좌제 등의 사회제도 및 시민의식 수준은 4·3피해자의 사회적응을 막는 족쇄로 작용하였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시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언론사의 4·3연재와 4·3연구소 및 유족회 등이 발족하면서 4·3에 대한 진상규명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4·3피해자들이 제주지역 사회·환경 요인들에 의해 자신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현재에도 회복되지 않았는지 다변적 상호작용 연구방법으로 원인(사회 환경) ↔ 중개(사회제도, 공동체 등) ↔ 결과(회복탄력성의 정도)를 생애주기별 구술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사건(원인)과 피해(결과) 중심인데 반해, 본 연구는 사회제도, 공동체 등을 매개로 하는 다변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4·3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변화가 피해자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상호관계를 구술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주어진 사회 환경은 개인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제주사회에서 4·3은 70여 년 간 4·3피해자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용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활용하여 주어진 제주 사회의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및 공동체의 변화가 4·3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 4·301 직접 4·3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함과 동시에 매개적 변수로 70년 동안 변화하고 있는 사회제도, 공동체 등이 4·3피해자의 생애주기를 통해 어떠한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구술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2-1. 연구범위

연구대상자 범위는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4·3피해자 11명을 선정하여 생애주기별 조사를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6개월 간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생애 주기별 경험을 통해 주어진 사회 환경, 사회제도 및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런데 4·3피해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경험을 통해 주어진 사회 환경, 사회제도 및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추적해야 하는 과제는 단기간에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본 연구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책임연구원이 이전에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연구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총 11명의 조사 대상자 중 7명이 1996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심층면접이 이루어진 대상자라는 점이 작용하여 그간의 삶의 변화와 회복탄력의 정도를 추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기간 이전에 조사된 내용도 주요한 조사 분석의 내용이 된다. 이는 본 연구의 책임을 맡은 책임연구원의 지속적인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또한 4명은 4·3 이후 개인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반응을 하면서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생애 주기를 경험한 사례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극한의 상황’에 몰렸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졌다. 즉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희생된 경우’보다는 ‘10살 안팎의 나이에 아버지와 형을 잃어 집안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바람에 슬픔을 넘어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경우’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는 1차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고,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12년 그리고 2019년에 이르기까지 조사는 지속해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 기간에 조사대상자 4명의 증언자가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4·3피해자’는 제주4·3로 인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제주4·3을 경험한 희생자의 유족을 포괄하였다.

연구 대상자 11명에 대한 일반사항과 조사일지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성명	출생 년도	최종 학력	직업	피해지역 (당시 지명)
1	고○조	1943	초등학교	농업, 건축업	남원면 한남리
2	김○녀	1945	초등학교 1년 중퇴	식당 근무	조천면 교래리
3	김○주	1937	제주상고 중퇴	농업	제주읍 이호2구
4	김○보	1947	초등학교	농업	남원면 의귀리
5	김○문	1947	제주농고	회사원	제주읍 영평리
6	문○선	1933	무학	주부	제주읍 오라리
7	부○휴	1929	제주농고	공무원	제주읍 화북리
8	안○행	1935	고성 간의학교 중퇴	농업	애월면 장전리
9	양○천	1947	공군하사관학교	농업	남원면 의귀리
10	오○은	1940	제주농고	회사원, 농업	구좌면 상도리
11	홍○호	1938	초등학교 1년 중퇴	농업	안덕면 동광리

<표 2> 면담 일시

대상자	1차 면담	2차 면담	3차 면담
고○조	2019. 10. 13.		
김○녀	1996. 11. 25.	2019. 8. 15.	
김○주	1999. 6. 8.	2019. 7. 16.	
김○보	2019. 8. 18.		
김○문	2019. 8. 16.		
문○선	1993.	1999. 6. 28.	2019. 8. 29.
부○휴	2008. 4. 23.	2019. 8. 15.	
안○행	1999. 3. 17.	2019. 7. 18.	
양○천	1995. 3. 18.	2012. 11. 1.	2019. 7. 28.
오○은	1997. 4. 14.	2019. 7. 17.	
홍○호	2019. 7. 24.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의 출생연도는 1929년생(당시 20세)에서 1947년생(당시 2세)까지 분포되어있으며, 피해지역은 제주 전역에 걸쳐 있다.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2/3에 해당하고 있지만 공무원, 건축업을 했던 대상자도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무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이하가 50%, 이와 달리 고등학교 중퇴 이상도 50%를 차지하고 있어 학력 차이는 컸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4·3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경제적 뒷받침이 있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중 연좌제를 의식해 공무원이 되는 길을 아예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2-2. 연구방법

우선 기존의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4·3피해자 대한 연구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제주4·3평화재단의 아카이브 자료를 분석하였고, 둘째, 기존에 출간된 문헌에서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책임연구원의 기존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사회심리학적 용어인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상호작용적 관점’의 연구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제주 사회 환경과 사회제도의 변화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삶의 경로에 따라 조사하고자 정형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질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정형화된 질문지는 크게 6부분으로 구성한다. 일반사항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4·3 당시 피해자는 어떻게 제주 사회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지역은 어디였는지,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피해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사회제도와 공동체의 변화는 3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민주화운동 이전 실시된 연좌제가 실제로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둘째로,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4·3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하고 4·3 관련 대화의 장이 열린 것이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유족회 참여는 어떤 영향을 질문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과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사과 그리고 4·3평화공원 조성 등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질문하고자 했다. 끝으로 4·3피해자로서 향후 제주사회의 미래에 대한 바람, 또는 다음 세대가 4·3을 어떻게 인식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바람을 질문하였다. 면담조사 때 이용했던 질문지는 〈표 3〉과 같다.

〈표 3〉 면담 질문지

사회 변화	내용	회복탄력성 정도
일반사항	성별, 출생년도, 학력, 직업, 경제 정도, 장애 유무	
4·3 당시	- 제주사회 상황 인식 4·3 피해지역 4·3 피해 내용 및 정도 - 피해자 낙인 이유	
민주화운동 이전 (정치 상황, 낙인 등으로 인한 태도와 의식 변화)	4·3 이후~1987년 이전의 삶 (학업, 직장, 가족, 경제자립 정도 등) - 이웃, 공공기관, 연좌제와의 관계 - 회복탄력성의 정도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제도, 공동체 변화로 인한 태도와 의식 변화)	1987년 이후의 삶 (노인기, 가족: 2세대와 3세대, 경제정도) - 이웃, 공공기관, 재단, 유족회와의 관계 - 회복탄력성의 정도	
정치 변화 (4·3특별법 제정 및 사과)	- 제주4·3특별법의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 에 대한 사과 - 회복탄력성의 정도	
앞으로의 삶	- 가족의 미래 - 제주사회에 바람 - 다음 세대에서의 4·3이란?	

4·3피해자는 주어진 사회 환경과 사회 제도 및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극복 의지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 환경 및 제도가 변화하더라도 피해의 수준과 트라우마의 정도에 따라 회복탄력성이 낮거나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형화된 질문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우울증, 악몽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구술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어진 사회 환경, 사회제도 및 공동체의 변화가 개인의 회복탄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민주화 이전 시기에 시행된 연좌제로 인해 4·3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연좌제 폐지 이후에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4·3피해자의 회복탄력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설 2. 1987년 민주화운동은 시민의식과 역량을 강화시켰고, 이를 계기로 출발한 언론의 4·3취재와 보도, 4·3연구소 및 4·3유족회의 출범,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의 4·3관련 활동이 4·3피해자의 회복탄력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민주화운동 이전에는 4·3 관련 대화의 장이 단절되었지만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유가 가능해졌다.

가설 3.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의 변화(희생자들을 위령하는 제주4·3평화 공원 조성, 4·3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등)가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에 도움이 되었다.

가설 4. 제주4·3특별법의 제정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4·3피해자들에게 회복탄력에 영향을 주었다.

2-3. 연구기간

- 조사기간 : 2019년 5월 1일 ~ 2019년 10월 31일(6개월)
- 조사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회복탄력성의 논의는 우연성에서 시작된다. 계급이 재생산되는 개연성을 비판하며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계층 상승의 우연성이 존재함을 분석하며 시작되었다.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며, 여기에서 조력자의 존재가 강조된다. 즉, 개인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이 회복탄력성에 작용함을 조사하고 있다. 계급이 세대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남을 인정하지만, 일정 부분은 계급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적 노력이 존재하고, 여기에 조력자의 도움이 존재한다면 개인의 상향 이동에 큰 탄력을 받게 된다. 즉, 사회 환경(계급) – 조력자(보호자) – 회복탄력성(상향 이동)이란 연구 관점을 통해 원인(환경 : 계급) – 결과(적응 혹은 작용 : 계급재생산)의 결정론적 사고를 거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회복탄력성 논의는 결정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환경의 작용에 의한 원인과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에서 회복탄력성 논의는 지난해인 2018년 현혜경과 부은혜의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처음이다. 이 연구에서도 한국의 회복탄력성 논의와 유사하게 부모가 제공한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결정론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 특히 자녀의 회복탄력에 발판을 제공하는 부모의 개인적 환경인 인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 즉, 어른의 성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현혜경·부은혜, 2018, vii~viii).

하지만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사회 환경, 중간매개 그리고 개인의 다변적 상호작용 관계에 주목한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개인이 주어진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려는 의식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회 환경의 적극적 개입 역시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성된 사회제도, 의식체계(공동체) 등이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작용함을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명확하게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도도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주요한 영향 요소로 작동한다. 개인은 주어진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주어진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개인의 회복 의지가 쇠약하다면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의 변화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기도 한다.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으며, 우연성이 진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조사를 통해 개연성과 우연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연구할 수 있다. 결국 회복탄력성은 사회 환경, 사회제도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3피해자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자신의 극복 의지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회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자신의 피해 경험과 트라우마의 수준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정도가 낮거나,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중간 매개체인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의 변화 등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을 통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제주4·3 관련 사회 변화와 회복탄력성

1. 제주4·3 관련 사회 환경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 계기 및 시점과 관련, 민주화운동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것인가 혹은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분류된다. 시민적 관점에서 민주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둔다면 민주화운동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게 되며, 정치적 현상과 맞물리면 제주4·3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연구하게 된다면 결정론적 연구방법을 채택할 공산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4·3피해자의 일상 사회생활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좌제 등 사회제도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해 민주화운동을 기준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1-1. 제주4·3 당시 피해

1-1-1. 제주4·3과 피해 현황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간 계속된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으나, 곧 미군이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38도선 이남 지역을 점령해 직접 통치하는 ‘미군정’이 3년간 실시됐다.

‘제주4·3’은 바로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1일, 즉 제28주년 3·1절 기념식과 끝이어 미군정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던 날, 다른 지방에서 온 응원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은 제주도를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렸다. 경찰 발포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민·관 총파업’이 벌어지자 미군정 경찰은 느닷없이 ‘제주도는 붉은 섬’이라 규정하며 검거 선봉을 일으켰다.

이때부터 경찰과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로 구성된 서북청년회 단원들은 4·3무장봉기가

벌어질 때까지 1년간 무려 2,500명가량의 청년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고문했다. 그 무렵 미군 감찰반이 “제주유치장은 최악이다. 작은 유치장 안에 365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다. 10×12피트(3.3평)의 한 감방 안에 35명이 갇혀 있다”고 보고할 정도로 유치장은 차고 넘쳤다. 무장봉기 한 달 전인 1948년 3월에는 마침내 사달이 나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던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탄압의 국면’이었다.

이처럼 가혹한 탄압이 1년 넘게 지속되고 고문치사 사건들이 이어지자 이에 저항하는 ‘항쟁의 국면’이 펼쳐졌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한라산 중턱에 산재해 있는 오름 정상에 일제히 봉화불이 붙게 타고르는 것을 신호로 하여 약 350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무장대가 경찰지서 12곳을 동시에 공격했다. 또한 경찰과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등 극우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 습격해 살해했다. 무장대는 “경찰과 극우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조국의 통일독립”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무렵은 이승만과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때였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등 3개국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바 ‘모스크바 3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분할 점령돼 분단 상태에 놓여있던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시키기 위해 ‘통일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구조로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힘겨루기와 갈등 끝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될 상황에 이르자 이승만과 미국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를 추진했다. 4·3무장봉기는 남한만의 첫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때에 발발한 것이다.

무장대는 5·10총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산간 지역으로 올려 보냈다. 결국 제주도는 3개의 선거구 중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 등 2곳의 선거가 무산되었다.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의 2개 선거구만이 무효화된 것이다. 그런데 항쟁 못지않게 탄압도 중첩돼 나타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제주도에서 선거가 무산되자 곧이어 참혹한 ‘대학살의 국면’이 전개됐다. 특히 1948년 8월 15일 3년간의 미군정이 끝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9월 9일에는 38도선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제주4·3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미군정 시절 발발한 3·1절 발포사건과 총파업, 그리고 검거선봉과 고문치사의 결과로 발생한 제주4·3 무장봉기의 발발 원인과 전개과정 등 그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으나, 남과 북에 각각 적대적인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제주4·3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되고 제주도민들은 더욱 더 가혹한 탄압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1948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벌인 ‘초토화작전’ 때 군·경 토벌대는 엄청난 ‘대학살’을 자행했다. 중산간마을을 포위한 군인들은 다짜고짜 집집마다 불을 붙였고, 불기운에 놀라 집에서 뛰어나오는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급히 피신해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점점 조여 오는 토벌대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부녀자들도 어린아이들을 양손에 붙들고 살을 에는 듯이 추운 한라산으로 향했다. 숨었던 굴이 발각돼 온 가족이 몰살되기도 했고, 굴 밖으로 잠시 나와 있다가 요행히 목숨을 구한 사람은 굴속에서 끌려나온 가족이 총살당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숨죽여 흐느꼈다.

중산간마을에서 해변마을로 소개(疎開·강제 이주)한 사람들의 희생도 컸다. 두려움에 떨던 청년이 도망치면 토벌대는 남아있는 가족을 ‘도피자 가족’이라 하며 도망친 청년의 늙은 부모와 처자식을 수시로 학살했다. 본래 해변마을에 살던 주민들도 희생을 피해갈 수 없었다. 토벌대는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결시킨 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장대 지원 혐의’가 있다며 청년들에게 총질을 했다. 야수로 돌변한 토벌대에 의해 자행된 여성들의 수난은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처럼 무차별한 불법 행위의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에게 있다. 이승만은 당초 1948년 12월 말로 예정된 미군 철수를 앞두고 불안정한 권력을 강화하고자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미군 철수는 국무부의 반대로 인해 1949년 6월 말로 연기됐는데, 미군 철수 직전인 1949년 6월 3건의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즉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구성된 반민특위가 친일파 경찰의 습격을 받아 와해됐고,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앞장서거나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에게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씌어 검거하는 소위 ‘국회프락치 사건’을 일으켰다. 또한 국민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높았던 정치인 김구가 서북청년회 출신인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이로써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친일파반민족행위자들을 보호했고, 국회를 겁박했으며, 또한 최대의 정적인 김구가 사라짐에 따라 미군 철수 직전에 비로소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미군 역시 무차별 강경진압작전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미군은 미군정이 끝난 후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 중장 사이에 맺은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까지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다.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군 사협정을 맺은 지 한 달여 만인 9월 29일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인 이범석에게 공한을 보내 “한국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해당 미군 고문관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츠 고문단장은 심지어 제주 주둔 제9연대의 송요찬 연대장이 잔인한 초토화작전을 한창 벌이던 1948년 12월 18일 이범석에게 공한을 보내 “송요찬이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신문과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일반에 크게 알리라.”며 초토화작전을 조장했다.

그 결과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었다.

1-1-2. 군사정권 하 제주4·3 대화 단절 이유

첫 진상규명 운동은 1960년 4·19혁명에서 비롯됐다. 1954년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돼 사건이 종결된 지 6년만의 일이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열기가 무르익던 1960년 5월 23일, 국회는 한국전쟁 당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 사건에 관한 조사단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제주4·3도 진상규명해야 할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했다. 제주대학생 7인은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해 자체 조사활동에 나섰고, 모슬포에서는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결국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위는 조사 대상 지역에 제주를 포함시킬 것을 승인, 6월 6일 조사반이 내도했다.

이처럼 갑자기 국회조사단의 제주 방문이 결정되자 지방지 『제주신보』는 촉박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희생 상황 접수를 받았고, 제주도의회나 제주시의회, 그리고 진상규명 동지회도 나름대로 자체 조사 수집에 나섰다.

그러나 경상남도 조사반에 걸다리로 끼어 마지못해 실시된 단 몇 시간의 국회 조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공교롭게도 조사반장 최천 의원은 4·3 당시 제주경찰감찰청장으로 재직하던 토벌대 주역인데다 태도마저 강압적이어서 물의를 빚었다. 조사 과정을 보도한 제주신보는 “질문하는 방법이 마치 죄인 다루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최천 반장이 “10여 년이 경과됐으니 처벌 시효가 지났다”고 말하자 현장에 있던 제주신보의 신두방 전무는 “그러면 뭘러 왔느냐. 사람 죽인 놈들에게 시효가 문제 되냐”고 따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조사반의 다른 두 의원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해 겨우 일단락 됐다.

또 1960년 6월 21일 재경 제주학우회는 국회 앞에서 4·3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서울과 제주도의 대학생들을 망라하는 ‘제주도민 학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를 조직하는 등 열기를 더했다.

그런데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국회의 조사가 계속됐다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만인 1961년 발발한 5·16 군사쿠데타는 진상규명 운동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쿠데타 발생 이튿날인 1961년 5월 17일 진상규명동지회원들이 검거돼 고초를 겪었고, 제주신보 신두방 전무는 옥고를 치렀다. 또 대정지역에서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몇몇 사람들은 군 입대 중 체포돼 곤욕을 치렀다. 경찰은 또한 4·19 직후 유족들이 세운 위령비를 부수 파묻기도 했다. 이로써 진상규명 운동은 제대로 싹이 트기도 전에 짓밟혀 원점으로 돌아갔다.

1961년 제주출신 의원 김성숙은 국회에서 ‘제주도 양민학살 보고서’를 내고 위령탑 건립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누구도 4·3을 입에 담지 못했고, 연좌제의 억압 속에서 도민들의 상처는 속으로만 더욱 깊어 갔다.

알못게도 1962년에는 4·3 당시 제9연대장으로서 초토화작전의 주역이었던 송요찬이 군사정권의 내각수반이 돼 제주를 방문, ‘4·3상처 치유’ 운운하며 이재민 원주지 복귀사업을

실시했다.

5·16쿠데타 이후 무려 17년간 계속돼 온 강요된 침묵은 한 소설가에 의해 깨어졌다. 이때는 박정희가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소위 유신헌법 시기였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직접 투표할 수 없었고 소위 선거인단이 서울의 체육관에 모여 간접투표로써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심지어 국회의원의 1/3을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하던 암흑기였다. 이처럼 엄혹했던 유신정권 시절인 1978년 문예잡지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은 4·3의 참혹상과 그 후유증을 정면으로 다뤄 충격을 주었고 긴 세월 금기시 됐던 4·3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 소설은 이후 4·3연구를 촉발시켰고 문학은 물론 미술·연극 등 문화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작가 자신은 군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1979년에 출판된 소설집은 오랫동안 판금조치를 당해야 했다.

『순이삼촌』 이후 누구도 4·3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1984년에 강용삼·이경수가 쓴 『대하실록 제주백년』에 4·3이 많은 부분 할애됐지만, 양민학살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한 채 토벌작전의 무용담만 실렸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제주지역의 학생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학내에서 4·3이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운동권 학생’들은 그 무렵 전해진 미국학자 존 메릴의 『제주도 반란(The Cheju-do Rebellion)』이나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등을 은밀히 복사해 읽었다. 그러나 이를 읽은 사람들은 아주 일부 대학생들이었을 뿐, 일반 시민들에게 4·3은 여전히 말해선 안 되는 금기였다.

1-1-3. 연좌제

봉건왕조 시절인 조선시대 때,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가족 또는 친족이 저지른 죄로 인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반역’을 꾀하거나 왕조를 부정한 ‘대역죄인’을 심판하며 “삼족을 멸하라!”고 외치는 것은 텔레비전 사극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장면이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친족의 죄 때문에 함께 벌을 받는다는 건 ‘문명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1894년 갑오개혁을 단행하며 “죄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금지한다(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고 규정했다. 문명국가로 거듭나겠다며 개혁을 하는 마당에 ‘연좌제’를 폐지한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1948년 제주도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연좌제가 부활했다.

군부독재정권 시절, 유족들은 억울하다는 호소 한 마디조차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연좌제’로 인해 장래가 막혔다. 요즘이야 감귤농사와 아름다운 풍광을 활용한 관광업, 또는 각종 사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해 쌀은 거의 생산되지 못하고 당시에 값이

싼 조, 보리, 메밀 등을 경작하며 겨우 목숨만을 유지하던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월급’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공무원, 교사, 군, 경찰 등 몇몇 직업에 국한됐다.

그러한 때에 4·3유족들은 연좌제로 장래가 막혔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가족 중에 군·경 토벌대에 의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있으면 공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해 훈련을 받다가 퇴학당했고, ‘신원조회’에 걸려 어렵게 들어간 공직에서 쫓겨났다. 이때 제주도민이 겪은 좌절감과 피해의식은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한편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부하에 의해 갑자기 죽게 되자 전두환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후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군부독재정권을 이어갔는데, 헌법을 개정하면서 뜬금없이 봉건시대의 연좌제를 소환했다. 즉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제9호 헌법은 제12조 제3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두환이 학살자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제 댄에는 ‘국민에 대한 배려’라며 신선했던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87년 6월항쟁의 영향으로 같은 해 10월 29일 개정된 제10호 헌법 제13조 제3항에 똑같은 문구로 되풀이됐다.

그런데 연좌제라는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악습을 없애겠다는 신선했던 이 조항은 오히려 그동안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연좌제에 대한 피해의식은 진상규명은커녕 유족들을 더욱 움츠리게 했고 4·3과 관련한 가족의 피해를 입에 담지도 못했다.

1-2. 민주화운동 이전 사회 환경 변화

1-2-1. 제주에서의 1987년 민주화운동

1987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은 정권 수호를 위해 학생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 결과 그 해 1월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을 받다 사망한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임기 말에 이른 전두환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6월 10일 자신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인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장기 군부독재를 청산하기 위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거대한 항쟁으로 번지자 당시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일겠다는 소위 ‘6·29선언’을 발표했다. 그런데 야당의 김대중·김영삼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그 해 12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됨에 따라 정권 교체에 실패함으로써 군부정권이 이어졌다.

비록 군부정권을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4·3진상규명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초석을 깔았다.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

촌』이 발표된지 9년만에야 다시 말문이 트인 것이었다.

특히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정치권에서 4·3을 이슈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7년 말 실시된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당시 평민당)가 처음으로 ‘4·3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비록 공약이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총선과 대선 때마다 4·3진상규명이 늘 핫 이슈로 등장하는 등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6월 항쟁 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등에서는 일제히 ‘4·3 대자보’를 부착하며 1960년 4·19혁명 직후 제주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벌였던 진상규명 운동의 맥을 27년 만에 이어갔다.

1-3. 대화의 장으로 나온 제주4·3

4·3 발발 40주년이었던 1988년은 진상규명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년 전 벌어졌던 ‘6월 항쟁’으로 조성된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그 동안 저변에 깔려있던 4·3진상규명 운동의 열기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1988년 3월 28일~4월 8일까지를 4·3추모기간으로 정해 ‘4·3위령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가졌고, 서울에서는 재경 제주인 모임인 제주사회문제협의회(약칭 제사협) 주최로 4·3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또 일본에서는 탐라연구회 주최 추모강연회가 열렸다.

특히 1988년에는 4·3 관련 서적 등 현대사 연구성과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우선 전문연구로서 처음으로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박명림은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양한권은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서울대 정치학과)를 썼는데, 이 두 편의 논문은 4·3연구 수준을 처음부터 경종 끌어올렸다. 또한 각종 자료모음집과 증언채록집이 출판돼 진상규명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에 앞서 1986년에 발간된 미국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은 현대사 연구의 불을 일으키면서 4·3 연구의 깊이를 더하게 했다.

문학작품으로는 재일동포 작가 김석범의 소설집 『화산도』와 『까마귀의 죽음』이 번역 출판됐고, 1986년 발표됐던 이산하의 4·3서사시 「한라산」이 뒤늦게 필화사건을 일으킴으로써 4·3은 전국적인 논쟁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988년 6월 문공부가 ‘공안차원에서 좌익서적을 뿌리뽑는다’는 구실로 『제주민중항쟁』 등을 지목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4·3논의가 한때 위축되는 듯 했다.

1988년 7월 22일 제주국본과 제사협 등이 후원하고 서울 소재 6개 대학교의 제주학우회 및 제주동문회가 주최한 ‘4·3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는 제주에서 열린 첫 공개 강연회로서 그 동안 억눌려 침묵해 온 도민 의식을 크게 자극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4·3진상규

명은 13대 총선의 큰 이슈가 됐다.

한편, 미국인 존 메릴은 1975년 하버드대학에서 4·3관련 첫 석사학위 논문 「제주도 반란」(The Chejudo Rebellion)을 쓴 바 있는 사람인데, 1988년 11월 서울에 와서 '한국전쟁의 기원'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하면서 제주4·3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때 존 메릴은 이미 학계를 떠나 미국 국무성 정보조사국에 재직하고 있던 관리였다. 강연 내용이 『한겨레신문』에 소개된 후 제주4·3에 관한 '미국의 책임'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겨레신문』은 강연 내용 뿐만 아니라 강연에 관한 반론과 재반론 등 미국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잇따라 네 차례나 지면에 실음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진행된 국회농수산위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강보성 의원(민주당)은 4·3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이어 국방위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황명수 의원(민주당)이 4·3의 역사적 재조명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열린 '광주청문회'는 도민들의 4·3진상규명 의지를 크게 고무시켰다.

1988년 말에는 미국의 '4·3학자' 존 메릴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소설가 김석범이 제주를 방문해 미군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전개하는 등 1년 내내 4·3논의의 열기가 이어졌다. 또 한 이 해 말에는 오성찬의 4·3증언채록집 『한라의 통곡소리』가 출판됐다. 이처럼 4·3진상규명에 있어서 1988년의 움직임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1-4. 민주화운동 이후 제주 사회 환경 변화

1-4-1. 제민일보, 4·3연구소, 예술단체, 진상규명운동 앞장

▶ 1989년 : 제주도민, 직접 진상규명 위한 조사에 나서다

1989년에 접어들며 4·3진상규명운동은 또 다른 중요한 계기를 맞는다. 이는 그간의 논의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수준이던 것에 반해 1989년에는 도민들이 직접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4월 3일을 맞아 제주신문 4·3특별취재반(반장 양조훈)이 1년간의 준비 끝에 기획물 「4·3의 증언」을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고, 5월 10일에는 제주4·3연구소(소장 현기영)가 발족했다. 또 강보성 의원은 '제주도문제연구소'를 설립해 4·3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조사에 나섰다.

제주신문은 「4·3의 증언」 연재 외에도 4·3당시 제주 주둔 제9연대 연대장으로서 평화적인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군정의 초토화작전 명령을 거부한 채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전개하다 미군정에 의해 해임됐던 김익렬 장군의 실록유고 「4·3의 진실」을 연재함으로써 처음으로 미국의 책임에 관한 큰 단서를 제시했다.

1989년 처음으로 열린 '4·3추모제'는 특기할 만한 일이다. 서울의 제사협의 제안으로 제

주민주화운동 진영과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등이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이듬해부터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로 개칭)를 구성해 주최한 이 행사는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처음 열린 추모제이자 위령행사였다.

4월 3일을 전후해 제주·서울·일본의 추모 모임이 열렸고 마당극, 노래극, 문학제, 강연회 등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는 이후 연례행사로 굳어졌다. 이중에서도 놀이패 ‘한라산’은 매년 마당극을 열어 4·3의 대중화에 앞장섰는데, 1989년 첫 공연 때는 담당자들이 경찰에 연행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처럼 문화예술계의 활동에도 결코 적지 않은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다.

한편 1987년 12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김영삼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함에 따라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1988년 2월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열린 제13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전체 의석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했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이른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됐다. 여소야대 정국은 4·3진상규명운동에 힘을 불어넣어주었다.

1989년 국정감사 때 강보성 의원과 최기선 의원(이상 당시 민주당)이 4·3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국정감사 사상 처음으로 ‘4·3증인’을 채택해 증언을 듣기도 했다. 이에 이군보 제주도지사는 “4·3의 올바른 조명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 이를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1990년 : 3당합당 찬물…제민일보 탄생 불씨 살려

1990년 벽두에 ‘3당합당’이 전격 선언됐다. 여소야대로 인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던 노태우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야당 대표인 김영삼·김종필을 포섭해 3당 합당을 함으로써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이로써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무르익던 4·3진상규명 움직임은 3당합당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로 또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4월 제주를 방문한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4·3은 이미 법률적으로 다 끝난 사건이며 정부 주도의 재조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밝혀 1989년에 발표된 제주도의 정사 편찬 계획을 백지화했다.

한편 1989년 말부터 언론민주화운동을 벌이던 기자들이 1990년 1월 집단 해고를 당한 ‘제주신문 사태’로 인해 4·3취재반의 기획물 ‘4·3의 증언’ 연재도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주신문 해직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 창간한 제민일보는 특별취재반을 재가동, 1990년 6월부터 기획물 ‘4·3은 말한다.’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 연재물은 진상규명 운동을 선도했고 그 공로로 1993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4월 3일에 열린 4·3 제42주년 추모식은 경찰의 원천 봉쇄 속에 강행돼 대량 구속 사태를 빚었고, 7월에는 『제주민중항쟁』을 출판했던 김명식이 뒤늦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

현물 제작)로 구속돼 그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 1991년 : 최루탄 난무한 4·3추모제

1991년은 1년 전 ‘3당합당’으로 인해 위축됐던 4·3진상규명 운동이 다소 활기를 되찾은 해였다.

3월에는 제주4·3연구소가 당시 신문인 『제주신보』(1947. 1. 1~1948. 4. 20)를 발굴 공개해 4·3의 배경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4월 3일을 맞아 제민일보는 “1949년 4월 현재 인명피해는 15,000명이며 이중 80%이상이 진압군에 의해 희생됐다”는 내용의 미군 비밀문서를 대대적으로 보도, 그 동안 풍설로만 전해져 오던 희생규모와 사건 성격의 일단을 밝혔다. 제민일보는 또한 왜곡된 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집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실어 여론을 환기시켰다. 제민일보는 인터뷰 기사와 함께 왜곡된 국사교과서의 실태를 폭로하며 교과서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1991년 4월 3일 제주지역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4·3추모제’ 때는 추모제 장소인 관덕정 앞 광장이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됐고,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시민·학생 등 무려 4백여 명이 연행되는 사태를 빚었다. 특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전국 대학들이 ‘4·3시위’를 벌여 4·3을 이슈화시켰다. 놀이패 한라산의 공연은 제주시민회관 측이 ‘4월 내내 보수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대관 신청을 편법으로 기피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 1992년 : ‘다랑쉬굴 발견’…4·3논의 다시 활성화

1992년 1월에는 인기리에 방영되던 MBC대하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4·3을 다뤄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 드라마는 공산폭동이라는 관변의 시각을 극복, 탄압에 의한 생존권 수호 차원의 민중봉기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4·3을 재조명해 주목을 끌었다. 이 드라마는 또한 4·3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많은 국민들에게 ‘4·3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4월에는 4·3 당시 토벌대에게 무차별로 학살된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유해 11구가 다랑쉬 굴에서 발견돼 큰 충격을 주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화가 강요배의 ‘4·3역사 그림전’이 열려 4·3진상규명의 논의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했다.

4·3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가두진출을 시도하던 제주대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사이에 최루탄과 돌멩이가 오고갔다. 그해 말 제14대 대선 때 김대중 후보(민주당)는 제주지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4·3진상규명과 도민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 1993년 : ‘문민정부 시대’ 맞아 도의회 4·3특위 구성

1993년은 이른바 ‘문민정부’라는 다소 열린 분위기 속에서 4·3진상규명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3월 20일 제주도의회 4·3특위(위원장 김영훈)가 1년간의 준비 끝에 정식 출범했다. 진상조사·역사정립·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3단계 사업을 구상, 추진한 도의회 4·3특위는 공공기관에서 4·3을 공론화 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도의회 4·3특위는 이후 희생자를 조사·발표하는 등 진상규명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4월에 들어서자 인명피해와 역사왜곡의 측면에서 제주4·3과 그 내용이 흡사한 ‘대만 2·28사건’에 대해 대만 정부가 명예회복 조치와 피해 보상을 할 것이라는 외신 내용이 『제민일보』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4·3진상규명에 대한 도민의식을 높였다.

한편 1993년 10월에는 4·3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의장 오영훈)가 변정일 의원을 대표 소개 의원으로, 제주도의회(의장 장정언)가 양정규 의원을 대표 소개 의원으로 해 각각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청원은 운영위에 회부된 이후 방치됐다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사장됐다.

반면에 11월 12일 민자당은 ‘거창사건 명예회복 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민들은 지역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역사 바로세우기가 좌우되는 현실을 보며 씁쓸함을 맛보아 했다.

11월에는 조천읍 북촌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희생자 조사를 벌인 끝에 이를 발표했다. 북촌원로회의 1차조사 결과, 전체 희생자 412명 중 409명이 군·경 토벌대에 의해 학살됐음을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 조사활동은 4·3의 엄청난 충격과 피해의식에 시달려 오랜 침묵에 잠겨있던 경험세대들이 직접 조사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 1994년 : 여·야 국회의원 75명, 4·3특위 구성안 발의

1994년 2월 2일 제주출신 변정일 의원은 1년 전인 1993년에 제출된 도민 청원과는 별도로 여·야 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4·3특위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정식 의안으로 발의됐다.

같은 날인 2월 2일 제주도의회 장정언 의장은 1994년을 ‘기초조사의 해’로 정하고 4·3피해 조사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발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월 7일 도의회 내에 ‘4·3피해 신고실’이 개설돼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3월 10일에는 제민일보 4·3취재반이 그간 신문지면을 통해 연재했던 「4·3은 말한다」를 다듬고 보완해 「4·3은 말한다」(전예원)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을 펴냈다. 「4·3은 말한다」는 연재가 계속됨에 따라 현재 제5권까지 출판됐고, 비록 출판되지는 못했으나 제6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연재됐다. 「4·3은 말한다」는 또한 일본어로 번역됐다.

한편 1994년은 첫 합동위령제가 열린 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 동안은 제주지역 12

개 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사월제 공준위'가 1989년부터 5년째 4·3추모제를 열어 왔고, 반공유족회로 출범했던 '4·3유족회'는 1991년부터 3년째 위령제를 봉행하는 등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두 단체가 갈등을 빚으며 각각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벌여 왔다. 이에 제주도의 회가 중재에 나서 '합동위령제'를 개최케 된 것이다.

한편 도민화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수구적인 일부 인사들은 제주지역의 일부 일간지에 '4·3 공산폭동론'을 주장하는 기고를 연일 발표하며 진상규명 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또한 경찰은 4월 14일 새벽 '국가안전기획부 산하 애국동맹'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월 18일 '국가교육 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가 발표한 교과서 개편 시안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를 일으켰다. 4·3을 '항쟁'으로 규정한 개편 시안에 대해 역사학계의 보수적인 학자들과 보수 언론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크게 반발한 것이다. 시안을 마련한 서종석 교수(성균관대 사학과)에게 집중타가 가해졌고 결국 교육부는 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6월에는 건국청년운동협의회 제주도시부(지부장 김인선)가 주최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시회(지회장 강창수)가 후원한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제주비극(4·3)'이라는 주제의 우익단체 모임이 열려 예의 '공산폭동론'을 강조했다.

▶ 1995년 : 제주도의회, 『4·3피해조사 1차 보고서』 발간

진상규명 운동에 있어서 1995년이 갖는 의미는 그간의 노력들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5월 제주도의회 4·3특위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3피해조사 1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14,125명의 희생자 명단을 일일이 기록한 이 책자는 향후 4·3연구의 귀중한 1차 사료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성과였다. 희생자 명단 속에는 10살 미만의 어린이 610명, 61세 이상 노인 638명의 이름도 수록돼 충격을 더했다. 도의회 4·3특위는 1차 보고서 발간 즉시 국회를 방문해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앞서 1993년에 청원한 '국회특위 구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주지역 지방지인 『제주일보』와 『한라일보』의 지면에는 일부 반공단체 인사들의 '공산폭동론'이 연일 투고 형식으로 게재됐다. 이들의 주장인 즉, '공산폭동'으로 이미 판명된 사건을 두고 무슨 진상규명을 한다는 말이나'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제주도 당국의 4·3위령탑 건립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성명을 일부 지방지에 광고 형식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 1996년 : 유족회와 공준위 합동위령제

1996년 새해 벽두부터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도민 청원에 대해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드높았다. 이는 다가오는 4월 총선으로 제14대 국회가 마감됨에 따라 그간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청원과 의원 75명이 서명한 특위구성안이 ‘물 건너가는 것이냐’는 회의가 일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1월 19일 국회를 방한해 청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는 제14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27일에 가서야 청원심사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연 끝에 ‘시일 촉박’을 이유로 국회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월에는 유족회와 공준위가 합동위령제 개최를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도민 의지를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동위령제는 1994년부터 세 번째 열리는 것이어서 새삼스런 일이 아니지만, 유족회가 그간의 입장과 달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4·3은 공산폭동’이라는 단순논리만 내세우며 진상규명 무용론을 주장하던 유족회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유족회 회장단이 개편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과거 반공유족회 소속 인사들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족회를 주도했으나, 2월 25일 회장단 개편 때 토벌대에게 희생된 유족으로 회장 및 회장단이 대거 바뀐 것이다.

한편 ‘4·3 때 학살을 주도했던 군 정보과장은 아편중독자였다’는 제민일보 기사가 4월 2일자로 보도돼 큰 충격을 주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을 더욱 높였다.

12월 17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154명의 찬성 서명으로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됐다. 이는 도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 1997년 :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 발족

1997년에는 4·3발발 50주년을 1년 남겼다는 시의성 때문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게 일었다.

특히 4월 1일 서울의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결성식을 가진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는 4·3해법찾기를 향한 국민연대였다. 상임대표인 김찬국(상지대 총장)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만길(고려대 교수) 정윤희(홍익대 법경대학장) 등 각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범국민위는 △정부의 양민학살 사실 인정과 자료 공개 △국회 4·3특위 구성 △4·3특별법 제정과 명예회복 조치 등을 촉구했다.

4월 『제민일보』는 “대량 학살극을 초래한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기사를 보도해 진상규명 운동을 더욱 고조시켰다. 보도가 나가자 4·3범국민위원회의 성명과 함께 제주범도민회와 서울의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시민운동단체에서도 성명을 내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7월 8일에는 국회 천정배 의원(국민회의)이 ‘불법 계엄령’을

추궁하며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2월 '대만 2·28사건' 제5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이 대만에서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석키로 했던 제주도의회 4·3특위 의원들이 돌연 불참하게 돼 외압설이 나돌았다.

2월 27일에는 도의회 4·3특위의 『4·3피해조사보고서-수정보완판』이 출판됐다. 이는 1995년 제4대 도의회가 발간한 『1차 보고서』를 토대로 제5대 도의회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14,504명의 희생자명단이 발표됐다. 도의회는 3월 11일 국회의장실과 여야 총무실 등을 방문, 이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앞서 1996년 말 국회의원 154명에 의해 발의된 국회4·3특위 구성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1997년은 영상으로 표현된 4·3다큐멘터리가 화제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영상시대'임을 실감케 한 한해였다. 4·3영상물은 이미 '다란쉬의 슬픈 노래'(1993년)와 '잠들지 않는 함성, 4·3항쟁'(1996년)이 대학가 등지에 널리 유포돼 4·3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1997년 10월 경찰은 뒤늦게 제작자(김동만)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는 각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오히려 4·3영상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한편 부산 하늬영상(대표 조성봉)의 4·3다큐멘터리 '레드헌트'는 1년 내내 화제로 떠오르며 4·3논의를 전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1997년 초 발표된 레드헌트는 그해 4월 열린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에 출품됐으나 주최측이 돌연 상영취소 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9월에 열린 인권영화제와 10월의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11월 공안당국에서는 뒤늦게 이 영화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 인권영화제 때 이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을 연행 구속했다. 이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즉각 항의성명을 냄으로써 오히려 4·3논의를 확산시켰다.

6월 6일에는 현충일을 맞아 '자유민주호국동지회'라는 유령단체 명의로 괴유인물이 시내 일원에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유인물은 위령사업을 추진해 온 도지사와 도의회4·3특위위원장을 직접 거명해 비난하면서 "제주도 4·3운동 기념행사·위령제 등을 중지하고 북한의 공작선상에서 놀아나지 말고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9월 26일에는 제50주년 위령사업을 추진할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위원장 조승옥)가 결성됐다. 그런데 제주도가 중재해 구성한 이 단체는 위원 선정작업에 서부터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당초 위령사업을 반대하던 일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이념논쟁을 시도함으로써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탈퇴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로써 유족회와 사월제공준위가 4년간 열어 온 화합의 위령제가 따로따로 행사를 치르던 지난 날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으나 막판에 겨우 봉합됐다.

1-4-2. 유족회

▶ ‘반공유족회’ 발족

4·3유족회의 첫 출발은 4·3사건 때 무장대에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 이른바 ‘반공유족’에 의해 비롯되었다. 1988년 10월 30일 탐라자유회관에서 150여 명의 유족이 모인 가운데 ‘제주도4·3사건 민간인반공희생자유족회’(이하 ‘반공유족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회장에는 송원화, 부회장으로는 김병언·오인규가 선임되었다.

반공유족회는 창립총회에 앞서 1988년 5월에 3명이 모여 발기인 모임을 열고 반공유족회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8월 8일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반공유족들의 참여를 촉구했는데, 가입 대상은 ‘4·3사건 당시 공비들에게 납치 또는 습격으로 인해 피살된 민간인 가족’으로 제한했다.

반공유족회의 창립 배경은 그 무렵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4·3진상규명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공유족회가 창립된 1988년은 4·3무장봉기 발발 40주년을 맞는 해로서, 1년 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조성된 민주화 열기 속에서 4·3논의가 오랜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같이 1988년에 폭발적으로 분출된 4·3논의는 반공유족회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반공유족회는 조직 명칭을 바꾼 후 1990년 11월 21일 조직강화대회를 개최했는데, 아래 소개하는 이 행사의 「안내서」에 실린 ‘취지문’은 반공유족회의 출범 배경과 그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민주화의 열기에 편승하여 일부 몰지각한 세대들은 4·3사건을 왜곡, 건국 혼란기를 틈탄 적화(赤化)를 위한 남로당의 폭동 지령으로 선량한 제주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이른바 인민항쟁이라고, 비정(批政)¹⁾과 압정에 항거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반정부운동, 즉 민중항쟁으로 호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1만 2천 여 유족은 물론 50만 도민은 통한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유족들은 망각과 수수방관으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며 가신님들을 욕되게 하는 현실을 보다 못해 지난 88년 10월 공비(共匪)에게 희생된 일부 유족들로 민간인 반공유족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법에도 맞지 않는 비문이기는 하지만, 위 취지문을 통해 1988년부터 분출한 4·3진상규명운동이 반공유족회 출범의 배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3사건을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1) 비정(批政)의 오기인 듯함.

공산폭동'이라고 규정한 것은 반공유족회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반공유족회는 1988년 10월 30일 출범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89년에도 3월 20일에 사무소 개소 및 헌판식을 연 것 외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1990년에 접어들어도 임원회의만 몇 차례 개최했을 뿐 희생자 위령행사도 하지 않았다.

▶ '4·3민간인유족회'로 개칭

반공유족회는 1990년 6월 5일 임원회의를 열어 '제주도4·3사건 민간인희생자유족회'(이하 '4·3민간인유족회')로 조직의 명칭을 바꿨다. 1988년 10월 30일 반공유족회로 출범한 지 1년 7개월가량 지났을 무렵이었다.

반공유족회가 4·3민간인유족회로 개명한 까닭은 '반공유족'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보인다. 4·3사건 희생자 중 무장대에게 희생된 이른바 '반공희생자' 숫자는 전체 희생자의 10%가량으로 군·경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수적 열세인 반공유족이 유족의 대표성을 갖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선 조직 명칭에서 '반공'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공유족회가 '반공유족'만을 회원으로 하여 첫 출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수적 열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당시는 희생자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던 때였다. 반공유족회는 출범 후 '반공희생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월간 관광제주』에 반공희생자 명단이 처음으로 실렸다. 『월간 관광제주』는 향후 반공유족의 핵심인사로 활동하게 되는 박서동 씨가 발행·편집인인 잡지였다.

8개월간 조사해 '반공희생자' 1,284명의 명단을 파악한 『월간 관광제주』는 위 편집자 주 말미에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억울한 분들의 명단도 조사되는 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며 군·경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조사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대략이나마 희생자 실태를 파악한 반공유족회는 1990년 6월 5일 조직 명칭을 4·3민간인유족회로 바꾸게 되었다. 회장 송원화, 부회장 김병언, 총무부장 박서동, 재정부장 오균택, 조직부장 김성수 등이 회장단과 집행부였다. 조직 명칭은 바뀌었으나 회장단과 집행부는 여전히 '반공유족'이었다.

▶ 회장단 교체, '반공색채' 탈피 계기

반공유족회가 4·3민간인유족회로 개칭됐으나 '반공'이라는 조직의 성격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는 회장단이 '반공유족' 위주로 승계되었기 때문이다.

유족회의 반공 색채는 유족회 '정관'에 잘 나타나 있다. 반공유족회(4·3민간인유족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좌경세력 대처'를 조직의 목적으로 정관에 명시했다. 이는 4·3

사건에 대한 유족회 주도세력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4·3사건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나중에 ‘행방불명인유족회’와 통합해 출범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정관(목적)과 비교하면 <표>와 같다.

유족회 구분	정관(목적)
반공유족회 (1988. 10. 30.)	본회는 1945년 8·15광복 이후 4·3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민간인의 원혼을 위로하며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좌경세력에 대처함은 물론 전후세대에 대한 국민정신 함양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4·3을 치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4·3희생자유족회 (2001. 3. 3.)	본회는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법적·제도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반 사업을 통하여 진정한 해결을 이루어내고, 그 기반 위에서 도민화합과 인권신장, 그리고 평화의 이념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한편 4·3민간인유족회는 1990년 11월 21일 조직강화대회를 마친 후 각 읍·면에 지회를 결성하는 데 힘썼다. 유족회 이름에서 ‘반공’이란 글자가 삭제되자 지회 결성이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선임된 지회장 대부분이 군·경 토벌대에게 희생된 사람의 유족이었다.

그런데 읍·면 지회가 결성됨으로써 회원이 많아지는 등 유족회가 활성화됐지만, 어떤 일인지 회장직은 처음부터 순탄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송원화 초대 회장은 3년 여 간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1992년 1월 28일 갑자기 사임했다.

후임은 역시 반공유족인 김병언 회장이었다. 김병언 회장은 송원화 회장이 사임한 후 직무대리를 1년간 맡은 후 정식 회장으로 취임해 제2대와 제3대 회장을 역임했는데,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하고 취임을 반복했다.

김병언 회장이 취임과 사임을 반복한 주된 이유는 박서동 총무부장과 같은 때문이었다. 박서동 총무부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월간 문화제주』²⁾를 통해 위령탑 건립비 모금에 열중했다. 또한 군·경 토벌대에게 희생된 사람의 유족들에게 적극 권유해 읍·면 지회를 결성토록 함으로써 유족회의 외연을 크게 넓혔다. 6·25전쟁 직후 모슬포경찰서 관내에서 예비검속돼 학살당한 사람들을 위령하는 ‘백조일손영령 위령비’를 세우는 데에도 박서동 총무부장이 앞장섰다. 박서동 총무부장은 『월간 문화제주』에 광고를 내어 모금한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용을 유용해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반해 김병언 회장은 유족회의 ‘반공 색채’ 유지를 중시했다. 1994년 열린 위령제 때 이덕구 무장대 사령관의 위패가 진설됐다는 이유로 1차 사퇴하기도 했다.

내부 갈등 끝에 김병언 회장이 중도 사퇴하자 오선범이 새 회장으로 선임됐다. 군·경 토벌대에게 희생된 사람의 유족이 처음으로 회장이 된 것이다. 이는 유족회의 성격이 크게 바

2) 이 무렵 박서동 씨는 잡지 이름을 『월간 관광제주』에서 『월간 문화제주』로 바꾸었다.

뛰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회원은 물론 읍·면 지회장들이 군·경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 유족이었음에도, 그동안은 반공유족인 회장과 집행부가 주도권을 갖고 유족회를 이끌어왔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반공유족이 8년간 유족회를 좌지우지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선범 회장이 취임함으로써 유족회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오선범은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4·3민간인유족회 서귀포시 서부지회장을 맡았고,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희생자 조사요원으로 활동하는 등 4·3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회장으로 선임되기 몇 달 전에는 서귀포시의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그런데 오선범 회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취임 1년 만에 중도 사퇴했다. 오 회장이 사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임 집행부와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임 집행부의 총무부장인 박서동은 여러 차례 요구를 받고도 유족회의 각종 서류와 통장을 넘기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용으로 모금한 거액의 기금을 인계하지 않았다. 오선범 회장이 사퇴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서귀포시의회 의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이었다. 위령탑 건립기금을 인수하기 위해 법적 소송까지 준비했지만, 시의회 의장으로 서 전임 집행부와 갈등을 벌이는 것에 부담을 느껴 유족회장 직을 사퇴한 것이다.

오선범 회장이 사퇴하자 후임으로 박창욱이 1997년 2월 24일 제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박창욱 회장도 군·경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 유족이었다. 박창욱 회장은 연임돼 2001년 3월 3일까지 제6대 회장도 역임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오선범 회장이 1996년 2월 25일 취임한 이래 4·3민간인유족회의 ‘반공 색채’는 많이 희석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주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레드 콤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 「수형인명부」 발굴...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 창립

2000년 3월 13일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이하 ‘행불인유족회’)가 창립되었다. 행불인유족회의 결성은 1999년 9월 15일 당시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수형인명부」를 발굴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수형인명부」에는 4·3사건 당시 ‘4·3군법회의’에 회부돼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대부분 6·25전쟁 직후 학살된 제주도민 2,530명의 명단이 기재돼 있었다.

‘4·3군법회의’라 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마치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자료에 기재된 군법회의를 가리킨다. 이 자료의 표지에는 『수형인명부 군법회의분(受刑人名簿 軍法會議分)』이라 적혀 있고, ‘제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것처럼 쓰여 있다.

「수형인명부」는 표지 외에 총 128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 문서 20건(총 22쪽) 외엔 모두 ‘별지(別紙)’이다. 별지에는 수형인의 인적사항이 도표로 정리돼 있다.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제1차 군법회의 때 870명, 제2차 군법회의 때 1,660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제1차 군법회의 (1948. 12)	제2차 군법회의 (1949. 6~7)
대 상 자	870명	1,660명
적용 법률	형법 제77조(내란)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또는 방조) 국방경비법 제33조(간첩)
계엄 여부	계엄 선포	계엄 해제

두 차례의 군법회의에서 제주도민들은 사형, 무기징역, 20년형, 15년형 등 중형을 선고 받았다. 군·경 토벌대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극을 자행하던 ‘초토화작전기’인 1948년 12월의 제1차 군법회의에선 전체 수형인 870명 가운데 사형이 4.5%, 무기징역이 7.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돼 있던 때여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모두 일제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적용한 것이다.

무장대가 궤멸되어 사건이 거의 종결되었다고 여겨지던 때인 1949년 6~7월의 제2차 군법회의에서는 전체 수형인 1,660명 가운데 사형이 20.8%, 무기징역이 14.3%의 비율을 차지해 제1차 군법회의 때보다 더욱 가혹한 피해를 당했다. 이때는 계엄령이 해제된 때라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없었기에 국방경비법을 적용했다. 국방경비법은 기본적으로 군법(軍法)이므로 대개의 조문은 “군인 및 군속으로서~”로 시작된다. 그러나 제32조(이적죄)와 제33조(간첩죄)만은 “여하한 자로서~”로 시작된다. 이를 근거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법회의의 근거가 된 ‘4·3계엄령’은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채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불법적인 것이다. 국방경비법은 제정 주체도 모호하고 법률 호수도 없는 유령법이다. 계엄령의 불법성과 국방경비법의 유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4·3군법회의는 실체가 없는 허구의 재판이다.

4·3군법회의에 관한 수형인명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류투성이인 허구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수형인명부 ‘별지’는 도표 형식인데, 수형인 한 명당 △순번(順番) △직업(職業) △성명(姓名) △연령(年令³⁾) △본적지(本籍地) △항변(抗辯) △판정(判定) △판결(判決) △언도일지(言渡日字) △복형장소(服刑場所)가 딸랑 한 줄씩 기재돼 있다. 주소지를 적는 칸도 없다. 판결문이 첨부돼 있는 것도 아니다. 행형기록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실한 문서이다.

그런데 「수형인명부」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긴 하지만, 4·3사건 때 제주도민들이 불법

3) 연령(年齡)의 오기.

감금되거나 학살당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수형인명부」가 발굴되기 전에도 일부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문을 듣거나 또는 희생자들이 형무소에서 보내온 엽서를 통해 수감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오랫동안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또한 희생자들이 형무소에 수감됐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근거 자료가 없었다.

그러나 「수형인명부」가 발굴됨으로써 희생자들의 수감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유족들은 ‘북형장소’에 기재된 형무소 이름을 보고 희생자들이 어느 형무소에 수감됐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한편 「수형인명부」가 공개된 지 3개월 여 지났을 때인 1999년 12월 24일자 『제민일보』에 6·25전쟁 때 형무소 수감자들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당했음을 확인해 주는 미국 비밀 문서 3건과 관련 사진 18장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내용은 이후 『한국일보』에도 보도됨으로써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재미사학자 이도영 박사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비밀해제를 공식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제민일보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총살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고위층이 내렸다.”고 쓰여 있었다. 문서에는 또한 “대전형무소 수감자 1,800명이 1950년 7월 첫째 주에 3일간 벌여졌다.”는 내용도 있어 유족들이 희생자의 사망 일자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돼 있다가 대부분 6·25전쟁 직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당했음이 확인되었다.

▶ 명예를 벗은 강력한 유족회

4·3사건 때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제주도내에서 희생되었으나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수형인이다.

수형인 유족들은 일반적인 4·3희생자 유족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연좌제에 대한 피해의식과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려왔다.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결시킨 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집단총살한 ‘북촌리 사건’과 같은 경우는 보수인사들조차 무모한 학살극임을 인정하는 터미므로 유족들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행방불명인이지만 군·경 토벌대에게 끌려간 후 제주도내에서 죽임을 당한 희생자의 유족들은 1988년부터 본격화된 진상규명운동의 결과로써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수형인 유족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언론 취재에도 잘 응하지 않았다. ‘뭔가 죄를 졌으니 형무소에 수감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99년 9월 15일 「수형인명부」가 공개됨으로써 희생자들이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은 ‘एं터리 재판’으로 불법 감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도영 박사가 발굴한 미국 비밀문서를 통해 수감자들이 불법적으로 학살당했음이 확인되자 수형인 유족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12월 16일 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되자 조직 결성에 박차를 가했다.

행방불명인 유족들은 2000년 3월 13일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 창립대회’를 개최했다(공동대표 김문일, 박영수, 송승문, 이중흥, 한대범). 제주민속관광타운 대강당을 가득 메운 이날 창립대회에서 유족들은 4·3행불인에 대한 법적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제주공항에 암매장된 희생자의 시신 발굴과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대한 순례 및 자료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행불인유족회는 정관에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어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법적·제도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반 사업을 통하여 진정한 도민화합과 새천년 제주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등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법적·제도적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기존 4·3민간인유족회의 태도와 큰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공유족회에서 출발한 4·3민간인유족회는 8년 만에 군·경 토벌대에게 희생된 유족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지만, “희생된 민간인의 원혼을 위로하며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좌경세력에 대처”한다는 정관(목적)도 바꾸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행방불명인 유족들은 오랫동안 피해의식과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리며 일반 유족들보다 더욱 움츠러들었지만, 스스로 명예를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서자 가장 강력한 유족 집단이 되었다.

행불인유족회는 또한 2000년 5월부터 전국의 형무소 터를 방문해 위령제례를 치렀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매해 형무소 순례를 하며 결속력을 다져나갔다. 행불인유족회는 이밖에도 4·3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위상을 급속히 높여갔다.

▶ 통합유족회 출범

행불인유족회가 창립되자 4·3유족들은 기존의 ‘4·3민간인유족회’와 ‘행불인유족회’로 양분되었다. 이는 두 유족회 모두에게 곧 부담으로 다가왔다. 마치 두 유족회 간에 서로 갈등과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4·3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하나로 뭉뚱 뭉쳐야 할 유족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에 두 유족회는 4·3특별법에 따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던 날인 2000년 8월 28일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가칭)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창립위원회는 2001년 2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유족회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두 유족회가 발전적 해체

를 한 후 하나의 유족회로 새 출발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어 3월 3일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창립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새로운 유족회가 출범했다.

한편 통합유족회는 2007년 3월 3일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라는 명칭을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 바꾸었다. 향후 4·3의 정명(正名)을 위해 ‘사건’이라는 무색무취한 단어를 뺀 것이다.

1-4-3. 제주4·3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 확정…노무현 대통령 사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도록 특별한 성과가 없자 제주도민들은 1999년부터 정부·여당에 4·3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3월 8일 상설 운동조직체인 ‘4·3도민연대’가 결성돼 “국회 4·3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여당 내의 4·3특위 또는 국회4·3특위로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4·3특별법’ 제정 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도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동안 4·3문제를 외면해 오던 제주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변정일·양정규·현경대)이 10월 11일 4·3특별법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4월 열릴 제16대 총선을 염두에 둔 제스처로 보이긴 했지만, 보수 야당이 먼저 4·3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는 ‘국회 4·3특위’를 우선 구성하자며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10월 24일 제주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총결집해 ‘4·3특별법 정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해 상경투쟁에 나서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16일 마침내 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월 11일 서명함에 따라 1월 12일자로 제정되었다. 3월 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할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됐고, 제주도에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가 설치됐다. 8월 28일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4·3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런데 위원회가 발족하기도 전인 6월 10일 군 장성 출신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정승화 회장 등 333명이 4·3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2001년 1월 17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이 발족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다. 보고서작성기획단에서는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경찰청,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 군사편찬위원회로부터 국내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물론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러시아연방기록관리청을 방문해 해외자료도 수집했다. 12월 28일에는 수집한 자료들을 묶어 『제주4·3사건자료집』 1·2권을 펴냈다. 이 자료집 출판은 계속 이어져 전 11권까지 나왔다.

진상조사보고서는 2003년 1월 24일 초안이 완성됐으나,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2월 25일 초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보고서 채택은 어렵게 진행됐다. 당시 고건 총리는 진상조사보고서 심의소위원회를 세 차례나 직접 주재하며 보고서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열린 전체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조건부 의결'했다. 즉 진상조사보고서를 군·경측은 물론 보수단체에까지 배포해 6개월간 수정의견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오면 재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이후 고건 총리는 4월 3일 위령제에 참석했는데,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을 유보시킨데 대해 분노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위령제단 앞으로 가는 고건 총리의 길목을 막고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보수단체들이 많은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나 4·3위원회의 김종민 전문위원이 일일이 반박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는 별다른 수정 없이 10월 15일 열린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보름 만인 10월 31일 제주도에 직접 내려와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진상조사보고서 채택에 이어 대통령이 보고서를 근거로 사과하자 제주도민들은 수십 년간 맺힌 한을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자 극우세력들은 2004년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시민연대 등은 7월 20일 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의 사과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한편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음에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6·25전쟁사』라는 책을 펴내며 4·3을 왜곡시키자 4·3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에 4·3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6·25전쟁사』에 나타난 왜곡 부분에 대해 근거를 들어 일일이 반박하는 문서를 작성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서서 35건에 달하는 왜곡 내용을 수정했다.

1-4-4.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주행

▶ 2008년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3위원회 위축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후 희생자 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희생자의 위패가 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 안치돼 왔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희생자 심사가 난항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는 오랫동안 4·3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이미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희생자 결정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희생자 신고를 한 유족들은 위패봉안소에 희생된 가족의 위패가 오르지 않아 속을 썩였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뉴라이트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들이 4·3특별법과 4·3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민들의 반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보수정부 출범 후 4·3위원회의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 2009년 : 수구세력, 각종 소송 제기해 4·3진상규명의 성과 무력화 시도

수구세력들은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헌법소원심판 2건,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민사소송) 2건 등 모두 6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보고서 파기와 희생자 결정 무효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4·3위원회 김종민 전문위원의 소송 수행으로 이들의 소송은 2012년 3월까지 모두 원고 패소했다. 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

사건번호		청구인 · 원고 · 채권자	청 구 취 지	진행상황	
헌법 소원 심판	■ 2009헌마146 제주4 · 3특별법 제2조제2호 위반 확인 등('09.03.06)	- 청구인:국가정체성 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 - 피청구인: 4 · 3위원회	- 수형자 등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청 구인들의 인격권 침해 및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위 배됨 - 4 · 3특별법 제2조 헌법 위반	- '09.03.24 심판회부 - '09.04.29 답변서제출 - '09.12.15 준비서면제출 ■ '10.11.25. 각하	
	■ 2009헌마147 제주4 · 3특별법에 의한 일부희생자결 정 위헌확인 ('09.03.09)	- 청구인: 이선교 외 11명 - 피청구인: 제주4 · 3위원회 (국무총리)	- 제주 4 · 3 위원 회 가 결정한 희생자 13,564명 중 1,540 명에 대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됨	- '09.03.31 심판회부 - '09.05.06 답변서제출 - '09.12.15 준비서면제출 ■ '10.11.25. 각하	
행정 소송	1 심	■ 2009구합 8922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09.03.09) 서울행정법원	- 원고: 이인수 외 11명 - 피고: 제주4 · 3위원회 (국무총리)	- 제주 4 · 3 위원 회 가 결정한 희생자 13,564명 중 18명 에 대한 희생자 결 정 무효 확인 - 제주 4 · 3 위원 회 가 결정한 희생자 13,564명 중 18명 에 대한 희생자 결 정 무효 확인	- '09.05.08 답변서제출, - '09.06.12 1차변론, - '09.07.15 2차변론, - '09.08.26 3차변론, - '09.10.14 4차변론, - '09.11.11 5차변론, - '09.12.16 6차변론, - '11.01.19 7차변론 - '11.04.01 각하 판결 ※ 원고 측, 국가기록원 상대로 행정소송
	2 심	■ 2011누 13370 ('11.04.18) 서울고등법원	- 원고: 이인수 외 8명 - 피고: 제주4 · 3위원회 (국무총리)	- 제주 4 · 3 위원 회 가 결정한 희생자 13,564명 중 18명 에 대한 희생자 결 정 무효 확인	- '11.04.26 원고 항소 - '11.05.17 원고 준비서면 제출 - '11.06.21 피고 준비서면 제출 - '11.08.24 1차 변론, - '11.09.21 2차 변론 - '11.11.16 항소 기각 - '11.11.28 원고 상고장 제출

	사건번호	청구인·원고·채권자	청 구 취 지	진행상황
행정 소송	3 심	■ 2011두 31260 (‘11.12.13) 대법원 - 원고: 이인수 외 8명 - 피고: 제주4·3위원회 (국무총리)		- ‘11.12.13 대법원 사건 접수 - ‘11.12.27 상고이유서 제출 - ‘12.01.09 답변서 제출 ■ ‘12.03.15 기각
	1 심	■ 2009구합 14668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09.04.15) 서울행정법원 - 원고: 이철승 외 199명 - 피고: 제주4·3위원회 (국무총리)	- 제주4·3위원회 가 결정한 희생자 13,564명 중 20명 에 대한 희생자 결 정 무효 확인	- ‘09.06.12 답변서제출 - ‘09.07.22 변론준비기일 - ‘09.08.21 1차변론 - ‘09.09.25 각하 판결 - ‘09.10.19 항소
	2 심	■ 2009누 34572 (‘09.11.12) 서울고등법원 - 원고: 이철승 외 164명 - 피고: 제주4·3위원회 (국무총리)	- 제주4·3위원회 가 결정한 희생자 13,564명 중 20명 에 대한 희생자 결 정 무효 확인	- ‘09.11.25 항소 접수 - ‘10.02.17 항소이유서 접수 - ‘10.03.04 준비서면 제출 - ‘10.05.20 1차변론, - ‘10.06.03 2차변론 - ‘10.07.08 항소 기각
	3 심	■ 2010두 16332 (‘10.08.03) 대법원 - 원고:이철승 외 6명 - 피고: 제주4·3위원회 (국무총리)	- 제주4·3위원회 가 결정한 희생자 13,564명 중 20명 에 대한 희생자 결 정 무효 확인	- ‘10.08.03 상고 접수 - ‘10.09.15 상고이유서 제출 - ‘10.10.08 답변서 제출 ■ ‘10. 11. 11 기각
국가 소송		■ 2009카합1719 보고서배포금지 가처분 (‘09.05.01) 서울중앙지법 - 채권자: 이철승 외 48명 - 채무자: 대한민국	- 제주4·3위원회가 발간한 진상조사보 고서의 출판·판 매·배포 금지	- ‘09.05.13 답변서제출 - ‘09.05.15 1차 심문, - ‘09.06.05 2차 심문 ■ ‘09.10.29 기각
		■ 2009가단 171562 손해배상(기)등 (‘09.05.11) 서울중앙지법 - 원고: 이철승 외 48명 - 피고:대한민국	- 제주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 성 및 희생자 결정 으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 *원고에 각 1백만원 지급	- ‘09.06.22 답변서제출 - ‘10.01.19 1차 변론 - ‘10.02.02 2차 변론 - ‘10.03.04 3차 변론 - ‘10.04.08 4차 변론 - ‘10.12.09 5차 변론 ■ ‘11. 01. 13 기각

▶ 2013년 : 보수정권 재창출...수구세력 또다시 준동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보수정권이 재창출되자 수구세력들은 또다시 준동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3진상규명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했으나 하나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수구세력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그동안의 4·3진상규명운동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특히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극우세력의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 패널문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4·3위원회 김종민 전문위원을 해임시키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결국 김종민 전문위원은 2013년 6월 말 해임됐다.

▶ 2014년 : 수구세력,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제기

수구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희생자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만 3년만인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또다시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4년 12월 12일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도민 여론에 밀린 박근혜 정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4·3희생자추념일을 국가기념일에 포함시키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함으로써 4월 3일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 2015년 : 수구세력, 4·3평화기념관에 대해 시비

수구세력들은 3월 4·3평화기념관 전시 설명패널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2015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전시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도 2017년 1월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 2018년 : 문재인 대통령, 4·3추모제 참석해 유족들에게 사과

2016년 가을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그 결과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고 2017년 5월 열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4·3진상규명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4·3추모제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논의해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4·3 당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할 뜻을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6·25전쟁 때 예비검속자를 처형하라는 군대의 명령서에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고 쓰며 예비검속자를 풀어준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했고, 제주지방경찰청은 11월 1일 문형순 경찰서장의 흉상을 제작해 청사 마당에 세움으로써 ‘민주경찰’의 표상으로 삼았다.

1-4-5. 4·3군법회의 수형인 재심 청구 결과: 공소기각(무죄) : 배 · 보상 문제

4·3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보고서가 작성되고 보고서에 근거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군법회의의 수형 희생자의 유족들은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무고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과자 낙인’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2017년 4·3유족회(회장 양윤경)는 4·3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전문가들로 ‘법률지원단’(단장 이석태 변호사, 단원 고호성, 김성주, 김종민, 문성윤, 송승문, 양성주, 양윤경, 이상희, 이재승, 장완익, 조영선)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피해배상’과 ‘4·3군법회의의 무효화’에 초점을 맞춘 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4·3유족회는 개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민주당은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생존 수형인 18명이 4·3군법회의는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은 엉터리 재판이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03년 확정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이미 “1948·1949년 제주에서 치러졌다는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송기록, 즉 재판서·공판조서·예심조서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김춘배에 대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1963. 8. 20)에서 군법회의 재판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잔형 집행을 취소한 사례는 주목된다. 나아가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을 통보받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군인·경찰·피해자들의 증언, 관련법령에 의해 영구보존 대상인 판결문이 당초부터 작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의 존재,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사흘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 등 제반 정황 등을 통해서도 재판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3사건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한 재심 청구였다.

이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제갈창 판사)는 2019년 1월 17일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했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이 재심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이 재심사건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함을 웅변해 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4·3군법회의의 무효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4·3군법회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운’이 좋아 형무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지금까지 장수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무죄’이고, 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 직후 이승만 정권에게 학살당한 분들은 여전히 ‘유죄’로 남는 큰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4〉는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주4·3 관련 사회 환경 및 제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제주4·3 관련 사회 환경 및 제도 변화

사회 상황	시기	내용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	1960년 4·19 직후	4·3 진상규명 요구 국회 양민학살 조사단 제주 방문 제주신보 4·3 희생자 신고 접수
	1961년 5·16 직후	4·3 진상조사 앞장선 학생 등 구속
	1978년	현기영 작가, 북촌학살 다룬 「순이 삼촌」 발표 소설 판매금지, 작가 체포 및 고문
	1980년 10월	제9호 헌법 제12조제3항에 '연좌제' 폐지 문구 추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10월	제10호 헌법 제13조제3항에 '연좌제' 관련 동일 문구
	1988년	제주신문 4·3취재반(1990년 제민일보로 이어짐) 구성
	1988년	제주4·3유족회 설립
	1989년	4·3연구소 개소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 제정, 제주4·3위원회 구성
	2003년 10월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노무현대통령 제주4·3 희생에 대한 사과
	2008년	이명박정부, 4·3특별법 및 4·3위원회 폐지 법안 발의
	2009년	극우세력, '4·3특별법 위헌, 진상조사보고서 폐기, 일부 희생자 결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2017년	4·3특별법 개정안 발의(피해배상, 군법회의 무효화)
	2019년	4·3군법회의 수형인 재심 청구 결과: 공소기각(무죄)

2. 회복탄력성과 제주4·3

2-1. 회복탄력성의 정의

resilience는 회복력, 탄성, 탄력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원래는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뜻하는 과학분야의 용어이다. 이러한 성질을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생물학 등의 많은 분야에서 적용하면서 심리학적으로는 인생의 심각한 시련과 곤란,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아동발달 분야에서부터였다. 영·유아기, 또는 아동기에 겪은 불행한 사건들이 반드시 병리적인 현상을 초래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 과거에는 아동들을 부정적인 환경에서, 즉 위험 요인에서 보호하는 요인들을 찾는 노력을 해왔다면, 오늘날에는 그러한 부정적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보호 요인을 찾는 노력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다(홍은숙, 2006).

Werner와 Smith(1982)의 카우아이(Kauai)섬의 아동들에 관한 연구를 보면, 동일하게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자란 아동들의 3분의 2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3분의 1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고 심지어 모범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시련이 꼭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탄력성에 따라서 시련의 무게감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부 아동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사회에 잘 적응하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높이는 변수는 조력자(보호자)의 존재였다.

회복탄력성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Werner와 Smith(1982)는 resilience를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심각한 역경과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장의 힘이며 불행이나 충격으로부터 급속히 회복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수준이라고 회복탄력성을 정의하였다.

회복탄력성을 정의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회복탄력성을 개인의 고유한 특성(trait)으로 보는 입장으로, 이것은 회복탄력성을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다. 개인의 성격적인 성향의 적응결과로 보는 결과 중심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위험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외상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빠른 회복을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회복탄력성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사회공동체, 사회시스템과 같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적응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형성하는 데에 환경적 요소와 전후 맥락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Dyer와 McGuinness(1966)는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면서 회복탄력성은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고 하였다(Lee Ji Hee et al, 2012). Anthony(1987)은 회복탄력성에 대해 곤란에 직면 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역동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며, 환경요인과 문화, 교육,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Dyer, 1996).

최근 회복탄력성의 연구 동향은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홍은숙, 2006 재인용).

한편 회복탄력성의 주요 요소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구성요인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 낙관성,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등이다.

Reivich & Shatte(2002)은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 조절력, 충동 통제력, 낙관성, 원인 분석력, 공감능력, 자기 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을 들고 있다. 홍은숙(2006)은 원인 분석 능력, 감정통제력, 충동 통제력, 생활에 대한 만족, 낙관성 등의 개인 내부자원과 부모와 자녀 관계 등의 가정 내 환경을 포함하는 외적 자원, 그리고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 등의 사회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환(2011)은 회복탄력성의 요소를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으로 나누고 자기조절 능력에는 감정 조절력, 충동 억제력, 원인 분석력으로, 대인관계 능력은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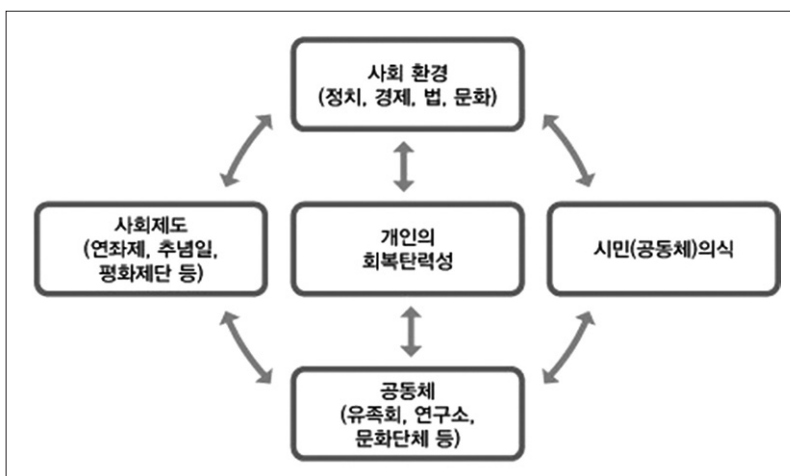
2-2.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의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면서 제주4·3 희생자들이 정치·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회복탄력성·개념에 ‘과정’과 ‘정도’를 포함하였다. 즉 회복 탄력성은 개인과 가족, 사회공동체, 사회시스템과 같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적응과정이라는 관점을 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사회 환경, 중간매개 그리고 개인 간의 다변적 상호작용관계에 주목한 개념이다. 개인의 회복탄력성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중간매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더 나아가 개인도 중간매개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회복탄력의 정도를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회복 탄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제주4·3 희생자들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변적 상호작용을 겪으며 회복탄력성에 방해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과정은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



사회 환경이 제주4·3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시기마다 제주4·3 피해자의 회복탄력의 정도는 달리 나타난다. 제주4·3의 발생 당시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여 회복탄력의 정도가 결정된다. '살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며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의지로 회복탄력에 힘을 불어넣지만, 피해자를 '빨갱이'로 규정하는 사회 환경에 좌절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개인(4·3피해자)의 입장에서조차 중간 매개체와의 대화도 회피하려 할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과도 되도록 멀리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회복탄력의 정도는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화운동 이전의 사회 환경은 군사정권에 의해 강력한 통제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제주4·3의 발생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정도 역시 낮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개인은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회복탄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중간 매개의 장에서 '빨갱이 자식' 혹은 '아버지 없는 자식' 등의 표현은 개인의 직접적 대화 개입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연성이 진화하여 개연성의 의미로 변화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제도를 발생시켰고, 공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개인이 주어진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사회제도, 공동체 의식 더 나아가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의식적 부분도 일어나고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속성들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화운동 이후 4·3피해자의 행위의 주관적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제주4·3에 대한 적극적 언론 보도, 제주4·3연구소의 활동, 문화·예술 활동의 확대, 그리고 제주4·3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의 변화는 4·3피해자의 회복탄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연좌제 폐지, 4·3유족회 발족, 제주4·3추모제 개초, 4·3평화공원 조성 등은 4·3피해자들이 능동적 회복탄력의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간매개의 장에서도 '빨갱이 자식' 또는 '애비 없는 자식' 등의 부정적 대화가 사라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특히 수형인 재심 청구와 더 나아가 배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4·3피해자들의 능동적인 행위가 이어진다.

결국 본 연구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성된 사회제도, 의식체계(공동체) 등이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작용함을 주목하였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명확하게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도도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주요한 영향 요소로 작동한다. 개인은 주어진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주어진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개인의 회복 의지가 쇠약하였다면 회복탄력성은 낮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의 변화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기도 한다.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으며, 우연성이 진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조사를 통해 개연성과 우연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연구할 수 있다. 결국 회복탄력성은 사회 환경, 사회제도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Ⅲ. 제주4·3 관련 사회 환경과 4·3 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조사 분석

지금까지 제주4·3 관련 연구는 피해사실의 진상규명에 주목하였고, 현재는 미국의 책임 그리고 4·3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의 주제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지금까지 제주4·3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연구의 방향을 돌려서 피해자의 삶의 경로를 통해 제주4·3이 4·3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미시적인 접근 역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각에서 회복탄력성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결정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에 주목하여 조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4·3피해자는 ‘공산주의자’(빨갱이)로 지목되었고, 사회제도인 연좌제를 통해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제약을 받았다. 특히, 민주화 이전에는 사회 환경이 직접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선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에 연좌제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1987년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시민 역량을 강화시켰고, 이를 통해 4·3연구소, 4·3유족회, 문화예술 단체 등 4·3관련 단체가 출범하였다. 이것이 4·3피해자의 회복탄력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4·3관련 대화의 장이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열렸는지, 또한 4·3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피해경험을 말함으로써 정신적 상처의 치료가 가능해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민주화운동 이후 다양한 사회제도를 즉,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재단 설립, 위패 봉안소와 행방불명인 표석 등 위령시설 설치, 4·3추념일 지정 등이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4·3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고, 현재 제주사회에 대한 4·3피해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민주화운동 이전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4·3피해자는 사회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 환경의 직접적 영향에서 4·3피해자는 어떤 삶의 경로를 통해 회복탄력의 과정과 정도를 보여주는지 조사 결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1. 능동적 회복탄력성 : 일본 밀항

우선 사회 환경이 4·3피해자의 회복탄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4·3피해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회 환경을 극복하며 회복탄력을 찾아내는 사례이다.

제주읍 이호2구(이하 모두 당시 지명을 사용함)에 살던 김○주는 11살 되던 1948년 12월 7일 토벌대가 마을에 불을 지른 후부터 가족 8명(조부모, 부모, 증언자, 동생 3명) 중 모친, 증언자, 막내 여동생만 생존하는 피해를 입었다. 1949년 1월 13일에 온가족이 산으로 피신하였다가 동년 4월 말경에 산에서 내려왔다. 김○주는 마을이 소개되고 자신의 집이 불에 타는 장면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난 지금도 붉은 벽돌만 봐도 마을이 불에 탈 때 돌이 시뻘겋게 됐던 당시가 떠올라서 가급적 피해갑니다”(김○주 녹취록 참고).

부친 없이 모친과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상을 그의 증언에서 알 수 있다. “4·3 이후 아버지나 젊은 형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힘으로 밭농사 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에 장정이 있고, 밭갈쇠 한 마리 있으면 다른 집 밭을 갈아주며 번 돈으로 한해에 밭 하나씩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았습니다. 붉은 콩에도 새싹이 나더군요.”(김○주 녹취록 참고)

“오도룡(제주읍 이호2구의 속칭)은 워낙 향학열이 높은 곳입니다. 옛날부터 양반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일제 때도 글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야학도 활발하게 운영되었지요. 오도룡은 이웃마을 노형리와 더불어 원체 향학열이 높은 곳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일단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컸던 마을이지요. 나는 4·3 당시 외도국민학교를 다녔고(4학년 8반), 6·25전쟁 때에는 제주중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후 제주상업고등학교 야간반도 들어갔지만,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 중퇴했습니다. 이후 딱히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조농사와 보리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김○주 녹취록 참고)

여기서 김○주는 스스로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곧 일본 밀항이었다. “30대 초반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습니다. 결혼 후 아들 둘도 있는 상태인데 혼자 일본으로 가서 공장에서도 일하고 이것저것 잡일들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25년간 살다가 55세가 되는 1992년에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본에 그냥 눌러앉아 살았겠지만 나는 ‘55

세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다짐했었지요. 일본에서 번 돈을 제주로 보내면 부인이 알뜰하게 모았기 때문에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지요. 돈은 내가 벌었지만 부인이 모든 굶은일을 다 도맡아 하며 오늘날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김○주 녹취록 참고)

결국 김○주는 당시로서는 고학력을 지녔지만 마땅히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밀항을 감행함으로써 경제를 회복하는 능동적 회복탄력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1-2. 능동적 회복탄력성 : 모친과 절약

김○보(당시 2살)는 1948년 11월 7일 군·경 토벌대가 고향인 남원면 의귀리 마을에 불을 지르자 가족과 함께 산으로 피신했다. 1949년 봄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배라를 보고 산에서 내려와 주정공장에 갇혔다. 어머니와 함께 주정공장에서 풀려났지만, 함께 갇혔던 조부와 부친은 어디론가 끌려가 행방불명됐다. 50년이나 지난 후인 1999년에 「수형인명부」가 발굴됨에 따라 조부와 부친이 군사재판을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직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나를 데리고 정말로 힘겹게 사셨다. 남의 집 밖 거리를 빌어 살았는데, 사실 밖거리라기보다는 외양간 같은 곳이었다. 문도 없어 가마니로 문을 대신했고, 흙바닥 위에 짚을 깔아 그 위에서 잠을 잤다. 벽돌담도 촘촘하지 않아서 비가 들이치면 바닥이 빗물로 흠뻑 젖었다. 땅이 한 평도 없어 남의 밭을 빌어 농사를 지었다. 어머니는 어린 나를 혼자 돌 수 없으니 나를 애기구덕에 담아 밭으로 가서 재워놓은 후 일을 하셨다. 여성이 혼자서 어린 자식을 키우며 남의 밭 빌어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는가? 나도 6~7세 무렵부터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김매기를 했다. 주로 조를 재배했는데 조 농사는 김매기가 가장 큰 일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남의 밭 김매기’도 했다. 남의 밭을 빌어 농사를 짓는 것은 일종의 ‘소작농’이고, ‘남의 밭 김매기’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무료로 김매기를 하는 것이다. 파종 전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쟁기를 끌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여자의 힘으로는 소를 몰아가며 밭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밭갈이를 소유한 청년·장년 남자에게 밭갈이를 부탁하려면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사나흘 이상 김을 매줘야 한다. 이렇게 여러 날 김매기를 해야 밭갈이를 하루 빌 수가 있는 것이다. 굶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보니 초등학교(화산초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내 또래 아이들을 보면 눈물을 보이셨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 보내달라’고 떼쓰거나 조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떼를 쓸 수가 있겠나”(김○보 녹취록 참고).

“그렇게 절약을 해서 1969년 즉 내가 22살 때 밭 1,040평을 샀다. 처음으로 내 명의의 밭이 생긴 것이다. 그 밭에서 수확한 것을 모으고 절약한 돈으로 밭을 늘려갔다. 그 결과 지금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김○보 녹취록 참고).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와 4·3을 겪었고, 나도 4·3으로 인해 큰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이 좋은 세상인지 몰랐을 것이다”(김○보 녹취록 참고).

“‘폭도 자식’이라는 말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 왜냐면 군·경 토벌대에게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직접 ‘폭도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면 산에서 내려온 후 우리는 고향마을이 아니라 어머니의 친정 마을인 세화리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세화리에서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형무소로 끌려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폭도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기 눈에 거슬리면 ‘애비 없는 놈’, ‘홀어머 자식’이라고 욕을 했다. 성인이 됐을 때라면 항의라도 했을 텐데, 사춘기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김○보 녹취록 참고).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연좌제’를 직접 느끼진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좌제의 피해도 있는 모양이다”(김○보 녹취록 참고).

가정 경제 환경이 절대 빈곤 상황이고, 또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멸시를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모친과 본인이 근검절약해 부를 축적해 가정 경제를 일으켰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를 능동적으로 바꿔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당시 2살)은 토벌대가 고향 마을인 제주읍 영평리에 불을 지르자 부모와 함께 남문로 오현단 부근으로 소개(疏開)했다. 그런데 소개지에서 부모가 경찰에게 끌려갔다. 모친은 고문을 받은 후에 풀려났지만, 부친은 1948년 12월 8일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수형생활 중에 행방불명되는 피해를 보았다. 김○문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양초, 제주일중, 그리고 제주농고를 졸업해 당시로선 고학력자였지만 처음에는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다”(김○문 녹취록 참고).

김○문은 아라리 ‘함바집’에서 10년을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되어서야 고향 영평리로 복귀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2대 독자라 가까운 친척도 없고 나는 너무 어렸으니 집안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다. 누나들이 있었지만 큰누나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고, 둘째누나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집을 갔다. 막내누나는 그 무렵 집을 떠나 인천에 있는 방직회사에 일하러 갔다. 그러니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방학 때는 매일 밭에 가서 김을 댔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밭을 갈았다. 하지만 밭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밭갈쇠’가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생소’는 제멋대

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밭을 갈기 어렵다. 집안에 아버지와 장성한 형이 있는 경우엔 농사짓는 게 쉬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어린 나만 있는 우리는 참으로 힘이 들었다. 결국 ‘밭갈쇠’가 있는 남의 밭에 가서 4~5일 김을 매주면 밭갈쇠를 하루 빌어 밭을 갈 수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밭갈이 하며 농사일을 도왔지만 등록금 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일했다. 3,000~4,000평 정도의 밭을 농사지었지만 우리 힘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의 품을 빌리다보니 실제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다. 남의 땅 빌려서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땅주인과 우리가 수확의 50%씩 나눠 갖는 경우도 있었고, 심할 때는 수확량의 70%를 땅주인이 가져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농사를 했는데 일반 밭농사 즉 보리, 조, 고구마는 가격이 별로 안됐다. 유채는 좀 돈이 되었다. 22살 때부터 감귤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즉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감귤나무를 심었다”(김○문 녹취록 참고).

“당시엔 야만적인 것이 있어서 힘이 센 사람은 잘 살고 약한 사람은 천대받았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많이 시달렸다. 학교갈 때 선배들 책가방 들고 다녔는데, 이유 없이 그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다. 만일 아버지가 2대 독자가 아니어서 친척이 많이 있으면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을 텐데, 내겐 형도 없으니 멸시를 많이 받았다. 약한 집안이라 무시당하면서 살았다. 아버지도 형도 친척도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이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 22살에 결혼했는데 그 후에도 멸시를 당했다. 20대 후반까지는 이유 없이 매도 많이 맞았다. 형제가 쟁쟁하고 친척도 수십 명이 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세력이 없어서 함부로 당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힘을 키웠다. 어릴 때 제대로 못 먹어 키는 작았지만 축구 등 운동을 잘했고, 힘을 키우니 웬만한 돌담도 한 번에 휩 넘을 수 있었다. 나는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체력단련을 했다. 그래서 서른 살이 될 무렵엔 마을에서 힘으로 나를 당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일에 적극 봉사하다보니 서른 살에 마을 청년회장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멸시 당하지 않고 마을 지도자급이 되어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 또한 영평동 4H 회장, 제주시 4H 후원회 청소년 사무국장, 영평동 새마을지도자, 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제주도 농촌지도자부회장, 영평동 마을회장을 역임했다. 47세부터 60세까지는 비료 회사인 (주)풍농 제주출장소장으로 일했다”(김○문 녹취록 참고).

가정 경제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바로 농업을 통해 가정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통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있다.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이 부족해 쌀 농사를 할 수 없고 환금 가치가 낮은 조·보리 농사로는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으나, 60~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감귤 농사는 경제적 안정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감귤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대학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 하여 한때 ‘대학나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감귤 농사는 고수익 과일이었기 때문이다.

1-3. 능동적 회복탄력성 : 본적 이동 - 연좌제

부○휴는 1929년생으로 4·3 당시 제주읍 화북리에 거주하면서 제주농업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5학년). 1948년 10월 30일 무장한 군인 집으로 찾아와 형을 끌고 가서 사살하였다. 이때 부○휴는 학생임을 밝히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같은 해 12월 초 또다시 집으로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끌려가 9연대 주둔지이자 본인이 다니는 농업학교 천막수용소에 감금되었다. 20여 일 후인 12월 말에는 목포형무소를 거쳐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년가량 지난 후인 1949년 10월 말에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 6·25전쟁 직후 벌어진 예비검속 학살은 다행히 피할 수 있었고, ‘빨갱이 딱지’를 지우기 위해 전쟁 직후인 1950년 8월 하순 자원입대를 하였다.

농업학교 졸업생이면 당시로선 인텔리인데 취직을 못했느냐의 질문에 “연좌제가 아니라 전과 경력이며,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했다”(부○휴 녹취록 참고). “사상이 깨끗하다고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군대갔다운 직후 23세에 나 혼자만 본적을 화북리에서 이도리로 바꿨다. 땃줄을 태워버린 것이다.”(부○휴 녹취록 참고).

부○휴는 1954년 1월에 제대한 직후 제주도보훈처에서 5년을 근무했다. 졸업은 못했지만 농업학교 5학년까지 다닌, 당시로서는 지식인이었고 농업학교 동창 등 인맥이 있었기에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교육청 학무과, 조천중학교 행정실 등에서도 근무했고, 세화중학교를 끝으로 1975년에 8월 공무원 생활을 끝냈다. 그는 ‘왜 공무원 직을 그만 두었느냐? 신분에 위협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는 지역마다 담당 형사들이 있었는데 형사들이 찾아온 건 아니지만 마음 편안하게 살자고 그만두었다. 그만둘 무렵은 분위기가 어수선했서, 군사정부가 심할 때여서 40대 중후반에 내가 스스로 그만뒀다”고 말했다(부○휴 녹취록 참고).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본격화되자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 환경이 4·3피해자의 진로에 직접 영향을 주자, 본적 이동이라는 일탈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혀 공무원에서 스스로 물러난 사례인 것이다.

1-4. 능동적 회복탄력성 : 진로 개척

1948년 11월 군인들이 남원면 한남리에 들이닥쳐 불을 지를 때, 6살 고○조는 9살인 누나와 함께 울레에서 놀고 있었다.

“당시 가을이어서 조 같은 곡식들을 멍석에 널어 말리고 있었다. 한남리 동남쪽에서부터 초가집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누나가 급히 자신을 이끌고 집 근처 대밭에 숨었다. 토벌대가 집안을 수색하고 불붙이는 것을 목격했다. 대나무가 타서 열기가 대단했는데 참아서 기다리

느라 애를 먹었다. 해가 진 다음에 어머니가 와서 우리 남매를 이끌고 그날 밤부터 피난길에 올랐다.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야간 피난길로 외가(남원면 남원리 상동)로 피난 가서 숨어서 지냈다. 며칠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락이 닿았다. 어머니가 아버지 보고 남원리로 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세 식구가 처가집에 이미 신세를 지고 있는데 자신까지 가기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국 피신 생활 중 붙잡혀 행방불명됐는데, 나중에 「수형인명부」를 통해 아버지가 마포형무소에 감금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어머니 아시는 분의 권유로 서귀포 보목리로 갔다. 어머니는 길쌈을 잘했다. 길쌈 주문이 들어오는 날은 우리도 그 집에 따라 가서 점심도 얻어먹곤 했다. 보목리에서는 7살부터 15살까지 살았다. 그 후 어머니와 떨어져서 17살에 하효리에 있는 가구공장에 취업해 10년간 기술을 배웠다. 그러다 집을 짓는 목수로 전업해 73세까지 건설업을 했다. 고향 한남리에 가 봐야 아무런 전망이 없으니깐 기술계통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다. 가구를 배우는 시간이 10년이 되었다.

목수가 되어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7남매 모두 4년제 이상 교육시켰고 4남매는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 해외연수, 대학원까지 보낼 수 있었다. 가구공장 다니던 26살에 결혼을 했다. 당시 기술직은 알아주지 않았고, 내 처지가 완전 빈손인데다가 내 집도 없이 남의 집에 살고 있어서 배필 구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을 했다.

누나는 11살에 남원리 이모집에 맡겨졌는데, 누나는 10대 초·중반기를 이모집에서 가사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다 독립해 혼자 자취를 하면서 전문공장(신효리)에 취업했고 물질도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물질을 나가기도 했다. 누나는 물질을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한 것으로 기억 된다.

어린 시절을 가시밭길을 걸었으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앞선다. 건설업을 하다 보니 안 가는 데가 없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았다. '고쳐주고 감싸'라고 부탁이 자주 들어오니까 같이 목수일을 하는 사람들로 자원봉사 모임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었다. 서귀포건축기술자원봉사회를 조직해 1996년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라이온스클럽에도 가입해 28년차 불우이웃돕기하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조 녹취록 참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4·3을 겪은 후에도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서 친척집에 맡겨졌지만,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수 기술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능동적인 회복탄력성을 보이고 있었다.

1-5. 조력자를 통한 회복탄력성 : 결혼

김○녀는 1948년 11월 13일 조천면 교래리에서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평생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그의 나이 4살 때 일이다. 그날 군인들이 갑자기 마을에 들어닥쳐 불을 질렀다. 김○녀의 어머니는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군인들은 김○녀의 어머니와 김○녀의 오빠(5살)에게 총을 쏘았다. 김○녀의 오빠는 즉사했고, 김○녀는 어머니에게 업혀 있었는데, 어머니의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김○녀의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김○녀는 강렬한 트라우마를 지니게 되었고, 오빠와 자신을 데리고 빨리 피신하지 않은 어머니를 평생 원망하며 지내게 된다.

가정 경제도 빈약했다. “먹을 거라고는 밀가루 수제비뿐이었다. 하도 수제비만 먹은 탓에 어머니는 그 후 돌아가실 때까지 수제비를 전혀 드시지 않았다”(김○녀 녹취록 참조). 다리에 총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동년배들에게 ‘병신’이라 놀림을 받은 탓에 초등학교 1년을 다니다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제주도청 구내식당에서 1995년까지 일했다. “이때 제주시에서 딸(1973년생)과 함께 방 한 칸 얻어 살고 있었고, 연탄가스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하였다. 집에 놀러온 어머니도 연탄가스에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김○녀 녹취록 참고).

하지만 그녀에게 회복탄력의 기회는 1990년대 말 재혼을 통해서 나타났다. “현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불편한 몸으로 홀로 딸을 키우는 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도청 식당에서 일했지만 월급이 7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집세를 내고나면 먹을 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현 남편을 만나 보살핌을 받으니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우선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김○녀 녹취록 참고). “현 남편은 나를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남편은 내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있던 나를 데리고 제주도에 있는 정형외과는 모두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수에 훌륭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1998년경 여수재활병원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이 정도 치료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김○녀 녹취록 참고).

결국 김○녀씨는 열악한 경제 상황과 다리 불구로 인하여 회복이 어려운 심리적 상태였지만, 결혼해 남편의 보살핌을 받은 것이 회복탄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6. 조력자를 통한 회복탄력성 : 일가친척

4·3 당시 19살이던 문○선은 갓 결혼해 임신한 상태로서 제주읍 연동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948년 12월 토벌대의 강경작전이 심해지자 온가족이 산으로 피신하였다가 1949년 봄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소문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주정공장에 감금됐다. 약 3개월 동안 주정공장에 감금돼 있던 중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 문○선은 풀려났으나 같이 감금돼 있던 시어머니는 전주형무소로 보내졌다. 시어머니는 형기를 마치고 귀환했지만 시어머니가 형무소에 함께 데리고 간 시아주버니(당시 2~3살)은 형무소에서 병사했다.

“그때는 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산에 가서 땔나무를 모아 그걸 팔아서 살았다. 민오름 뒤 목장, 흑담밭 부근의 곳자왈까지 가서 땔나무를 해왔다. 잔잔한 나무를 모아서 베로 저서 왔다. 그때는 연탄과 기름이 없어서 주로 식당과 일반집에 팔았다.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다. 조 농사는 비료를 안 줘도 되지만, 보리농사는 퇴비를 만들어 거름으로 줘야 하는데, 퇴비를 마련할 힘이 없으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 땔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땔나무를 판 돈으로 조나 보리를 사서 범벅을 해서 먹었다”(문○선 녹취록 참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일본에서 보내준 돈으로 경제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일본에 계시는 시아버지가 ‘제주도에 사람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화병이 났다. 시아버지는 몸이 아파도 돈을 모아서 제주로 보내줬다. 그 돈으로 이 집터를 사고 여덟말지기 땅을 샀다. 시아버지는 내가 70살이 되던 쯤에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 시아버지가 지원해 준 것이 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문○선 녹취록 참고).

그는 이제 한이 풀린 것 같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4·3의 한이 풀린 것 같지 않다. 죽으면 풀릴테지요”라고 말했다(문○선 녹취록 참고).

결국 남편을 잃은 피해자는 일본에 있는 시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찾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 4·3 장한어머니상을 수상하는 회복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부모의 조력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4·3 당시 14살이던 안○행은 고향인 애월면 장전리에 소개령이 내려지자 가족과 함께 하귀리 개수동으로 소개하였다. 그런데 1948년 12월 5일경 경찰이 “월동용 장작을 마련해야 하니 도끼를 들고 집합하라.”는 동원령에 따라 집을 나섰던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12월 10일에는 경찰이 개수동에 들이닥쳐 주민들을 학살했다. 안○행은 경찰이 총격을 가할 때 모친이 자신을 감싸 안고 쓰러진 덕에 목숨을 구했으나 결국 부모 잃은 고아가 되었다.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수산리로 데려갔다. 그 뒤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학교는 고성리에 있는 간이학교 다녔지만 소개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학교 졸업도 못 했다. 바쁜데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솔직히 밥만 얻어먹었지, 눈칫밥 얻어먹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소개 가기 전에 밭을 살려고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 있었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밭이 5,000평이 있었다. 아버지의 형제들을 살리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돈을 다 썼지만, 아버

지의 밭은 남아 있었다. 우리는 땅 안 팔고 보리, 조, 메밀 등 잡곡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그 당시 할아버지는 농사지을 힘이 있는 나이였다”(안○행 녹취록 참고).

1940년생으로 4·3 당시 8살이던 오○은은 구좌면 상도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1948년 12월 5일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이 다짜고짜 집에 불을 지르면서 조부 오지현(吳志炫, 54세), 부친 오문형(吳文形, 28세), 모친 김정숙(金貞淑, 29세), 남동생 오차은(吳次銀, 7세)과 오계은(吳季銀, 5세)을 총살했다. 급히 숨었던 오○은만 목숨을 구하고 모두 희생된 것이다. 8살 나이에 갑자기 고아가 된 오○은은 그 후 외할머니, 큰어머니, 6촌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친척 집에 살면서 눈칫밥을 많이 먹었다. 차라리 고아원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큰어머니 집으로 갔다. 내 결혼도 큰어머니가 시켜주셨다. 농업고등학교 까지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선친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반도 안 남았다”(오○은 녹취록 참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식품 가공업체인 ‘유창산업’에서 일했다. 5~6년 정도 일하고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공기업에 일한 것은 아니어서 연좌제 피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오○은 녹취록 참고).

홍○호는 1938년생 여성이며, 안덕면 동광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948년 11월 15일 동광리에 토벌대가 들이닥쳐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하자 주민들은 산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피신 중 동생 셋을 잃었고, 이듬해 자수하면 살려주겠다는 선무공작에 의해 3월 20일 막대기에 흰 천을 두르고 토벌대에 ‘항복’하였다.

“우리는 항복한 후 ○○마을로 끌려갔다. 우리는 토벌대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쌓은 성 안에서 지냈다. 우리가 지낸 곳은 마을 사람들이 보초를 서는 곳 바로 아래였다. 우리는 ‘폭도자식’이라는 욕을 들었고 돌에 맞기도 했다. 너무 무서워서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과 ‘앞으로 그쪽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다. 이후 우리 마을 사람들은 화순지서로 끌려갔다. 화순지서에서 나와 작은 배에 탔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서 지금 천지연 폭포 아래 항구에 배를 댔다. 이후 근처에 있었던 단추공장에 감금됐다. 1949년 겨울, 단추공장에서 풀려난 후 우리 가족은 화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홍○호 녹취록 참고). 이 시기에 부모님은 남동생을 낳게 된다.

“그러나 부친이 갑자기 별세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살았다. 집 주인의 눈치가 많이 보여 먹는 것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눈에 거슬려 ‘폭도 자식’이라 욕할까봐서였다. 마을이 불타 동광리 집이 없어진 이후 도피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한동안 생활이 곤궁해 이불 한번 덮지 못했다. 쌀이 없어 밀껍질을 구해다 삶아서 먹곤 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손을 빌려 공터에 움막을 지었다. 나무로 벽을 만들고 억새를 이어 지붕을 만든 3~4평 남짓한 작은 움막이었다. 집이라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어 우리 가족은 참 기뻐했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지붕 사이로 눈이 떨어

어지는 집이어도 마음이 편했다. 7년을 움막에서 살았다”(홍○호 녹취록 참고).

결혼을 하여 친정과 떨어져 살았는데 어머니가 별세하여 어린 동생을 친정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고, 친정 눈치를 보며 생활을 해야 했다. “꽃다운 20대부터 30년간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다. 내 나이 50이 되던 무렵 형편이 나아졌다.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된 밭을 사고, 소도 키우며 먹고 사는 걱정을 덜었다. 4·3으로 가족과 집을 잃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딛고 가정 형편이 나아지면서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끝났다”(홍○호 녹취록 참고).

여성으로서 어려운 경제·사회 환경 특히 심리적으로 ‘폭도자식’이라는 언어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결혼을 통해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2. 민주화운동을 통한 공동체 변화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민주화운동을 통한 공동체의 변화를 우선 공동체의식의 변화와 유족회 발족으로 구분하였고, 이런 공동체가 회복탄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1.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회복탄력성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의 사례가 유일하였다.

양○천은 1947년생으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토벌작전과 예비검속으로 부친과 형을 잃는 피해를 당하였고, 모친이 2살배기 양○천을 데리고 언니가 사는 집(신흥리)으로 피신하여 생존하게 되었다. 신흥에서 흥산초등학교를 다니다, 의귀리 마을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귀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남원중학교와 서귀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건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에 합격하였으나 가정 경제 형편상 대학교를 포기하고 공군하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중사로 28세에 제대를 하였다.

“아버지 명의로 땅이 만평 정도 있었다. 누이들에게 나눠주고 6,000평을 내가 가졌다. 신흥리에서는 어머니가 남의 일도 하고 겨우 살았다. 신흥리에서 의귀리까지 밭에 일하러 다녔다. 밭은 넓었지만 요즘처럼 제대로 경작하기 어려웠다. 특히 나는 너무 어렸고 어머니가 여자 힘으로 혼자 밭농사 하는 건 힘든 일이었다. 특히 밭가는 것은 여자가 못했다. 소 있는 집에 밭갈쇠를 빌렸다. 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며칠 일을 하고 밭갈쇠를 빌렸다. 육체노동으

로 다 농사짓지 못하니까 병작을 쳤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모친이 용돈을 주는 일이 거의 없어 집에서 계란을 가지고 가서 공책을 샀다. 지네를 잡아서 한약방에 팔아서 용돈으로 썼다”(양○천 녹취록 참고).

“제대후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이때 6,000평 밭에 굴나무를 300주를 심었다. 제대할 때 전별금과 퇴직금으로 4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걸로 집을 지었다. 또한 이웃의 친한 사람이 내가 제대하니까 친하게 지내자해서 우리집에 와서 경운기로 밭도 갈아주고 농사법도 가르쳐줬다. 탕자나무 접붙이는 것도 배우면서 묘목생산을 해서 6,000평에 모두 심었다. 심어서 3년 후 700관이 달렸다. 1975년도는 감귤농사가 본격화된 시기였다. 묘목도 팔고 밀감 수확량도 많아지면서 생활이 나아졌다. 그 이후에 서귀포집도 샀다. 신시가지 대림아파트도 샀다”(양○천 녹취록 참고).

양○천은 군대 제대 후 바로 1975년경 삼묘동친회 회장직을 수행했다. 이는 다른 4·3피해자의 회복탄력의 과정과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양○천 녹취록 참고).

“1984년에 현의합장묘에 비석을 세우니까 자꾸 서귀포경찰서 남원지서에서 조사를 나왔다. 유족회 창립 후에 남원지회가 먼저 생겼다. 남원지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뒷날 아니면 며칠 후에 남원파출소에서 조사가 나왔다. 현의합장묘에 누가 있나? 등등을 캐물었다. 이때 나는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뭐 할건가 생각했다”(양○천).

“의귀리 학살을 자행했던 군인들의 만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군 복무를 하며 듣고 보던 이야기를 통해 ‘군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극적 참여 동기는 4·3연구소 행사를 했을 때부터이다. 1989년에 유족회도 막 출범할 때였다.”(양○천 녹취록 참고).

“기존 현의합장묘가 길가에 붙어있어서 길을 넓히는 데 지장이 있었고, 우리 유족 입장에서도 우리 손으로 제대로 다시 한 번 봉분을 잘 꾸며 모셔보자는 여론이 생겨 이전한 것이다. 이전된 위치는 수망리 893번지이다. 즉 현의합장묘가 의귀리에서 수망리로 2003년에 이장한 것이다. 유족의 손으로 2003년에 현의합장묘에 안장하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진 것 같다”(양○천 녹취록 참고).

이처럼 양○천은 민주화운동 이전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고향에 돌아와 현안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며 의식적인 행동으로 삼묘동친회(현의합장묘) 회장을 맡으면서 회복탄력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 직후에는 더욱 적극적 현의합장묘 문제뿐만 아니라 4·3 문제 해결에도 앞장을 서며 회복탄력의 긍정적 정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에게는 회복돼야 할 부정적 부분이 남아있다. “지금도 꿈 때문에 괴롭다. 죽이는 모습, 현의합장묘 영령들 발굴하는 모습, 잡동사니로 나타났다. 누군가 찾아와서 4·3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괴롭고 꿈도 꾸곤 한다. 광역형 정신보건 센터에 가서 얘기하고 서귀포 병원에서 치료하기도 했다. 그러나 낫지 않았다. 그러다 소개를 받아 올해 제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준혁 교수의 처방을 받아 2달간 약 먹고 나왔다.

그분이 나의 사연을 듣고 약 처방을 해줬다.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양○천 녹취록 참고).

또 다른 사례는 김○주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돌아온 1992년 말쯤에 마을(이호동)에 잔치가 열렸다. 그 잔치집에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큰 희생을 당했는데 이를 기록이라도 남겨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말이 어른들 사이에서 나왔다. 어른들은 나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각 지역의 책임자들을 다 정해서 역할을 분담했지만 끝까지 추가 조사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는 결국 내가 마무리를 지었다. 집마다 다니면서 증언을 듣고 1995년에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1995년은 김영삼 대통령 때다. 그때는 군사정권이 좀 마무리되고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4·3에 대한 이야기를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거다.”(김○주 녹취록 참고).

제주지역 동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은 마을 주민 의식의 변화와 김○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민주화운동 이후 공동체의 변화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이 분명하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이후 도민인식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오○은은 “이젠 연좌제 없어지고 4·3특별법이 제정된 후부터는 4·3을 알리는 학생도 많아지고, 요즘은 많이 풀렸다. 옛날 같으면 무슨 말이라도 하면 바로 ‘폭도 새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눈짓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눈치 보는 것 같다. 과거엔 말로 밀리거나 힘으로 밀리면 바로 ‘폭도 새끼’라고 했는데 말이다. 유족회 활동은 하지 않지만 위령제는 간다. 4·3공원 만들고 추모식하는 걸 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는다. 유족이 아니라도 제주도민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오○은 녹취록 참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홍○호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졌지만 내 마음 속에는 ‘폭도자식’라는 낙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러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려는 시도가 큰 위안을 주었다. 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위령제 참석 등이 나를 떳떳한 존재로 만들어줬다. 제주4·3평화공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이 나에게 큰 위로를 해준다. 한때는 나의 고향, 안덕면 동광리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던 세월도 있었다. 우리 마을이 ‘폭도마을’이라는 낙인이 찍혀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말하지 못했다. 유족회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4·3 때 우리 마을과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와서 기분이 좋다”(홍○호 녹취록 참고).

2-2. 유족회 활동과 회복탄력성

유족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답한 사례의 수가 적다, 우선 김○보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4·3희생자유족회 활동은 2006년경부터 시작했다. 그전엔 중부님이 유족회 행사에

다녔는데 내게도 참여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유족회 활동을 했다. 전국의 형무소 터를 매년 순례하면서 점점 더 활동적이 되었다. 진실 밝히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유족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김○보 녹취록 참고).

“지금까지 유족회 활동을 15년 정도 했으니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한 셈이다. 우선 행방불명인유족회 영남위원장을 6~7년 했다. 현재는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유족협의회장, 4·3평화합창단장, 4·3명예교사 역할을 맡고 있다. 4·3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려고 앞장서고 있다. 자식의 도리로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원혼을 달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고 동료들에게 자랑이라고 할 것은 아닌가 하면서 4·3 일에 나서고 있다.”(김○문 녹취록 참고).

유족회의 첫 출발인 ‘반공유족회’는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낮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기회라기보다는 도덕적 차원인 ‘도리’로써 유족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반공유족회’ 시기에는 유족회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도 조사에서 노출되고 있다. 유족회가 활성화된 큰 계기는 1999년 9월 ‘수형인명부’ 발굴이다. 이에 따라 ‘4·3행방불명인유족회’가 출범했고, 현재 유족회의 핵심 인사들은 대개 행방불명인 유족들이다. 그동안 ‘전과자의 후손’이라는 낙인에 찍혀 오랜 세월 숨죽이며 살아온 유족들이 명예를 벗어던지자 가장 강력한 유족 집단이 된 것이다.

3. 민주화운동 사회제도의 변화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제도의 변화(4·3평화공원, 4·3추모제 등)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사례들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김○보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2008년 4·3평화공원에 ‘행방불명인 표석’이 설치된 것에 위안을 받고 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이 없어 벌초 때마다 크게 섭섭했는데, 비록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의 형태이지만 행방불명인 표석이 만들어지니까 ‘이곳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설과 추석 명절을 지낸 후 명절 음식을 갖고 온가족이 행방불명인 표석에 찾아와 참배한다. 또한 4월 3일 ‘4·3추모제’와 ‘행방불명인 진혼제’ 때에도 찾아간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 4번은 찾는 것이다”(김○보 녹취록 참고).

김○녀 역시 “4·3평화공원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오빠가 계시기 때문에 매년 추모제에 간다. 거기 가면 ‘나라가 희생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김○녀 녹취록 참고)라고 증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안○행의 증언이다. “위안이 된다. 평화공원에 행방불명인 표석도 그렇고 제주도민으로서 4·3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억울한데... ‘폭도’라는 말만 안 들어도 좋다. 위안이 많이 된다. 억울한데 표석해주니까, 국가에서 해주니까. 4월 3일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어머니 묘소 옆에 아버지 비석도 세워두었다. 평화공원 행불인 표석을 보면, 이름이 있으니 묘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4·3 위령제 때 동생하고 표석에 제일 먼저 간다. 유족회 활동은 안 하고 4·3 위령제만 참석한다”(안○행 녹취록 참고).

양○천도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행불인 표석에 형님 표석도 있다. 유해 발굴로 유해 봉안관에 형님이 안치된 것이 맺힌 한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다”(양○천 녹취록 참고).

이처럼 4·3평화공원은 4·3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4·3추모제도 4·3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정치 변화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사회 환경의 변화, 특히 정치 진영의 변화는 4·3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녀의 증언에 따르면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한 것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김○녀 녹취록 참고). “후유장애인 결정은 오래됐습니다. 장애등급 받으라고 해서 보건소에 가니까 3급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데 겨우 월 3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게 조금씩 올라 5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70만원입니다. 4·3특별법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우리를 외면했는데, 이젠 희망이 조금 보이니까요. 4·3특별법이 개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김○녀 녹취록 참고).

김○보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인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돼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완전한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 ‘4·3군법회의 무효화’ 조항이 있는데, 어서 특별법이 개정돼 전과자라는 억울한 누명이 깨끗이 벗겨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 같다”(김○보 녹취록 참고)고 구술하고 있다.

김○문은 정치의 변화가 공동체와 도민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또한 개인의 회복탄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군법회의 수형인명부가 발굴됐다는 소식을 듣고 옛

도립병원 옆에 있는 4·3관련 단체를 찾아갔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형량이 15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너무나 억울해서 만일 그때 누가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때 기분으로는 누구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 뭐를 잘못했는데 15년이나? 백보양보해서 15년형이 정상적인 것이라 해도 15년이 훨씬 지났으니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아버지는 학교도 다닌 바 없는 무학이었고 산에 오른 적도 없는 분이다”(김○문 녹취록 참고). “굳이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자 비로소 4·3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전엔 ‘죄 아닌 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4·3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한 이후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4·3에 관해 논쟁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과 대통령의 사과로 위로를 받게 되었고 맺힌 한도 조금이나마 풀렸다”(김○문 녹취록 참고).

문○선은 정치의 변화, 사회제도의 변화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준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4·3의 한은 죽어서야 풀린다고 한다. “4·3 추념식에 가면 위로가 된다. 그리고 특별법, 공원, 대통령 사과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완전히 풀리지는 못했지만, 노무현대통령도 사과,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 대통령들이 고맙다”(문○선 녹취록 참고).

부○휴 역시 정치의 변화가 공동체와 도민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또한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군법회의 재심으로 무죄판결과 다른없는 공소기각 판결 받아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 전과자 낙인만 아니었으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출세를 못했다. 동기 중에는 전과가 없는 사람은 간부가 된 사람도 있고, 장교로 간 사람도 있었다.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대통령 사과, 문재인 대통령 사과 위로가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4·3에 관심을 안 가져서 섭섭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 재심 결정, 추미애 위원께 감사하다.”(부○휴 녹취록 참고).

또한 양○천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진상보고서 작성, 노무현 대통령 사과와 같은 정치적 변화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양○천 녹취록 참고).

하지만 김○주는 정치의 변화가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4·3유족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 직선제(1987년 6월 항쟁 후) 등은 모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 가기 전에는 4·3 이야기를 아예 할 수 없었고 할 이야기도 없었지요. 당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4·3 이야기만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렸으니까요. 이제는 4·3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4·3에 대해, 그리고 정치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이로 인해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 듯합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 알가알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김○주 녹취록 참고).

고○조는 “4·3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한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오셔서 사과하는 걸 직접 봤

다. 대통령이 사과하니 ‘우리 유족들도 이제 살 길이 트였구나’ 라는 희망이 보였다. 정신적으로 큰 희망이 되었다.”(고○조 녹취록 참고).

정치 사회적인 변화로 4·3의 진실 규명이 되고 4·3에 대한 세대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4·3 문제 해결이 거시적인 담론의 측면만이 아니라 개인사적으로는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현재 제주사회 인식

4·3피해자의 현재 제주사회가 지니고 있는 4·3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의 분석이다.

우선 김○문의 지적이다. “4·3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보상은 물론, 군법회의를 무효화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혔으니 국가가 처리해 줘야 한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속에 농이 가득 차 있는데 외부에다가 ‘평화의 섬’만 운운하면 무슨 소용인가. 진정 평화의 섬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4·3군법회의를 무효화시키고 배·보상이 이뤄져야만 한다.”(김○문 녹취록 참고). “그리고 4·3에 쓰이는 이런저런 예산이 많은데 정작 유족에게 쓰이는 돈은 미약하다. 유족의 아픔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예산인 것이다. 합창단, 임원회도 스스로 돈을 내면서 하고 있고, 유족회 직원들은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김○문 녹취록 참고).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아픔을 모른다. 4·3도 모르고 부모의 고통도 모른다. 학생들이 4·3의 진상과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김○문 녹취록 참고).

안○행은 4·3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3은 역사로 남겨두어야 한다. 역사로 남겨두어서 역사,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이상은 남겨야 한다. 우리 세대가 없어지면 우리 자식 세대는 모른다. 이것을 역사로 남겨두어야만 한다”(안○행 녹취록 참고).

여기에 유사하게 오○은은 “4·3은 제주도민의 몇 분의 일이 희생당한 일이다. 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정부 시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다음에 그러한 세상이 오면 안 된다. 4·3유족으로서 미국 책임이 있다고 본다”(오○은 녹취록 참고).

다음은 청소년 교육에 관련하여 증언하고 있다. “4·3이 바로 정립되었으면 한다. 도교육

청에서 4·3교육을 활성화 시켰으면 한다”(양○천 녹취록 참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들이 4·3을 많이 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홍○호 녹취록 참고).

마지막으로 김○보의 지적이다. “과거에는 4·3에 대해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할 뿐이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은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상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4·3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정작 4·3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오히려 괴로움이 커지기도 했다. 위령제에 참석하거나 뉴스에서 4·3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미어졌다. 1993년부터 2년간 ‘바르게살기위원회’ 표선면 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때 살펴보니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4·3 피해에 대해 우울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남을 돕는데 신경을 써야 4·3으로 인한 내 마음의 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위원장 시절부터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반찬값이나 학용품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원하기 시작했다. 직접 찾아가 돈을 주면 생색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계좌이체를 했다. 그 후 어떻게 하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5억원을 모으기로 했다. 2남 2녀 자식들도 내 뜻을 잘 이해해 함께 돈을 모았다. 우선 2억원을 모아 제주4·3평화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법을 때문에 재단에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2014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어떤 것으로도 4·3의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다. 4·3이라는 아픈 과거를 덮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무자비한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후세대에게 4·3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평화롭고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게 행복한 사회라고 본다.”(김○보 녹취록 참고).

Ⅳ. 결론과 제언

1. 결론

그동안 제주4·3 관련 연구는 피해사실의 진상규명에 주목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연구의 방향을 돌려서 피해자의 삶의 경로를 통해 제주4·3 피해가 4·3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미시적인 접근 역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각에서 회복탄력성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결정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에 주목하며 조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4·3피해자는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었고, 사회제도인 연좌제를 통해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4·3피해자의 회복탄력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런 관점에 주목하며, 분석의 기준점을 민주화운동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4·3피해자의 일상 사회생활, 연좌제 등 사회제도,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가 피해자 개인의 회복탄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민주화운동 이전은 사회 환경(정치, 경제, 법, 문화)이 직접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회복탄력의 요인은 ‘가정 경제’에 있었다.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은 경제였고,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직업은 ‘농업’이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낮은 잡곡 농사를 지으며 절대 빈곤 상태에 놓였지만, 60~70년대부터 감귤 농사를 시작하면서 고수익을 얻게 되자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4·3피해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에 나서거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가정 경제의 안정을 이루어 회복탄력을 진행하였다.

둘째, 1987년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시민 역량을 강화시켰고,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4·3피해자의 회복탄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민주화운동 이전에는 4·3 문제에 대해 말할 수조차 없었지만, 민주화운동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4·3문제에 능동적이며 의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 이전 4·3피해자는 타인과의 대화 도중 ‘폭도 새

끼', '애비 없는 자식'이란 멸시를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심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이후 점차 지역사회의 대화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해 이젠 그런 모멸적 표현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민주화운동은 4·3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고 심적인 아픔의 치료에도 한 몫을 했다.

셋째, 민주화운동 이후 나타난 다양한 사회제도들이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제주4·3추념일 제정,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평화재단 설립 등이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성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4·3피해자들은 위령제참석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받고 있다.

넷째, 제주4·3특별법의 제정과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는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 특히 정치의 변화는 4·3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의 변화는 공동체의식과 사회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사회 환경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변화가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이는 4·3피해자의 아픈 경험이 정치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끝으로, 4·3피해자는 4·3특별법 개정을 현재 제주사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피해 배상은 물론, 군법회의 무효화를 통해 '전과자 낙인'이 지워지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4·3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함을 지적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남겨 두어야 하고 후세대에 대한 4·3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4·3피해자의 생애주기별 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의 과정과 정도를 밝히기 위해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 환경이 직접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 환경이 공동체의식과 사회제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변적 상호작용 관점으로 4·3피해자의 생애주기별 회복탄력성을 연구하였지만, 연구기간과 질적 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후속과제로 남는다. 이는 다음의 연구를 위한 시발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4·3피해자들의 회복탄력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회 분위기가 민주화됨에 따라 4·3진상규명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공동체 의식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화운동 이후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주요 변수는 공동체 의식의 변화였다. 언론의 4·3관련 보도, 4·3연구소 발족, 4·3유족회 출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4·3행사가 활성화되면서 4·3진상규명에 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변화와 4·301해의 세대전승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체계 및 시민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화운동 이후 정치·사회적인 일련의 변화가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4·3피해자의 회복탄력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4·3의 현안과제인 군법회의 무효화, 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4·3이 주는 역사의 교훈을 거울삼아 사회 각 분야에서 평화와 인권 의식 신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 통일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논의의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종민, 역사문제연구소 외(1999), 「4·30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 홍은숙(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서울: 위즈덤하우스
- 배성경(2012), 「공감능력 및 자기통제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서규(2014), 「노인의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선영(2015), 「회복탄력성, 일-삶 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석(2018),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회복탄력성」 『아세아연구』, 제61권 4호 194
- 현혜경 · 부은혜(2018),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Werner, E.E., & Smith, R.S.(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 Hill.
- Dyer, J. G., & McGuinness, T.M.(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sychiatric Nursing, 10, 276-282.
- Reivich, K., Shatte, A.(2002).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y: Broad way Books.
- Lee Ji Hee, Nam Suk Kyung, Kim A-Reum, Kim Boram, Lee Min Young, Lee Sang Min(2012). Resilience: A Meta-Analtic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Abstract

Resilience of 4·3 Victim

Han Sang Hee, Kang Nam-gyu, Kim Jong-min

Keywords : Social environment of Jeju Island, 4.3victim, resilience, multilateral interaction, trauma, social adaptation, guilt-by-association, life stage

Objectives

This research aimed to define the concept of resilience through the life history of Jeju 4.3 victims following the context of their traumatic experiences. Thus, this research studied how much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mpact on Jeju 4.3 victim's resilience.

Methodology

This research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with an in-depth interview for a life history follow-up. The research team interviewed eleven participants who are over 70 years old. Especially the seven participants from eleven were the people who had an interview with the principal researcher during the period for 4.3 truth investigation and its damage since the 1990s. Therefore, it was able to understand the level of sociopsychological resilience following their life cycle and the political-social changes. This study focused on an aspect of the multilateral interaction that the resilience is a process of adapt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ndividual, family, social community and social system.

Result

The research found the following factors that influenced the victim's resilience. First of all, the research focused on 4.3 victim's progress of resilience before the democratic movement. As a result, the resilience of 4.3 victims made its progress overcoming the social environment by the active life (i.e. a stowing way to Japan, frugalness life with mother, reclamation of the life) or relying on a supporter (i.e. remarriage, kinship). Secondly, the civic competency impacted on the 4.3 victim's resilience which enhanced by the democratic movement since 1987. The research confirmed that the civic competency changed the community's awareness, and it helped the victim's psychological stability. Finally, among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he political camp's chang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4.3 Special Law and the apologies on Jeju 4.3 given by President Roh directly influenced 4.3 victim's resilience.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impacted not only on the truth investigation of 4.3 but also the community awareness and social system. In conclusion, this research found that these changes influence an individual's resilience.

Discussion

The resilience of 4.3 victims progressed through the political and social atmosphere had been changed to democratic, which lead to changes in the community's awareness and system.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resilience needs democratic changes such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political camp. Secondly, the changes in the community's awareness were one of the critical factors to improve resilience. Therefore, sustainable civic education and its system are needed for changing civil society through the various association's solidarity. Thirdly, even though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served as a factor that influenced the 4.3 victim's resilience, the revision of 4.3 Special Law that includes the defeasance of the court-martial, compensation and reparation is needed. Finally, further discussion on the issue of 4.3 is essential to connect the heritage of historical lesson from 4.3 and the improvement of pea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civic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부록〉 구술 녹취록

1. 고한조(하효동), 고신하(서귀동)

1차 방문 : 2019. 10. 13.

- 인터뷰이 : 고한조, 고신하(고한조의 누나). 주로 고한조의 증언
- 인터뷰어 : 김종민, 한상희

■ 고한조 개인 정보

- * 생년 : 1943년생(4·3 당시 6세)
- * 4·3 당시 가족관계 : 아버지(고봉희), 어머니(현현아), 누나(고신하), 나(고한조)
- * 학력 : 보목초등학교 졸업

■ 고신하 개인 정보

- * 생년 : 1940년생(당시 9살)
- * 학력 : 무학

■ 부친 고봉희 수형인 명부 기록

성명	연령	본적지	항변	판정	판결	연도일자	복형장소
고봉희 高鳳禧	28	남군 남원면 한남리	무죄	유죄	무기	1949-07-01	마포

* 마을이 불타던 때에 누나와 함께 대밭에 숨어 피신

“음력 10월 7일(1948년 11월 7일) 의귀, 수망, 한남리 마을이 불에 탔다.

마을이 불탔던 시간은 오후로 기억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9살 누나와 6살 나만 집 울레에서 놓고 있었다. 당시 가을이어서 조 같은 곡식들을 멍석에 널어서 말리고 있었다.

한남리 동남쪽에서부터 초가집에 불을 붙이는 것을 봤다.

누나가 나를 급히 이끌고 대밭으로 숨으라고 해서 대밭에 숨었다. 당시엔 집집마다 뒤뜰에 대나무를 심었다. 우리 대숲에 숨어 토벌대가 집안을 수색하고 집에 불붙이는 것을 목격했다. 대나무가 타서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 토벌대가 돌아갈 때까지 그 열기를 참고 기다리느라 애를 먹었다. 해가 진 다음에 어머니가 와서 우리 남매를 이끌고 그날 밤부터 피난길에 올랐다.

마을이 불붙은 날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대밭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다. 어머니는 밖에서 피신했다가 밤에 온 것 같다.

그때 부친께서도 농사를 지었다. 한남리는 목장이 주이다. 마굿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 축사도 불탔다. 집이 불탄 후 지금껏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 남원리 외가에서 1년간 피난생활…놀 속에 숨어살아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야간 피난길로 어머니 친정집(남원면 남원리 상동)으로 피난 가서 숨어서 지냈다. 며칠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락이 닿았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남원 외가로 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세 식구가 처가에 이미 신세를 지고 있는데 아버지까지 가기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지 않으셨다고 한다. 남원리 상동에서 소개생활은 1년가량 머문 것 같다.

그런데 외가에서도 밖으로 나다니지는 못한 채 숨어지냈다. 당시엔 겨울철에 소나 말에게 먹일 풀(짚)을 미리 베어다 마당에 높게 늘어놓던 시절인데, 외삼촌이 어머니와 나와 누나가 들어갈 만큼 풀 묶음을 뽑아주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숨고, 외삼촌이 우리가 들어간 후 풀 묶음으로 입구를 막아 숨겨준 것이다. 소개생활을 할 적에는 늘 놀 속에 숨어서 어머니와 나, 누나가 함께 잠을 잤다.

외삼촌이 마을 서기를 해서 마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듯하다. 우리에게 항상 주의시키고 봐줬다. 그래도 불안할 때는 해안가 바위 틈에 숨어 여러 날을 지낸 적도 있다. 나중에 안정될 무렵엔 외삼촌이 남원리 연못가에 움막을 지어줘서 몇 개월 살기도 했다.

중산간마을에서 소개에서 온 사람들을 모아다 학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외가 덕에 목숨을 부지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외가 덕분에 살았다면서 나중에 살아서 은혜 갚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

* 마을 불탄 후 아버지를 본 적 없어…수형인명부 통해 마포형무소에 수감 알아

“아버지는 4형제 중 막내이다. 한남리 마을이 불탈 때, 말젓아버지(셋째 고봉림) 집만 불에 안 탔다. 말젓아버지가 불구여서 토벌대가 말젓아버지 집은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바로 위 형인 말젓아버지 집에서 사태를 지켜보겠다며 외가로 안 내려왔는데, 그 집에 머물고 피난생활을 하다가 연행된 것 같다. 그런데 아마도 그 집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을 거다. 결국 피신생활을 하다 잡힌 것 같다.

처가에 신세를 지더라도 우리와 같이 남원리로 피신을 했더라면 아버지가 살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수형인 명부가 발굴이 된 이후에 안 사실인데, 아버지는 그 이후 피난생활을 하다가 아마 49년 봄에 주정공장에 수감되어 2차 군법회의로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그저 농부였을 뿐인데 수형인명부에는 ‘무기징역’이라 쓰여 있었다.”

* 남원에서 1년 피난생활 후 보목리…다시 한남리로 이주

“남원리에서 살던 중 서귀포 보목리로 이주해 갔다. 보목리에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 2명(부부)

이 살고 있었는데, 남원에서 어렵게 사는 걸 알고는 어머니에게 ‘당신은 길쌈을 잘하니까 길쌈이라도 해서 살아보라 해서 그 집에 얹혀서 살게된 것이다. 어머니가 길쌈을 잘 하는 덕분에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었다. 길쌈 주문이 들어오는 날은 우리도 그 집에 따라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지냈다. 보목리에는 내가 7살에 가서 15살에 나온 것 같다. 8년 정도 보목리에 산 것이다.

학교는 보목초등학교 8회 졸업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으로 월반했다. 5년 만에 졸업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라고 하면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시간만 보내다 다시 들어갔다. 툇밥이나 전분 지꺼기도 먹으며 살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결식아동인 셈이다.

어머니는 길쌈을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 보목리에서는 어머니와 당시 8살인 내가 함께 살았고, 11살짜리 누나는 한남리 이모집에 맡겨졌다. 이처럼 나는 15살까지 보목리에서 살고 이후 말젖어머니가 ‘한남리 고향으로 와서 지내라’ 해서 거기서 1년을 살았다. 한남리에서는 1년 가장 살았는데, 삶이 너무 힘이 들고 새 삶을 개척하고자 17살 무렵에 한남리를 떠나 인연따라 서귀포 하효리로 왔다.”

* 17살에 가구공장 취업해 10년...그 후 73살까지 목수일 배워 건축업

“나는 한남리 가서 살아도 땅 한 평 없이 아무런 전망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기술을 배워야 산다’고 해서 어머니의 소개로 하효리에 있는 한 가구공장에 취업을 했다. 말이 취업이지 가구를 배울 때 3년 동안은 1원도 못 받는 무보수였다. 점심식사만 제공 받았다. 17살에 하효에 있는 가구사로 들어가서 기술 익히며 10년 종사한 후 27살 때 목수일을 배워가며 건설업을 시작했다. 가구를 배우는 10년간 고생을 많이 했다.

가구 만드는 것을 잘 익혔지만 가구를 잘 만든다고 해서 집 짓는 목수일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용을 잘 쌓은 덕분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외국에서 대형 선박을 수주한 것처럼 건설업을 시작하게 됐다. 정주영 회장은 아직 조선소 만들 부지를 정리하기도 전에 외국에 나가 선박 주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미심쩍어 하자 당시 주머니에 있던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보이며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이미 거북선을 만든 나라이다’라고 설득했다는 일화처럼.

아무튼 나는 그간의 신용을 바탕으로 27살 때 집 짓는 일을 처음 맡았다. 처음엔 집 짓는 일을 모르니까 전문 목수를 고용했는데, 난 옆에서 목수가 하는 일을 잘 보며 배웠다가 결국 나도 목수일을 하는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내가 집을 잘 지어주니까 그 후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들어와 결국엔 27살에 시작한 건설업을 몇 년 전인 73세까지 하게 되었다.”

* 교양을 위해 늘 주경야독

“성실하게 살다보니 특별히 ‘꼭도새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그리고 태어난 고향이 아닌 여러 동네를 살다보니 내 이력을 잘 알지 못해 그런 소리를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난 늘 주경야독을 했다. 한자공부도 수도 없이 했다. 영어와 한자를 터득했다. 밤에 독학했던 이유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였지, 진학을 해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다. 교양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주경야독을 했다.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좌제의 피해는 없었다. 원래 군대는 아버지 없는 외아들이어서 의가사 제대 대상인데 부친이 실종상태로 사망신고가 안 돼서 의가사 제대는 하지 못한 채 만기 복역했다.

부친 사망신고는 결혼 후 한참 후에 했다. 실종 신고하는 법원 광고도 나갔었다.”

* 가까운 친척 없는 외로움…4·3의 불행은 나의 운명

“근친이 없어서 늘 외로움을 느꼈다. 난 외아들이데다가 사촌형제도 없다. 왜냐면 큰아버지 아들은 마을이 불타기 전에 집 뒷담 위로 숨다가 총살당했고, 둘째인 셋아버지의 아들은 인천소년 형무소 수감됐는데 그 후 행불이다. 셋째인 말젓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다. 그러니 나는 사촌 없이 살았다.

남의 집 경조사에 가면 가족과 근친이 많아 북적이는데, 우리는 잔치하려고 해도 일가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꼈다.

학생 수가 몇 명 되지 않는 보목초등학교만 다녔으니 남들이 중·고교 동창회 간다고 하면 부럽다.

나에게 닥친 4·3의 불행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노동이 힘들 때면 나도 부친이 살아있었으면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26살에 결혼하면서 불우했던 삶 극복…7남매 모두 대학교육 시켜

“가구공장 다니던 마지막 해인 26살에 결혼을 했다. 당시 기술직을 알아주지 않았고, 내 처지가 땅 한 평 없는 완전 빈손인데다가 집도 없이 남의 집에서 살아서 배필 구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을 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니 그때부터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새 삶이 시작되었다.

내가 형제나 사촌도 없이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다. 7남매(1남 6녀)를 낳았다. 아내도 ‘당신은 근친이 없으니 자식을 많이 낳자’고 했다.

건설업으로 큰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7남매를 모두 4년제 대학 보냈다. 그 중 네 명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 한 번 안 시키고 대학을 보냈으니 그 정도면 만족한다.”

* 평생 죽을 고비 5번 넘겨, 4·3 영령 덕이라 생각

“회고해보니 죽을 고비도 많았다. 그때마다 가족, 이웃 등 누군가의 뜻하지 않은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4·3 영령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첫 고비는 7살 때 보목리로 이주해오자마자 동네 바다에서 놀다가 익사 직전에 놓였다. 그때

해산물을 캐고 가던 동네 누나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

두 번째 고비는 내가 경기도 맹호부대에 있을 때 월남전 파병을 위해 한 달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다. 월남 파병하면 돈을 많이 준다 해서 참전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파병을 얼마 앞두고 고향에서 매형이 여러 차례 전보가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니 월남 파병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즈음에 사격 연습을 하다가 실탄을 맞을 뻔 한 일도 있었다. 두 가지 계기로 월남 파병은 포기하였다.

세 번째 고비는 30대 후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해 준 덕분에 살 수 있었다.

네 번째 고비는 2010년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머리를 다치고 쓰러졌는데 역시 또 살아났다.

다섯 번째 고비는 작년 11월에 나무를 자르다가 전기톱날이 튕겨 발등에 떨어지면서 발과 다리가 크게 다친 적이 있다. 밤에 다행히 수술을 받아서 살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4·3 때 숨진 조상님들이 살려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4·3특별법 제정, 대통령의 사과에 큰 위로 받아

“4·3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한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오셔서 사과하는 걸 직접 봤다. 큰 위로가 되었다. 대통령이 사과하니 ‘우리 유족들도 이제 살 길이 트였구나’ 라는 희망이 보였다. 정신적으로 큰 희망이 되었다.”

그림 2. 고한조 씨의 대통령 표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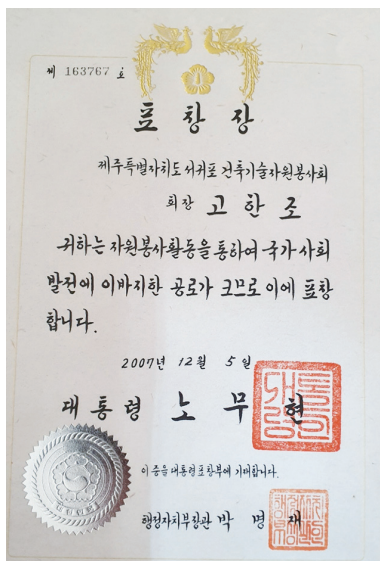


그림 3. 구술자 고한조 씨(오른쪽)와 고신하 씨



*** 다음 세대에 바란다...불우했던 어린시절 떠올리며 자원봉사(대통령 표창 수상)**

“저 개인사를 떠나서 4·3관련 단체에서 4·3의 세대전승 하는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제민일보처럼 언론 매체가 앞장서서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준 점에 늘 고맙게 여긴다. 제민일보가 4·3연재나 관련 기사를 잘 써주었기 때문에 난 사무실이든 농협이든 어딜 가든 신문철에 여러 신문이 꽂혀 있어도 늘 제민일보만 보았다.

어린 시절 가시밭길을 걸었으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많다. 건설업을 하다보니 안 가는 데가 없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았다. ‘고쳐주고 갑싸’ 라고 부탁이 들어오니까 1996년에 서귀포건축기술자원봉사회를 조직해 봉사활동하고 있다. 라이온스클럽에도 가입해 25년째 불우이웃돕기하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알고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봉사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 어머니 없이 11살부터 홀로 생활한 누나, 10대에 자취, 취업, 육지로 물질생활**

“보목리에 간 후 1년만에 누나는 11살 나이에 남원리 이모집에 맡겨졌다. 누나는 10대 초반부터 남원리 이모집에서 가사일 도우며 어린 나이부터 물질을 배웠다.

그러다 누나도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13살 나이에 남원리 이모집을 나와 혼자 자취하면서 전분공장(신호리)에 취업해 살다가 20살에 보목리로 시집을 갔는데, 8남매를 낳아 모두 잘 키웠다.

누나는 결혼 후에도 살림에 보태기 위해 보목리에서도 쪽 물질을 했고, 육지(경상북도 양남면)에까지 물질을 나갔다. 누나는 물질을 1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한 것으로 기억된다.”(대부분의 증언은 고한조가 했으나, 고한조의 누나 고신하는 이 부분에서 “난 물질을 아주 잘했다. 그 걸로 밭도 사고 8남매를 키웠다.”고 말함)

2. 김순녀(金順女, 조천 교래 출신, 구좌 평대 거주) 증언

1차 방문 : 1996년 11월 25일(대흘2리 상점, 모친 양복천이 주로 증언)

인터뷰어 : 김종민

2차 방문 : 2019년 8월 15일 김순녀 자택

인터뷰어 : 김종민, 한상희

■ 인적사항

- * 생년 : 1945년
- * 본적지(출생지) : 조천면 교래리
- * 학력 : 함덕초등학교 1학년 중퇴
- * 직업 : 제주도청 식당 근무(1982~1995)
- * 왼쪽 다리 무릎 위쪽에 총상을 입은 후유장애인

■ 가족 관계

“4·3 당시 우리 가족은 4명이었다. 아버지, 어머니(양복천), 나, 그리고 오빠(당시 9세, 김문용)가 있었다. 그런데 4·3 때 오빠가 숨지고, 어머니와 나는 총상을 입었다. 나중에 남동생(1953년생)이 태어났다. 남동생은 올해 4월에 병으로 사망했다. 현재 내게는 딸(1973년생)이 한 명 있다. 난 지금 재혼한 남편과 살고 있다.”

— * —

◆ 1차 방문시(1996. 11. 25) 구술자 김순녀의 모친인 양복천(梁福天)의 증언

- 1996년 11월 25일 방문 취재(대흘2리 소재 상점). 주로 양복천이 증언
- 1996년 당시 양복천의 나이는 79세

* 48.11.13 마을소각과 아들 김문용(金文龍, 9살) 희생 상황

“그날따라 뭔 일이 생기려 해서인지 세 살 난 딸이 특히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딸의 두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도 울어대서 젖을 먹여가며 겨우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요란한 총소리가 나자 마을의 젊은이들은 황급히 피신했습니다. 남편도 급히 대숲으로 숨었지요. 하지만 나는 어린 아들과 딸 때문에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설마 아녀자와 어린아 이까지 죽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짜고짜 집에 불을 붙이는 군인들 태도가 심상치 않자, 난 ‘살려줍서, 살려줍서’ 하며 빌었어요. 그 순간 총알이 내 옆구리를 뚫었습니다. 세 살 난 딸을 업은 채 옆으로 픽 쓰러지자 아홉 살 난 아들이 ‘어머니!’ 하고 외치며 내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아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이 새끼는 아직 안 죽었네!’하며 아들을 쏘던 군인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가에 쟁쟁합니다.

아들은 가슴에 총알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피신시킬 때 아들도 보내려했는데 죽을 팔자인지 웬일인지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가버리자 나는 우선 아들이 불에 탈까봐 마당으로 끌어낸 후 딸을 업었던 담요를 풀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울지 않았기 때문에 딸까지 총에 맞았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지요.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 보니 담요가 너덜너덜하고 딸의 왼쪽무릎 위가 뺨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딸의 왼쪽 다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두 번째 생일날 불구자가 된 딸이 이제 쉰 한 살입니다.

아무튼 군인들이 물러간 후에야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아들을 가매장하고 ‘뒷곳’이라는 곳자왈로 가서 숨었습니다. 남편은 부상당한 나를 업고, 딸은 조카가 구덕에 담아 이동했습니다. 곳에서 약 10일간 숨어있었는데 그곳에도 ‘병원장’이 있어서 아까징끼를 발라줬습니다. 딸은 부러진 다리뼈가 살을 찢러대니까 고통에 못 이겨 계속 울었습니다.

열흘 쯤 지난 후 어디선가 ‘조천으로 소개하라!’는 명령이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경에 조천으로 내려왔지요.”

[책임연구원 주: 1996년 김순녀는 어머니 양복천이 증언하는 동안 아무런 말도 않고 유심히 듣기만 했는데, 당시 제민일보 기자였던 책임연구원이 총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보여주었음]

* —————

◆ 2차 방문시(2019. 8. 15) 김순녀(양복천의 딸)의 증언

— 증언 채록시 남편이 옆에서 지켜봄

* 1948. 11. 13. 사건, 강렬한 기억…평생 어머니 원망

(아주 어렸을 때인데, 혹시 사건이 나던 날 상황을 기억하는가요?)

“어렸을 때긴 하지만, 태어나서 만 3살이고, 우리 나이로 4살입니다. 불타는 광경이 굉장히 강렬했고 내가 총상을 입은 날이어서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책임연구원 주: 사건이 발생한 때는 1948년 11월 13일(음력 10월 13일). 그런데 구술자 김순녀가 1945년 11월 13일생(음력 10월 13일)이므로 우리의 나이로는 4살이고, 만 나이로는 정확히 3살이 되는 날임]

“그날 어머니는 기저귀 누빈 것 같은 담요로 나를 업고 있었는데, 나를 바닥에 내려놓자 담요

여기저기가 잘라지고 하얀 담요에 피가 벌겍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평생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나무밭으로 숨어들 때 어머니는 ‘설마 여자와 애기들에게 무슨 짓을 하겠느냐?’고 생각해 숨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했는데, 왜 그날 우리를 데리고 함께 숨지 않았는지, 그때 숨었다면 내가 평생 이 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책임연구원 주: 이때부터 구슬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계속 눈물을 흘림]

(1996년부터 어머니(양복천)를 몇 차례 만났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2011년 3월 11일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가 덮치던 날이라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림 4. 김순녀 씨의 왼쪽 다리 종상



그림 5. 김순녀 씨의 종상 후유증



* 소개(疏開) 생활...병원 치료 못한 채 소독약만 발라

“우리는 조천으로 소개했다가 나중에 대흘1리 함바집에서 살았습니다. 쇠막(외양간)을 길게 지은 것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6살까지 살았지요. 조천 비석거리에 김탁림 씨가 있었는데 마을 의사쯤 되는 분 같습니다. 그 분이 소독약을 발라줬지요. 병원에는 전혀 가보지 못했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밀가루 수제비 뿐이었습니다. 하도 수제비만 먹은 탓에 어머니는 그 후 돌아가실 때까지 수제비를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 ‘병신’이라 놀림 받으며 생활…초등학교 1년 중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그만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내게 ‘병신’이라며 놀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특히 사춘기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 제주도청 구내식당 취업해 생계유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몸도 장애인이라 먹고 살 길이 없었지요. 그러던 중 남동생 친구가 도청 서무과에 있어서 그의 소개로 도청 식당에 다녔습니다. 38살이 되어서 겨우 생계비를 벌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월급이 7만원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1995년까지 도청 구내식당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며 일했습니다. 신발도 맞는 없었지요. [책임연구원 주: 구술자의 총상입은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비해 얇았고, 왼쪽 발은 오른쪽 발의 2/3수준으로 작았음]

그때 제주시에서 딸(1973년생)과 함께 방 한 칸 얻어 살고 있었지요. 연탄가스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놀러왔던 어머니도 연탄가스에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지요.”

* 재혼…1998년 여수에서 다리 수술

“전 남편과는 딸을 낳은 후 헤어졌습니다. 딸은 현재 47세인데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현 남편은 내가 도청 구내식당에 근무할 때인 48살에 만났습니다. 1996년에 김종민 기자(책임연구원)이 대흥2리 상점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는 현 남편을 만나던 시기였습니다.

아저씨(현 남편을 ‘아저씨’라고 호칭)는 나를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내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있던 나를 데리고 제주도에 있는 정형외과는 모두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수에 훌륭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1998년경 여수재활병원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이 정도 치료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 현 남편 만나 정신적·경제적 안정 찾아…나이 들수록 어머니 원망 커져

“현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불편한 몸으로 홀로 딸을 키우는 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도청 식당에서 일했지만 월급이 7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집세를 내고 먹을 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양복천)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현 남편을 만나 보살핌을 받으니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우선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왜 피신하지 않고 그러셨어요? 왜 나를 신발도 못 신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라고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도 총상을 입은 피해자이지만,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습니다.”

* 4·3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에 위로 받아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는데 마음 풀린 것은 언제였나요?)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한 것에 큰 위로를 받았습
니다.

4·3평화공원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오빠가 계시기 때문에 매년 추모제에 갑니다. 거기 가면
‘그래도 나라가 희생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 후유장애인 지원 너무 적어…특별법 개정돼 배상 받아야

(나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상처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치유가 될까요?)

“나는 텔레비전을 보아도 중앙방송은 안 보고 지방방송 7번만 봅니다. 4·3과 관련해 혹시 좋
은 소식이 있을까 해서요.” [책임연구원 주: KCTV를 지칭하는 듯]

“후유장애인 결정은 오래 전에 됐습니다. 장애등급 받으라고 해서 보건소에 가니까 3급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데 겨우 월 3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게 조금씩 올라 50만원이었다
가 지금은 70만원입니다.

4·3특별법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우리를
외면했는데, 이제 희망이 조금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어서 4·3특별법이 개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 75살인데, 동네에서 나보다 10살 위인 80대 할망들도 집에 앉아 노는 사람이 없습니
다. 모두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리가 불편해 일을 못하니 남편 보기가 너무나 미
안합니다. 남편 혼자 5,000평 당근 농사를 짓는데, 남들은 부인들이 나서서 같이 일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으니… 남편도 이제 늙어서 일꾼 빌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습니
다.

그래서 특별법이 개정돼 보상이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겐 아들과 손자도 많아 돈이 많
이 드는데, 내가 전혀 도울 수 없으니 너무 미안하지요.

남편은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고 절약하면서 혼자 농사를 짓는데도 일체 내게 불만을
말하지 않아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3. 김창주(金昌柱. 제주시 이호동 출생, 거주)

1차 방문 : 1999년 6월 8일

인터뷰어 : 김종민

2차 방문 : 2019년 7월 16일

인터뷰어 : 김종민, 백가윤

■ 인적사항

- * 생년 : 1937년생. (호적에는 1939년으로 기록)
- * 본적지(출생지) : 제주읍 이호2구(속칭 '오도룡')
- * 학력 : 외도국민학교, 제주중학교 졸업, 제주상업고등학교 야간 중퇴

■ 증언자 개인 정보

- * 4·3 당시 가족관계 : 8명(조부모, 부모, 증언자, 동생 3명). 이 중 4·3으로 인해 어머니와 증언자(1949년 당시 13살), 막내 여동생(당시 3살)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가족(조부모, 아버지, 동생 2명)은 사망. 증언자의 모친은 나중에 향년 62세로 작고.
- * 현재 가족관계 : 부인, 아들 3명, 손자 6명, 손녀 4명

————— * —————

◆ 1차 방문시 증언(1999. 6. 8.)

■ 증언자, 마을 희생자 자체조사

증언자는 지난 1992년부터 마을의 희생자조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제주시 이호2동 4·3희생자 실태기록」(1995.5)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출판한 것은 아니고 컴퓨터로 출력한 것을 제본한 상태이다.

[책임연구원 주: 그 책자에 의하면, 당시 이호2구 희생자는 273명(남자 185, 여자 88)으로 집계됐다. 당시 이호2구의 가구수는 222가구이며, 인구는 1,060명이다.]

(어떻게 마을 희생 상황을 정리했습니까?)

“동네 어른들의 증언을 들으며 하느라고 했지만, 노인들의 기억력 감퇴와 가족이 몰살한 집안의 어린애 등은 누락됐을 것입니다.”

■ 1948. 12. 07. 마을 방화 및 소개령(疏開令)

“내가 12살 때 일입니다. 이날 토벌대가 쓰러진 전봇대를 다시 세우라고 일을 시키니까 설마 죽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젊은이들은 다 도망치고 없으니 장년층만 갔지요. 젊은이들은 1948년 여름철부터는 동네에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밤에만 집에 왔다가 날이 밝기 전에 피신했으니까요. 또 그때까지는 그렇게 마구잡이 총살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벌대가 이웃마을인 해안리와 노형리에 불붙이고 소개령을 내려도 우리 마을은 그때까진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안리와 노형리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소개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전봇대를 세우러 갔던 장년층이 주로 희생됐습니다. 그날 또한 마을을 불질렀는데 우리 마을 가물개만 불질렀습니다.

이호2구는 전체를 통칭해 ‘오도롱’이라고 불리는데, 이를 다시 나누면, ①가물개(웃동네, 알동네, 섯동네, 호병발 등) ②일주도로변 서쪽에 갈wat ③일주도로변 동쪽 대동마을(큰가름)로 나뉩니다. 아무튼 일주도로변 마을인 갈wat과 대동마을을 제외하고 다 태운 것입니다. [책임연구원 주: ‘오도롱’이라 불리는 이호2구는 주로 일주도로보다 산쪽에 위치한 중산간마을이 대부분이고, 이호1구는 속칭 ‘백개’라 불리는 바닷가 마을이다]

집이 불에 타니까 우리가족은 모두 대동마을에 사시던 작은아버지 댁으로 소개했습니다.”

■ 소개민들 다시 산으로 피신

“우리가 이주한 대동마을 작은아버지 댁에는 우리가족 외에도 노형리에서 소개온 외조부(현명집·玄明集) 큰외숙(현창호·玄昌曉) 등 모두 20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살던 노형리 사람 몇 명이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린 “당신들이 피신하면 우리까지 피해본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 1949. 01. 11. 부친 김상익(金商翼, 33) 도두지서에서 희생 … 노형리 외조부도

“부친이 죽기 전에도 남편이나 아들이 산으로 도망쳤다 하여 ‘남편과 아들이 어디갔느냐’고 따지며 몇 명씩 계속 학살극이 있었지만, 그날엔 특히 집집마다 청·장년이 사라진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감시를 했지요.

그 결과, 우리와 같이 살던 노형리 사람이 피신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김상익·金商翼)와 외조부와 큰외숙이 도두지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닷새 정도 취조를 받다가 외조부와 큰외숙이 하루 먼저 총살되고 다음날 아버지가 총살당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도두리 속칭 ‘돛박곶흙’에서 시신을 찾았는데, 그곳은 매우 많이 희생된 곳으로 현재는 공항에 편입됐습니다.”

■ 1949. 01. 13. 임이발 학살극

“이날엔 우리가 소개해 살던 대동마을 사람들에게 이호국교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포함해

어린 애까지 모두 집합했지요. 그리고 눈감으라 한 후 누군가에게 지목당한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지만 청·장년이 사라진 집안은 도피자가족이라 하며 마구잡이로 죽이는 상황이라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직도 도두지서에 계시다고 우겼습니다. 일단 지서로 가면 죽는 거지만 아무튼 아직은 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거처가 확실한 것이니까요.

이날엔 ①도피자가족 ②산에 앞장서던 사람 ③감정에 의한 지목 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려 나갔습니다. 이날 토벌대는 불려나간 사람들을 속칭 ‘임이발’으로 끌고 가 죽였고, 또한 대동마를 마저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러니 이호2구 사람들이나 노형리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지요. 이호1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일제 때부터 농산물 구판장이던 이호1구의 한 창고에 수용됐습니다.”

■ 1949. 01. 13 밤. 무장대, 감금된 사람들 이끌고 입산

[책임연구원 주: 이무렵 무장대가 주민들이 감금된 곳을 습격해 주민들을 이끌고 산으로 오른 사례를 여러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무장대가 토벌대에게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벌인 일이지만, 산으로 오른 피난민들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등 결과적으로 더 큰 희생을 초래하기도 했음]

“임이발 사건이 나고 우리가 백개(바닷가 마을인 이호1구)의 한 창고에 수용된 바로 그날, 산 사람들이 내려와 총을 팡팡 쏘면서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잠자다 그 일을 당해 모두들 정신없이 나왔지요. 그러다보니 난 고무신도 못 신은 채 그 추운 길을 맨발로 갔습니다. 정신없이 흠어져 올랐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난 10살과 7살 동생을 이끌고, 어머니는 3살 난 아기를 업고 각각 올라 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엔 해안리 ‘오로콤밭’에서 있었는데 자꾸 쫓기다보니 ‘어승생’ 주변까지 올랐습니다. 우린 주로 어승생 서쪽에 있었습니다. ‘방아내는도’, ‘모살도’, ‘제비새통’, ‘사제비’ 위쪽, ‘서근주먹’(윗세오름 아래 나무가 있는 곳) 부근 등 한라산 기슭을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엔 ‘첻망오름’ 부근의 초기밭(표고버섯 재배장)에까지 피난 갔다가 왔습니다. 아래서 자꾸 정보가 올라옵니다. 오늘은 토벌 온다고. 거기서도 주로 같은 마을 사람끼리 살았습니다.

눈 위에 나뭇잎을 깔고,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을 피워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연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먹을 것은 몰래 마을로 갔다 온 사람들이 음식을 모아 와 배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활동할 나이의 사람이 있는 집은 그럭저럭 먹었으나 우린 활동할 사람이 없어서 딱 주는 것만 먹으니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와 같이 먹을 것을 가지러 마을로 내려가 타다 남은 곡식을 한 짐 짊어지고 올랐습니다. 거기서 고무신을 하나 구했지요. 처음에 오를 때 맨발이다가 이렇게 힘들게 고무신을 구했는데, 고무신은 발의 땀이 얼면서 뻣뻣해 지며 꺾어졌어요. 그래서 녹이다 태워버렸습니다.”

■ 1949. 03. 29(?) 동생 김창석(金昌石, 10) 김춘재(金春子, 여, 7) 실족사

[책임연구원 주: 동생들을 잃은 때가 음력 2월 그믐이라고 했다. 그러면 양력으로는 1949년 3월 29일이다. 이때까지 증언자는 차분히 증언했으나 동생들 이야기를 할 때는 자꾸만 눈물을 흘려냈다.]

“새해가 되니 난 13살, 그리고 동생들은 10살, 7살, 3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근주먹’ 부근에 있을 때 토벌 온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쳇망오름으로 피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연로해 운신이 어려운 조부모님 때문에 그냥 남았고,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이 3살짜리는 업고, 나머지 두 동생을 재촉하면서 쳇망오름 부근까지 피신해 가서 거기에서 며칠 살았습니다.

그러다 ‘토벌대가 지나갔다’는 소문에 다시 서근주먹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나는 3살 난 아기를 업은 채 두 동생을 앞세워 재촉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참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동생은 힘이 들어 막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아기를 업고 있는 처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달래기도 하고 발로 때리기도 하면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주먹만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우린 일행에서 자꾸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 거의 다 돌아왔을 무렵에 내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서근주먹에 도착해 보니 동생들이 없는 겁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바로 이 근처까지 오는 걸 보았는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동생들을 부르며 주변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해동기라 위에 눈이 녹지 않아도 아래로는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곳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난 동생들 제사를 지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45세 되던 해 남의 싸움을 말리다 그들 중 한명의 주먹에 맞아 기절했습니다. 2~3일 후 의식이 회복됐는데 그때 동생들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후부터는 부모님 제사 때 동생들 밥도 함께 올립니다.”

■ 1949.04.23 할아버지 김이휴(金利休, 67) 병사…1949.04.27 할머니(71) 병사

“몇 개월 피신생활을 하다 보니 조부모는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운신도 어려웠지요. 조부모는 ‘죽어도 고향으로 가서 죽겠다’며 집터로 내려와 감자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5촌 삼촌이 조부모를 발견, 집으로 모셔왔으나 나흘 사이로 나란히 돌아가셨습니다.”

■ 1949년 4월 말경 ‘귀순’

“우리도 결국 귀순했는데, 귀순할 때는 아마도 조부모가 돌아가실 무렵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귀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라리로 귀순했지요. 그런데 군부대로 넘겨지기 전, 함께 내려온 젊은 남자들은 우익청년단에게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쇠소리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우린 주정공장으로 보내져 심사를 받았는데, 청년들이나 매에 못 이겨 실토한 사람들은 풀려나지 못한 채 육지형무소로 보내졌다가 6·25전쟁 직후 학살됐습니다.

부녀자들에게도 ‘실토하면 살려주고, 거짓말하면 죽인다’면서 마구 때렸습니다. ‘너 습격에 가

담했지?, 불 지르는데 가담했지?’ 하며 다그칠 때 매에 못 이겨 ‘예!’ 하고 대답하면 형무소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김아무개 의 모친은 2살 난 어린애기를 품고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둘 다 죽었습니다.”

■ “붉은 콩에도 새싹난다”

“4·3 이후 아버지나 젊은 형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힘으로 밭농사 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에 장정이 있고, 밭갈쇠(쟁기를 끌며 밭을 갈 수 있는 힘세고 길들여진 소) 한 마리 있으면 다른 집 밭을 갈아 주며 번 돈으로 한해에 밭 하나씩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낸 것을 보면 붉은 콩에도 새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증언자의 트라우마

“난 지금도 붉은 벽돌만 봐도 마을이 불에 탈 때 돌이 시뻘겋게 됐던 당시가 떠올라서 가급적 피해갑니다.”

[책임연구원 주: 구술자는 담담히 증언하다가도 다시 동생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만 눈물을 흘려냈다.]

————— * —————

◆ 2차 방문시 증언(2019. 7. 16.)

■ 동생 김창석(金昌石, 10) 김춘자(金春子, 여, 7) 실족사에 대해

“토벌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근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대정면에 있는 첩망오름으로 피신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치매 증세가 있어 어머니는 함께 피신하지 못했고, 당시 13살이었던 내가 동생 3명만 데리고 피신했습니다. 며칠간 그곳에 있다가 토벌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어머니가 계신 서근주막으로 돌아왔는데, 3살짜리 동생들은 내가 업고 다른 동생 둘은 이불을 짊어지고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10살, 7살 나이에 이불을 짊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라산 쪽인 서근주막 동쪽은 물이 내리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동생 둘을 앞세워서 걸었는데 길이 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근주막에 거의 도착할 때쯤 힘들어서 잘 걷지 못하는 동생 둘이 잘 걷지 못하자 혼내면서 ‘이제부터 내가 앞에 설 테니 따라오라’고 말하며 내가 앞으로 가서 걸었습니다. 서근주막에 도착해 뒤를 돌아보니 동생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살얼음이 얼어있

던 곳에 빠진 것 같은데 어른이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지만, 이불을 짊어지고 있던 어린 동생들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 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걸으려는 눈이 쌓여 있어도 그 아래 물이 흐르는 곳에 빠져 이불이 물에 젖어 무거워지자 그만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았겠지만 이야기하면 앞서가던 내가 충격 받을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책임연구원 주: 1999년 1차 증언 때에는 실족사한 동생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계속 흘렸는데, 20년이 지난 2019년 2차 증언 때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말함]

■ 할아버지 김이휴(金利休, 67), 할머니(71)의 병사 (1949년 4월 23일, 1949년 4월 27일)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어도 고향 가서 죽겠다’며 산에서 내려가 집터에 있던 ‘감저(고구마)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고구마를 캐서 저장해 놓는 곳이 ‘감저 구덩이’인데, 감저 구덩이는 1m가량 땅을 파고 조 짚으로 옆을 에워싸고 그 안에 고구마를 담은 후 위쪽에 다시 짚과 흙을 덮는 형태로 만듭니다. 불 타버린 집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감저 구덩이만 있으니, 거기가 그나마 좀 따뜻한 곳이니깐 그곳에 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숨어 계신 것을 5촌 삼촌이 발견해 도두리로 모셔갔는데 두 분이 나흘 사이로 돌아가셨습니다.”

■ 학력

“오도롱은 워낙 향학열이 높은 곳입니다. 옛날부터 양반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일제 때도 글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야학도 활발하게 운영되었지요. 오도롱은 이웃마을 노형리와 더불어 원체 향학열이 높은 곳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일단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컸던 마을이지요. 나는 4·3 당시 외도국민학교를 다녔고(4학년 8반), 6·25전쟁 때에는 제주중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후 제주상업고등학교 야간반도 들어갔지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중퇴했습니다. 이후 딱히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조농사와 보리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 4·3 이후의 경제생활

“어머니께서는 어린 자식 둘(구술자와 여동생)을 데리고 조, 보리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생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가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밭을 모두 팔게 되었지요. 아버지가 있는 집안은 밭갈쇠 한 마리 있으면 한 해에 밭 하나씩 살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은 밭을 팔아가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23살에 군대에 갔는데 독자라는 이유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 일본으로 밀항해 번 돈으로 재산 일궈

“30대 초반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습니다. 결혼 후 아들 둘도 있는 상태인데 혼자 일본으로 가서 공장에서도 일하고 이것저것 막일들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25년간 살다가 55세가 되는

1992년에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55세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다짐했었지요. 이후 밀항으로 일본에 간 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번 돈을 제주로 보내면 부인이 알뜰하게 이를 모았기 때문에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지요. 돈은 내가 벌었지만 부인이 모든 굶은일을 다 도맡아 하며 오늘날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제주시 이호2동 4·3 희생자 실태기록 보고서 발표 계기 (1999년 5월)

“일본에서 돌아온 1992년 말쯤에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큰 희생을 당했는데 이를 기록이라도 남겨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말이 어른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각 지역의 책임자들을 다 정해서 역할을 분담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내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집마다 다니면서 증언을 듣고 1995년에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1995년은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는 군사정권이 좀 마무리된 때라서 4·3에 대한 이야기를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 “지금도 4·3의 아픈 상처 회복하지 못해”

“4·3에 대한 멍에를 떨쳐냈거나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느낄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음 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만 자주 생각이 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보면 여기에선 이런 저런 사람이 죽었는데, 저기는 어떤 밭이었는데, 저기에서는 누가 총으로 맞아 죽었는데 하는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4·3 때 불탄 것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 “유족회 활동이나 4·3문제에 관심 없다”

“4·3유족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 직선제(1987년 6월 항쟁 후) 등은 모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 가기 전에는 4·3 이야기를 아예 할 수 없었고 할 이야기도 없었지요. 당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4·3 이야기만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렸으니까요.

이제는 4·3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4·3에 대해, 그리고 정치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이로 인해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 듯합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 알가알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김춘보(金春寶. 남원 의귀 출신. 표선 세화 거주)

— 2019년 8월 18일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에서 구술 채록

인터뷰어 : 김종민

■ 인적사항

- * 생년월 : 1947. 12.
- * 본적지(출생지) : 남원면 의귀리
- * 학력 : 화산초등학교 졸업
- * 직업 : 초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
-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 제주4·3(1948년) 당시 가족 관계

“할아버지(김영오), 할머니, 아버지(김병윤), 어머니(김을생), 아버지의 동생들(남동생 2명, 여동생 3명)이 있었고, 나는 당시 두 살이었다. 모두 남원면 의귀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친할머니는 아버지를 낳으신 후 아버지에게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채 병으로 돌아가셨다. 즉 아버지는 친할머니가 낳은 유일한 자식이다. 그 후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내게 중부와 계부 등 아버지의 동생들이 태어난 것이다.”

■ 1948. 11. 군·경 토벌대, 마을에 불 지르며 학살극…피신생활

“나는 1947년생이므로 당시 두 살이었는데, 12월생이니까 만으로는 한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니까 그 때 상황은 나중에 내가 큰 후에 어머니와 중부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1948년 11월경 토벌대가 들이닥쳐 마을에 불을 지르며 사람들을 죽였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던 작은할아버지가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으니 어서 피하자’라고 해서 온가족이 급히 피신해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궤(작은 용암동굴)를 찾아 그 속에서 눈과 비를 피하며 살았다. 밤에는 집터로 가서 식량을 구해왔다. 그해 겨울을 그렇게 보냈다.”

※ 책임연구원 보충설명: 중산간마을 초토화작전 때 의귀리에 관한 내용은 『4·3은 말한다』 제4권과 제5권에 서술돼 있는데, 제5권에 실린 내용 중 앞부분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960년 4·19혁명으로 새 정권이 들어선 후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규명’ 조사 작업을 벌이자 남원면 의귀리 주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고했다.

‘가옥 및 재산 전부를 군(軍)에 의하여 소각 당하고 노상(路上)에 방황하던 중 군에 수감되어 무조건 살해당하였음. 학살책임자는 2연대 1대대 2중대 중위 설재련(薛在連)’

짙막한 이 글 속에는 ‘초토화작전’의 성격과 그에 따른 의귀리 주민들의 수난사가 함축돼 있다. 의귀리에 대한 초토화작전은 다른 지역보다 약 열흘 가량 앞선 1948년 11월 7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새벽 토벌대는 남원면의 대표적 중산간마을인 의귀리와 이웃한 수망리, 한남리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들이닥쳐 불을 지르고 살해했다.

이날 주민들은 재빨리 도망쳐 인명피해는 적었다. 그러나 저녁무렵 하나 둘씩 마을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선택할 길은 많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난리’를 피해 은밀히 해변마을로 내려갔지만 이들은 가족 중에 젊은이가 없는, 그래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자신하는 소수의 사람들뿐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갈 곳 모른 채 방황하다 황량한 겨울 들녘으로 피신 생활에 들어갔다. 젊은이들 중에는 입산하는 사람도 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듬해 봄까지 ‘토벌 대상’이 됐다. 이처럼 중산간마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주민을 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초토화작전이었다.”

이처럼 의귀리에 대한 초토화작전, 즉 마을 방화와 무차별 학살은 이웃한 수망리, 한남리와 함께 1948년 11월 7일 시작되었다.]]

그림 6. 증언하고 있는 김춘보 씨



그림 7. 2019. 9. 12.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4·3피해를 증언하고 있는 김춘보 씨



■ 1949년 봄 주정공장에 수감…할아버지, 아버지 형무소 간 후 행방불명

“온가족이 1948년 가을부터 산에서 숨어 지내던 중 이듬해인 1949년 봄에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빠리를 보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곧 제주항 부근 주정공장 창고에 수감됐다. 그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만 남고 나머지 가족들은 풀려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우리도 곧 석방될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됐다.

이웃마을 한남리 출신의 한 사람은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석방됐는데, 그는 할머니를 찾아와 ‘형님(할아버지)과 같이 수감돼 있었고, 형님도 20일쯤 후면 석방될 겁니다.’라고 전해준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후 전혀 연락도 없이 소식이 끊겨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수형인명부」가 발굴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군사재판을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임연구원 보충설명: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는 1999년 9월 국회 추미애 의원에 의해 국가기록원에 서 발굴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제주도 주둔군 제9연대의 철수 직전인 1948년 12월(1차 군법회의)과 제9연대와 교체해 제주에 들어온 제2연대도 철수 직전인 1949년 6~7월(2차 군법회의) 등 두 차례 군법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제주도민 2,530명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 그러나 이 군법회의는 실제 재판다운 재판도 없이 민간인을 형무소로 보내기 위한 불법적인 것으로서 2003년 10월 15일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확정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사건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학살했다.

이처럼 군법회의 자체가 불법이고, 설령 합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형량이 정해져 있는 수형인들을 학살한 것은 불법이다. 「수형인명부」는 형무소에 보내진 제주도민의 인적사항이 한 명당 한 줄씩 간단하게 적혀 있는 흔적일 뿐이다. 판결문 등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런데 1999년 「수형인명부」가 발굴되자 유족들은 그동안 어디론가 끌려간 후 생사조차 알 수 없이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학살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법성 때문에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전쟁 때의 학살극을 구사일생 피해 살아 돌아온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이 재심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수형인명부」에는 구술자의 할아버지인 김영오(金永五, 51세)와 아버지 김병윤(金柄允, 26세)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 1949년 주정공장에서 풀려난 후 어머니와 둘이서 표선면 세화리에 정착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주정공장에서 풀려났는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결국 어머니와 나만 남게 되었다. 어머니는 1925년생이므로 당시 24살이고, 내가 2살 때이다.

갈 곳 없게 된 어머니는 어린 나를 데리고 표선면 세화리로 가셨다. 세화리는 그 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인데, 어머니가 세화리로 가신 까닭은 친정마을이기 때문이다. 외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시 친정아버지(내겐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계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마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 어머니와 둘이서 생존 위해 몸부림...7살 때부터 발일

“어머니는 아직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나를 데리고 정말로 힘겹게 사셨다. 남의 집 밖거리를 빌어 살았는데, 사실 밖거리라기보다는 외양간 같은 곳이었다. 문도 없어 가마니로 문을 대신

했고, 흙바닥 위에 짚을 깔아 그 위에서 잠을 잤다. 벽 돌담도 촘촘하지 않아서 비가 들이치면 벽과 바닥이 빗물로 흠뻑 젖었다.

땅이 한 평도 없어 남의 밭을 빌어 농사를 지었다. 어머니는 어린 나를 혼자 둘 수 없으니 나를 애기구덕에 담아 밭으로 가서 재워놓은 후 일을 하셨다. 여성이 혼자서 어린 자식을 키우며 남의 밭 빌어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는가.

나도 6~7세 무렵부터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김매기를 했다. 주로 조를 재배했는데 조 농사는 김매기가 가장 큰 일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남의 밭 김매기’도 했다. 남의 밭을 빌어 농사를 짓는 것은 일종의 소작농이고, ‘남의 밭 김매기’는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무료로 김매기를 하는 것이다. 파종 전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쟁기를 끌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여자의 힘으로는 소를 몰아가며 밭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밭갈이를 소유한 청·장년 남자에게 밭갈이를 부탁하려면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사나흘 이상 김을 매줘야 한다. 이렇게 여러 날 김매기를 해야 밭갈이를 하루 빌 수가 있는 것이다.

굶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보니 초등학교(화산초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내 또래 아이들을 보면 눈물을 보이셨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 보내달라’고 떼쓰거나 조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떼를 쓸 수가 있겠나.”

■보리밥 먹는 건 비교적 잘 사는 집...“감자가 가장 맛있었다”

“농사는 주로 조, 고구마, 보리를 재배했다. 고구마가 주식이나 다름없었고, 곡식은 조밥을 먹었다. 보리는 음력 10~11월경 파종해 이듬해 음력 5월경 수확한다. 유채와 보리는 파종과 수확 시기가 비슷하다. 보리를 수확한 후 같은 밭에 조를 파종한다.

그런데 조와 유채는 발주인과 우리가 나누어 갖지만, 보리는 발주인에게 안 주고 우리가 모두 가질 수도 있다. 왜냐면 보리농사가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조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김매기만 해주면 잘 자란다. 그러나 보리밭에는 반드시 퇴비를 만들어 거름으로 줘야만 보리가 자란다.

그래서 보리가 더 귀한 것이다. 흔히 ‘보리에 조를 섞은 밥’을 먹으며 어렵게 살았다고들 말하는데, 그건 비교적 잘 사는 집 이야기이다. 우리는 조밥을 겨우 먹으며 살았다. 조밥만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음력 3~4월이 되면 즉 보리 수확 직전에는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엔 바다에 나가 톳을 뜯어와 삶아먹거나, 음력 3월경 쑥이 나오기 시작하면 쑥을 캐어 밀가루를 조금 섞어 찌서 먹었다. 또는 얇게 썰어놓은 ‘절간고구마’를 먹었다. 즉 고구마를 생채로 그냥 두면 썩으니까 미리 얇게 썰어 말려서 저장했다가 삶아 먹는 것이다. 또는 밀이나 보리를 첫 도정할 때 깎여 나오는 가루를 구입해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거친 음식을 먹다보니 지슬(감자)이 가장 맛있었다.

우리는 설이나 추석 명절을 독자적으로 치르지 못했다. 명절엔 외갓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땐 모두 어려울 때라서 외갓집에서도 차례상에 100% 곤밥(쌀밥)을 올리지 못했다. 보리와 조를 섞은 밥을 담으면서 밥그릇 맨 위에 곤밥 몇 숟갈 얹어놓는 식이다.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와 4·3을 겪었고, 나도 4·3으로 인해 큰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이 좋은 세상인지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와 나는 절약하며 살았다. 살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계에 보태기 위해 봄에 고사리나 평마농(달래), 또는 약초를 캐서 팔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번도 10만원이 넘는 구두를 사본 적이 없다. 양복도 한번 사면 몇 십 년을 입었다. 2000년대 초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결혼식에 입을 제대로 된 옷이 있어야 하니까 30만원 주고 양복을 맞춰 입은 게 가장 비싼 옷이다.

그렇게 절약을 해서 1969년 즉 내가 22살 때 밭을 1,040평을 샀다. 처음으로 내 명의의 밭이 생긴 것이다. 그 밭에서 수확한 것을 모으고 절약한 돈으로 밭을 늘려갔다. 그 결과 지금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

■ ‘애비 없는 놈’ 소리 듣지 않으려 노력…별초 때의 슬픔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연좌제’를 직접 느끼진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좌제의 피해도 있는 모양이다.

‘폭도 자식’이라는 말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 왜냐면 군·경 토벌대에게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직접 ‘폭도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어머니의 친정 마을 세화리에서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형무소로 끌려간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 친정 집안에 군·경 토벌대에게 희생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폭도 자식’이란 소리를 직접 듣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기 눈에 거슬리면 ‘애비 없는 놈’, ‘홀머멍 자식’이라고 욕을 했다. 성인이 됐을 때라면 항의라도 했을 텐데, 사춘기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농사를 지으며 10대 후반부터 ‘4H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을 단위의 4H 활동은 허용해도 표선면 단위의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불안해 하셨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야 면 단위 활동을 했다.

사는 게 힘들어 평소엔 4·3으로 인한 가족 희생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다가도, 별초 때가 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없이 밀려왔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위를 모시니까 괜찮은데 별초 때는 달랐다. 우리 집안에서는 지금도 8촌까지 모여 함께 별초를 한다. 그런데 친척들의 별초를 하면서도 정작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행방불명 되는 바람에 무덤이 없어 별초를 못하게 되니 그때 가장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 4·3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 위로 받아

(4·3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가? 회복되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기인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돼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2008년 4·3평화공원에 ‘행방불명인 표석’이 설치된 것에 위안을 받고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이 없어 벌초 때마다 크게 섭섭했는데, 비록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의 형태이지만 행방불명인 표석이 만들어지니까 ‘이곳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설과 추석 명절을 지낸 후 명절 음식을 갖고 온가족이 행방불명인 표석에 찾아와 참배한다. 또한 4월 3일 ‘4·3추모제’와 ‘행방불명인 진혼제’ 때에도 찾아간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 4번은 찾는 것이다.”

■ 4·3특별법 개정돼 ‘전과자 낙인’ 지워야

(아직도 4·3으로 인한 한이 남아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한을 풀 수 있을까?)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완전한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 ‘4·3군법회의의 무효화’ 조항이 있는데, 어서 특별법이 개정돼 전과자라는 억울한 누명이 깨끗이 벗겨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 같다.

4·3희생자유족회 활동은 2006년경부터 시작했다. 그전엔 중부님이 유족회 행사에 다녔는데 내게도 참여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유족회 활동을 했다. 전국의 형무소 터를 매년 순례하면서 점점 더 활동적이 되었다. 진실 밝히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유족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 ‘트라우마’ 극복 위해 어려운 사람 지원…인권 존중받는 세상 돼야

(4·3으로 인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정신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과거에는 4·3에 대해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할 뿐이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은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상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4·3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정작 4·3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오히려 괴로움이 커지기도 했다. 위령제에 참석하거나 뉴스에서 4·3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미어졌다.

1993년부터 2년간 ‘바르게살기위원회’ 표선면 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때 살펴보니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4·3 피해에 대해 우울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남을 돕는데 신경을 써야 4·3으로 인한 내 마음의 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위원장 시절부터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반찬값이나 학용품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원하기 시작했다. 직접 찾아가 돈을 주면 생색내는 것처럼 비칠질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계좌이체를 했다.

그 후 어떻게 하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5억원을 모으기로 했다. 2남 2녀 자식들도 내 뜻을 잘 이해해 함께 돈을 모았다. 우선 2억원을 모아 제주

4·3평화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법을 때문에 재단에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2014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어떤 것으로도 4·3의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다. 4·3이라는 아픈 과거를 덮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무자비한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후세대에게 4·3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평화롭고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게 행복한 사회라고 본다.”

5. 김필문(金弼文, 제주 영평)

— 1차 방문 : 2019. 8. 16. 김필문 자택에서 구술 채록

인터뷰어 : 김종민, 한상희

■ 인적사항

- * 생년월 : 1947. 6.
- * 본적지(출생지) : 제주읍 영평리
- * 현주소 : 제주시 영평동
- * 학력 : 광양초등학교, 제주일중, 제주농고 졸업
- * 사회 활동 경력 : 영평동 4H 회장, 영평동 청년회장, 영평동 새마을지도자, 제주시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제주도 농촌지도자부회장, 영평동 마을회장, 제주시 4H 후원회 청소년 사무국장,
- * 현재 : 제주4·3행불인유족회장, 4·3평화합창단장, 4·3 명예교사

■ 증언자 부친 김경행에 대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내용

김경행 (金景行)	35	농업	북군 제주읍 영평리	유죄	유죄	징역 15년	1948. 12. 8
--------------	----	----	------------	----	----	-----------	-------------

■ 증언자의 누나(김을생), 최근 4·3군법회의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서 내용)

“재심청구인 김을생은 피고인 김경행의 딸입니다.

김경행 피고인은 제주4·3사건 당시 고향인 제주시 영평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군경에 의해 집이 불타는 바람에 제주시에 있는 오현단(제주시 이도이동) 옆의 주택을 빌려 잠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날 무렵 경찰 3명이 집에 들이닥쳐 피고인 부부와 피고인 모친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여 갔고, 피고인의 모친은 이틀 만에 집에 돌아오고 피고인의 처는 5일 정도 있다 집에 돌아왔는데 김경행 피고인만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말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잡혀 갔던 피고인의 처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의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특히 전기취조(전기고문)를 받을 때에는 너무 괴로워 바닥에서 계속 뒹구는 바람에 몸이 성한 데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체포된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 코에 물을 붓기도 하는 등 취조가 너무나 독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처는 전기고문의 후유증으로 젖이 나오지 않아 어린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못해 아이를 키우면서도 갖은 고생을 다해야 했습니다.

김경행 피고인은 1948. 12. 8.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로 가 수형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두 번 보내오기도 하였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 아버지 김경행(金景行, 1948년 당시 38세), 농업학교에 1차 감금

“내가 2살 때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누나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끌려가던 상황을 들었다.

우리 가족은 영평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토벌대가 마을을 불태우니까 오현단 부근에 있는 먼 친척 집으로 소개했다. 아버지는 소개해 살던 집에서 1948년 9연대 주둔지인 농업학교로 끌려갔다가 육지 형무소로 보내진 후 행방불명됐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전에 먼저 한차례 농업학교 천막수용소에 감금됐다가 풀려난 적이 있다. 아버지가 농업학교로 끌려가 있을 때에 군인들이 우리 마을을 불태우는 초토화작전이 벌어졌다. 그러자 우리 가족은 대나무밭으로 급히 숨었다. 그때 나는 할머니 품에 안겨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군인들이 집과 함께 마당에 쌓아놓은 곡식들을 불태우니까 숨어있던 대나무숲에서 홀로 뛰어나와 ‘식량만은 태우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한 군인이 총 개머리판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쳤다. 어머니는 머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부상을 당해 피를 많이 흘렸다. 그 군인은 ‘이년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다른 군인이 ‘피가 나니 더럽지 않느냐’고 말려서 그냥 가버렸다. 군인들이 가버리자 걸레 같은 천으로 급히 어머니 머리를 싸매어 피를 멈추게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농업학교에 감금돼 있던 아버지에게 전해졌다. 아버지는 고향마을이 불에 타고 아내가 큰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식사도 안하고 단식투쟁을 했다. 자살 기도를 한 것이다. 그러자 간수 역할을 하는 한 군인이 상관에게 ‘어떤 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관이 아버지를 데려오게 한 후 밥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으니까 아버지는 ‘노부모가 살아계시고 어린 자식들도 있는데, 마누라가 죽게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살아남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상관은 ‘가족들을 잘 보살피라’며 아버지를 풀어주었다. 아버지는 마침 좋은 군인을 만난 덕분에 풀려난 것이다.”

■ 아버지, 소개지에서 끌려가 농업학교에 2차 감금…어머니도 고문받아

“아버지가 풀려난 때는 우리가 소개지(남문로 오현단 부근)에서 살 때이다. 비록 영평리 고향집이 불에 타고 어머니가 큰 부상을 당했지만 아버지가 돌아와서 다행이었다.

그런데 한 달 후쯤 경찰이 소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잡아들였다. 아버지는 위험을 직감해 숨어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숨어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먹을 것을 배급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라고 속였다. 할머니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 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은신처에서 잡혀 경찰서로 끌려갔다.

어머니도 함께 끌려가 전기고문을 받았다. 그래서 손톱 색깔이 변했고 앞서 머리 부상을 당한 데다가 다시 전기고문까지 받으니 젖이 나오지 않아 내게 젖을 먹이지 못했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너 폭도지? 산에 붙었지?’라고 다그치며 모진 고문을 했다고 한다.”

■ 아버지,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 행방불명

“어머니는 풀려나왔지만 아버지는 형무소로 갔다. 아버지는 형무소에서 엽서를 2~3번 보냈다. 아버지는 무학(無學)이어서 남의 손을 빌어 엽서를 썼다. 그런데 그 후 소식이 끊겼다. 대구형무소에서 싹 죽어버린 것이다. 이번에 군법회의 재심신청을 한 큰누나가 당시 15살이어서 이 모든 내용을 내게 말해주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40대 때 과부가 되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누나 셋(당시 15살, 11살, 8살), 그리고 2살인 나를 건사해야 하는 역할을 했다. 누나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 어머니는 78세 때 돌아가셨다.”

그림 8. 김필문 씨의 각종 표창장



그림 9. 증언하고 있는 김필문 씨



■아라동에서 10년간 소개 생활…소개지와 고향마을 오가며 농사

“아버지가 끌려간 후 우리 가족은 아라동(‘간드락’ 마을)에 마련된 함바집에 살았다. 박성내 근처라서 큰 비가 와 내가 터지면 집으로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릇으로 물을 퍼내며 살았다.

집안 한가운데에 기다란 삼나무를 눕혀 놓았는데, 그걸 경계로 한쪽엔 솔을 걸어 부엌으로 삼고, 다른 한쪽은 방이 되는 셈이다. 그 삼나무는 가족 모두의 베개이기도 하다. 땅 바닥에 짚을 깔아 눕고 삼나무를 베개로 삼아 잤다. 누더기 걸쳐서 잤다. 함바집 둘레로 성담을 쌓았고 밤마다 보초를 서면서 수상한 물체가 들어오는 걸 감시했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아 경찰지서에 밥을 해갔다. 당번할 때 쌀 구해 밥하고 고등어 굽고 감자로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들나물을 캐다 먹으며 굶주림을 견뎠다.

한창 커야할 시기에 점심을 못 먹었다. 회충이 많았는지 트림하면 고약한 냄새가 났다. 옷 입은 모양도 각설이가 따로 없었다. 신발부터 옷 입은 모양새까지 성내 아이들과 우리는 한 눈에 구분이 되었다.

그리고 아라동 함바집과 고향 마을인 영평동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즉 호각 소리가 나면 영평동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호각 불면 아라동 함바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간드락마을 함바집에 살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고향인 영평동으로 돌아왔다. 2살 때 떠났다가 12살에 돌아왔으니 10년 만에 고향 마을로 복귀한 것이다.”

※ 책임연구원 주: 여기서 말하는 ‘함바집’이란 토벌대에 의해 마을 전체가 불에 타버리는 바람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거주시키는 일종의 ‘수용소’인 셈이다. 맨땅에 돌로 대충 벽을 쌓고 나뭇가지를 돌 벽 위에 걸친 후 그 위에 짚을 덮어 지붕을 만들었다. 토벌대는 이런 함바집들을 여러 개 만들게 한 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침입하는 무장대를 막기 위해 주변 전체를 빙둘러가며 높은 돌담을 쌓게 했고 수용자들에게 매일 보초를 서게 했다.

또한 당시 경찰은 수용자들에게 마치 금고형을 받아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 식량만 제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4·3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이라 수용자들이 마음대로 고향마을로 가서 농사를 짓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경찰은 매일 아침 호각을 불어 수용자들을 집합시킨 주민들을 고향 마을로 인솔해 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어두워질 무렵이 되면 다시 호각을 불어 집합시킨 후 수용소로 돌아오는 일을 마을 복귀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반복했다.

■아버지 없이 농사짓기 어려워…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밭갈이

“아버지가 2대 독자라 가까운 친척도 없고 나는 너무 어렸으니 집안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다. 누나들이 있었지만 큰누나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고, 둘째누나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집을 갔다. 막내누나는 그 무렵 인천에 있는 방직회사에 일하러 갔다.

그러니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방학 때는 매일 밭에 가서 김을 댔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밭을 갈았다. 하지만 밭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밭갈쇠’가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생소’는 제멋대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밭을 갈기 어렵다.

집안에 아버지와 장성한 형이 있는 경우엔 농사짓는 게 쉬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어린 나만 있는 우리는 참으로 힘이 들었다. 결국 ‘밭갈쇠’가 있는 남의 밭에 가서 4~5일 김을 매주면 밭갈쇠를 하루 빌어 밭을 갈 수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밭갈이 하며 농사일을 도왔지만 등록금 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일했다.

3,000~4,000평 정도의 밭을 농사지었지만 우리 힘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의 품을 빌리다보니 실제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다. 남의 땅 빌려서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땅주인과 우리가 수확의 50%씩 나눠 갖는 경우도 있었고, 심할 때는 수확량의 70%를 땅주인이 가져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농사를 했는데 일반 밭농사 즉 보리, 조, 고구마는 가격이 별로 안됐다. 유채는 좀 돈이 되었다. 22살 때부터 감귤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즉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감귤나무를 심었다.”

■ 3대 독자의 외로운 삶…30살 때부터 자신감 회복

“4·3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자 남은 가족은 연약한 여자들 뿐이고 나는 너무 어렸다. 게다가 누나 세 명이 시집을 가거나 직장을 구해 인천으로 가버리니 우리 집은 힘이 없었다.

당시엔 야만적인 점도 있던 때라서 힘이 센 사람은 잘 살고 약한 사람은 천대받았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많이 시달렸다. 학교갈 때 선배들 책가방 들고 다녀야 했고, 이유없이 그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다.

만일 아버지가 2대 독자가 아니어서 친척이 많이 있으면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을 텐데, 내겐 형도 없으니 멸시를 많이 받았다. 약한 집안이라 무시당하면서 살았다. 아버지도 형도 친척도 없는 나같은 사람들이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 22살에 결혼했는데 그 후에도 멸시를 당했다. 20대 후반까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매도 많이 맞았다. 형제가 쟁쟁하고 친척도 수십 명이 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세력이 없어서 함부로 당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힘을 키웠다. 어릴 때 제대로 못 먹어 키는 작았지만 축구 등 운동을 잘했고, 힘을 키우니 웬만한 돌담도 한 번에 휩 넘을 수 있었다. 나는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체력단련을 했다. 그래서 서른 살이 될 무렵엔 마을에서 힘으로 나를 당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일에 적극 봉사하다보니 서른 살에 마을 청년회장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멸시 당하지 않고 마을 지도자급이 되어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

또한 영평동 4H 회장, 제주시 4H 후원회 청소년 사무국장, 영평동 새마을지도자, 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제주도 농촌지도자부회장, 영평동 마을회장을 역임했다.

47세부터 60세까지는 비료 회사인 ㈜풍농 제주출장소장으로 일했다.”

■ 2000년 이후 경제적 안정

“농사로 살림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쯤인 것 같다. 지금 노지감귤은 안 하고 모두 만감류만 재배한다. 2005년 이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편진 듯하다. 이전 경제적으로 시달리지 않는다.”

■수형인명부 발굴 후 유족회 활동…4·3특별법, 대통령 사과에 위로 받아

“군법회의 수형인명부가 발굴됐다는 소식을 듣고 옛 도립병원 옆에 있던 4·3관련 단체를 찾아갔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형량이 15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너무나 억울해서 만일 그때 누가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때 기분으로는 누구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 도대체 뭐를 잘못했다고 15년이냐? 백보양보해서 15년형이 정상적인 것이라도 15년이 훨씬 지났으면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아버지는 학교도 다닌 바 없는 무학이었고 산에 오른 적도 없는 분이다.

곧이어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자 비로소 4·3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전엔 ‘죄 아닌 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4·3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한 이후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4·3에 관해 논쟁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과 대통령의 사과로 위로를 받게 되었고 맺힌 한도 조금이나마 풀렸다.

지금까지 유족회 활동을 15년 정도 했으니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한 셈이다. 우선 행방불명 인유족회 영남위원장을 6~7년 했다.”

※ 책임연구원 주: 증언자가 말한 행방불명유족회 ‘영남위원장’이란 대구(영남)지역으로 끌려간 희생자들의 유족들의 대표라는 뜻이다. 군법회의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가 발굴되자 유족들은 비로소 형무소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된 가족이 몇 년 형을 선고받아 어느 형무소에 수감됐던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대개 15년형은 대구형무소, 7년형은 대전형무소, 미성년자는 인천소년형무소, 무기징역과 20년형은 마포형무소, 여성은 전주형무소, 1년형 등 일부는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래서 행방불명유족회는 그 산하에 형무소 소재지역을 중심으로 ‘경인위원회’, ‘영남위원회’, ‘대전위원회’, ‘호남위원회’ 등을 두었다. 4·3평화공원에 세운 ‘행방불명인 표석’도 형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했다.

■‘자식의 도리’ 다하려고 유족회 활동에 열중

“현재는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유족협의회장, 4·3평화합창단장, 4·3명예교사 역할을 맡고 있다. 4·3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려고 앞장서고 있다.

자식의 도리로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원혼을 달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고 주변에 자랑이라고 할 것은 아닌가 하면서 4·3 일에 나서고 있다.”

■4·3특별법 개정돼 군사재판 무효화하고 보상해야

“4·3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보상은 물론, 군법회의를 무효화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혔으니 국가가 처리해줘야 한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속에 놓이 가득 차 있는데 외부에다가 ‘평화의 섬’만 운운하면 무슨 소용인가. 진정 평화의 섬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4·3군법회의를 무효화시키고 배·보상이 이뤄져야만 한다.

그리고 4·3에 쓰이는 이런저런 예산이 많은데 정작 유족에게 쓰이는 돈은 미약하다. 유족의 아픔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예산인 것이다. 합창단, 임원회도 스스로 돈을 내면서 하고 있고, 유족회 직원들은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 4·3교육에 힘써야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아픔을 잘 모른다. 4·3도 모르고 부모의 고통도 모른다. 학생들이 4·3의 진상과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

6. 문순선(文順善. 제주시 연동)

- 1차 증언(증언자 문순선의 시어머니 고난향 취재) : 1993년
인터뷰어 : 김종민
- 2차 증언(문순선과 고난향, 함께 취재) : 1999년 6월 28일
인터뷰어 : 김종민
- 3차 증언(문순선) : 2019년 8월 29일
인터뷰어 : 김종민, 한상희

■ 문순선 인적사항

- * 생년월일 : 1933. 3.(실제 1930. 3.)
- * 본적지(출생지) : 제주 연미마을
- * 현주소 : 제주시 연동
- * 현재 가족관계 : 아들 송승문(현재 4·3희생자유족회장), 손자 2명

————— * —————

◆ 1차 증언(문순선의 시어머니 고난향의 증언)

■ 고난향(高蘭香) :

- 1907년 2월 11일생
- 1993년 증언 채록(당시 86세)
- 제주시 오라동

* 4·3당시 가족상황

“남편과 나는 일제 때부터 일본에 돈 벌러 갔었는데 해방 후 남편은 일본에 남고 우선 내가 아들 넷을 데리고 홀로 살던 중 4·3이 발생했다.”

* ‘오라리 방화사건’ 직후 대동청년단 단원에게 구타 당해

“대동청년단이 마을에 들이닥쳐 불을 질렀다. [책임연구원 주: 1948년 5월 1일 우익청년단체인 대동청년단원들이 오라리 연미마을의 일부 가옥에 대해 불을 지른 사건을 말함]

당시 나는 남편도 없고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살 때인데, 대동청년단원들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사람이 와서 ‘대청원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어서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집을 나와 시누이가 도노미(정실)에 사니까 그곳에 가서 하루를 지냈다. 다음날 집에 와보니 궤고 이불이고 모두 밖으로 내쳐져 있었고 집들은 불에 탔다.

하루는 대청원들이 어우눌(오라리의 한 자연마을)을 포위해 있다가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고 때리고 하다가 내가 보이니까 내게 와서 ‘이집에 폭도들이 숨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나는 폭도는 모릅니다’라고 했더니 마구 구타를 하면서 ‘폭도새끼가 폭도를 모르느냐. 너 폭도들에게 밥해 줬지?’라고 억지를 쓰면서 계속 때렸다.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도 쑤신다.”

* 1948년 6월 9일(음력 5월 3일) 사건

“토벌대가 고태조 등 3명을 처참하게 죽였다. 죽일 때도 아주 잔인했다. 우린 아무 죄가 없다고 해도 죽였고, 고태조는 ‘살려줍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애원하니까 그들은 불 지른 소나무 숲을 가리키며 ‘살고 싶으면 저쪽으로 뛰라’고 했다. 고태조가 그 불 속으로 뛰어올 때 등위로 총을 쏘 죽였다. 고석규는 내 오라방 아들이다. 또 그날 토벌대는 사람들을 모아 그중 어느 하르방은 말이 되어 앞드리게 하고 어느 할망은 그 위에 타서 두드리게 하면서 마을사람들을 모욕했다.”

* 1949년 7월경 전주형무소…함께 간 막내아들 형무소에서 사망

“동척회사(주정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었는데, 그 때 같이 있던 아들이 설사를 심하게 해서 경향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보낼 사람은 이름을 불러 내보내고, 못나갈 사람은 또 그들대로 분류했었다고 한다. 그러던중 ‘고난영!’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예’하고 대답하곤 아기를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갔더니 ‘고난영은 이미 나갔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신이 아찔해 ‘이름을 잘못 들어서 사람이 잘못 분류됐다’고 하소연했으나 그들은 ‘바뀌지고 뭐고 이젠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 후 나머지 갇혀있던 사람들이 전주형무소로 갔는데, 그때 여자만 80여명 됐다. 이 말을 하려니 가슴이 떨려 말을 못하겠다. 배가 고파 속옷을 뜯어 입에 넣어 굶주림을 속였다. 그런 생각이 또 있을까. 너무 배가 고파서 얼른 징역이라도 보내주면 밥이라도 먹여줄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전주교도소에 가니 소장이 말하길 ‘당신은 이름이 바뀌어져 온 사람 같은데, 형량이 2~3년쯤 되면 바뀐 사람을 불러들이고 당신을 풀어줄 텐데 형량이 10개월 정도 남았으니 여기서 수양이나 하다가 가라’고 했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전주교도소에는 막내아들과 같이 갇혔는데, 10개월 갇혔다가 나올 무렵 아기는 결국 그곳에서 잘 먹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어버렸다.

또 출옥해 와 보니 셋째 아들(당시 13살)는 작은 동서가 돌봐주고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어 있었다.

또 큰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경찰에 끌려가 죽었다. 비행장에 실려가 구덩이 파서 매장당했다. 죽은 날은 음력으로 8월 10일이다.

이 사태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잠 못 이룬다. 그 꼴을 보고 이곳에서 오래도 살았지.

결국 아들 넷 중에 둘째아들만 현재 살아남아 서울에 살고 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징역간 후 이모네 집에서 얻어먹고 지냈다. 친정집은 씨멸족 해서 제사와 명절지낼 남자 하나 없어졌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다. 오빠 고석규, 오빠아들 고치규, 오빠의 딸 고춘옥이 모두 토벌대에 의해 학살당했다.”

* 며느리 문순선의 고초…주정공장에 감금돼 있을 때 유복자 낳아

“우리 며느리(문순선)는 시집온 지 1년 만에 남편(큰아들)이 죽어 20살 때 청상과부가 됐다. 그런데 아들이 죽기 전 며느리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유복자로 아들을 낳았다.

하루는 토벌대가 공회당 마당에 마을사람들을 모두 끌고 간 날인데, 그들은 우리집에 와서 ‘네 서방 어디갔냐. 폭도질 하러 갔냐’고 욕박질렀다. 내가 ‘남편은 일제 때부터 돈 벌러 일본에 갔고 지금도 일본에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이 빌어먹을 년, 일본이라니!’라면서 때렸다.

그때 며느리를 골방 속에 숨겨놓았는데, 그들은 결국 며느리를 찾아냈다. 그리곤 공회당으로 끌고 갔다. 그리곤 며느리를 걸상 위에 눕힌 후 임신한 배 위에 긴 널빤지를 깔아놓고 두 놈이 나무 양쪽에 앉아 널뛰기를 하면서 ‘네 서방 어디갔느냐’며 고문했다. 며느리는 ‘난 모릅니다’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어머에게 말 한 해도 각시에겐 말한다. 폭도질 하러가지 않았느냐?’면서 고문했다. 나는 며느리가 다칠까봐 ‘이 아인 모릅니다. 놈 줍서, 놈줍서’하면서 애원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내 뺨을 때리고는 계속 그짓을 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있던 아기가 살았지. 그 손자가 살아 지금 44살이다. 이름은 송승문이다. 중앙동 바로 옆에 있는 슈퍼를 경영하고 있다.

며느리도 같이 살고 있다. 며느리가 내게도 잘하고 제사 명절도 잘하고, 우리 며느리는 비석 세워줄 사람이다. 20살 때 청상과부가 된 건데…, 며느리는 나와 같이 주정공장에 같이 끌려갔었다. 며느리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다. 내가 받았다. 주정공장에는 꽤 오래 살았는데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들도 아기를 많이 낳았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뒤늦게 낳다 보니 쌀도 안주고 담요도 안줬다.”

◆ 2차 증언

■ 문순선(文順善, 1999년 70세)

– 1999. 6. 28. 자택에서 구술 채록. 시어머니 고난향과 같이 사진촬영.

* 시어머니 고난향에 대해

“시어머니는 현재 93세이다. 그러나 귀가 멀어 의사소통이 안된다. (그러나 고난향은 책임연구원이 기자 시절 과거 자신을 찾아와 취재했고, 사진도 찍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음) 시아버지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들 장가보낼 때 사용할 옷감을 끌어오겠다’며 일본으로 간 후 사태가 어지러워지자 돌아오지 못했다. 그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결혼 때도 없었다.

내 친정은 연미마을이고, 시집은 약간 남쪽인 어우놀이였다. 당시 시어머니는 연미에 살고 계셨다.”

* 남편 송태우(宋太佑, 19) 공항 부근에서 토벌대에게 희생

“남편 죽은 날도 정확히 모른다. 음력 8월 10일에 제사지낸다. 혹시 생일이 아닐지…”

(생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대개 그때 제사지낸다)

“글쎄. 혹시 시어머니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신도 찾지 못하고 죽은 날도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편은 1948년 5월 이후 계속 도피생활을 했다. 그 후 산에서도 만나지 못했다. 내가 결혼할 때도 다소 어지러울 때이다. 아무튼 결혼생활을 채 1년도 하지 못했다.”

* 1948년 6월경 임신한 몸으로 토벌대에게 고문

“남편이 사라지니까 토벌대가 와서 숨어있던 나를 찾아냈다. 이때 이미 젊은 남자들은 마을에 없었다. 내가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이다. 난 숨었으나 곧 끌려나와 토벌대가 내 배 위에 널빤지를 얹어놓고 위에 올라탔다. 시아버지는 당시 일본에 있었으나 시어머니에게 ‘남편 찾아내라’며 고문했다. 그리고 도망치지 못한 남자 한 명과 나와 나보다 몇살 위인 여자 등 세 명은 숨었던 죄로 제주경찰서에 끌려가 약 일주일 살다 나왔다.

난 당시 별 고문을 받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받았다. 코에 물을 넣으며 두드려 패면서 ‘바른대로 대라’고 했다.”

* 젊은 남자들 도피생활

“아무튼 젊은 남자는 집에 있지 못했다. 잡아가면 무조건 쏘아부니까. 온다 하면 무조건 숨었다.

당시 20대 남자 중 재수 좋은 사람을 빼고는 거의 다 죽었다. 처음부터 잘 했으면 몰라도 무조

건 두드려 패고, 쏘아대니 죄 없이 이리저리 쫓겨 도망다녔다. 너무도 억울한 죽음들이다.”

* 연미마을과 어우늘 방화...오라3동 '궤랑'으로 소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토벌대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에 와서 집집마다 불 질렀다. 그런데 이날은 학살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남자가 없으니까. 처음엔 우리에게 밭에 가 있으면 조금 후 죽일 거라 했는데, 불을 지른 후 죽이지는 않고 친척집 등을 찾아 내려가라고 했다.

우린 오라3동 '궤랑'이란 곳으로 갔다. 그러나 얼마 후 그곳도 불을 지르니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임시 피한다는 생각으로 산으로 올랐다. 골프장 뒷쪽이다. 열안지오름 부근에서 숨어 살았다.”

(혹시 산사람들이 입산을 권유했는가?)

“아니다. 숨으면 살아질까 하여 우리끼리 오른 것이다. 읍내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몰라도 대개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증언자는 1933년생이다. 그러면 1948년 당시엔 만 나이가 아닌, 우리나라 식의 나이로 쳐도 불과 16살이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시집갔는가? 또한 남편 송태우는 1931년생이니 1948년 당시 18살이다.)

“그건 옛날에 호적신고를 하며 제대로 못해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난 올해(2006년) 77세이다. 18살에 결혼했고, 19살에 4·3사건을 만났다. 그리고 아들 송승문을 낳은 것(1949년)은 20살 때이다. 그리고 남편은 나보다 1살 위였다” [책임연구원 주: 그렇다면, 증언자의 실제 생년은 30년생이다. 그리고 남편 송태우는 29년생임]

* 피신생활(‘흑담밭’에서 열안지오름 남쪽 ‘가매왓’ 등지로 피신)

“1948년 12월경(구술자는 ‘1948년 11월’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양력인지, 음력인지 잘 기억하지 못함. 그런데 증언자가 대개 음력을 기준으로 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음력일 가능성이 높음. 그렇다면 1948년 12월임) 토벌대가 집을 불태워버리자 우리 가족들은 현재 오라골프장 오른쪽 속칭 ‘흑담밭’이란 곳으로 피신했다. 흑담밭에는 당시 민가가 몇 채 있던 곳이다. 그 집들 중 한 곳을 빌어 몸을 의지한 것이다. 피난갈 때는 시어머니(고난향), 남편(송태우), 나(문순선), 시아주버니 2명(7살, 3살), 시누이(6살) 등 6명이 함께 피난 갔다.

한편, 남편 바로 아래 남동생(당시 14살)은 읍내에 있는 시이모(시어머니 고난향의 여동생) 댁에서 살고 있었다. 즉 시어머니에게 자식이 많으니 시이모가 언니를 돕느라 한명 데리고 산 것이다.

그리고 피난 당시 나는 임신해 있을 때이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난 피난 전에도 토벌대가 서방 내놓으라며 임신한 내 배 위에 널빤지를 깔아 널을 띄워 고문을 했었다.

아무튼 우리 6식구가 흑담밭에 있는 한 민가를 빌어 생활하던 중 토벌대가 그곳까지 와서 집들을 또 불태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매왓’이라는 곳으로 피난 갔다. 가매왓은 흑담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열안지오름 뒤쪽(즉 제주시 방향에서 본다면 오름 남쪽)으로 피신했다. 가

매웠은 민가가 없는 곳이라 그 겨울에 밤을 지내려니 너무 추웠다. 뺨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때문에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

가매왓에 있을 적엔 우리 식구 외에도 오라리 주민 5~6가호 30명 가량이 함께 피신해 있었다. 그런데 자꾸 더 토벌이 심해졌다. 토벌대가 다가오는 것 같으면 부리나케 뛰어 도망쳤다. 고씨 집 안의 사람 한 명은 도망치다 총에 맞아 죽었다.

이처럼 토벌이 점점 심해지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 한 명이라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여자와 아이들을 이끌고 피신하다가는 모두가 몰살당한다'면서 남편에게 혼자 피하라고 했다. 사실 그 무렵 도망치다가 여기저기에서 총 맞아 죽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린 다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 혼자 떠나보냈다.

그 후엔 '토벌대 온다!'는 소리가 나면, 난 5살 난 시누이를 업고, 시어머니는 2~3살 난 시아주버니를 업고, 7살난 시아주버니는 혼자 뛰면서 도망다녔다. 주로 열안지오름 부근의 굴 속에 살았다. 또는 움막을 지어 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졌는지 모르겠다.

4·3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 그런 세상 다시 온다면 자살하지. 목숨은 참으로 질긴 것이다”

* 귀순(1949년 4월)과 주정공장 수감 중 아들 출산

“남편과 헤어진 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인 1949년 음력 3월에 오라리에 살고 있는 외삼촌댁으로 갔다. 난 만삭의 몸이었고, 어린 시아주버니들은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다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소문에 내려오게 된 것이다. 외삼촌에게 '우리가 내려왔다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곧 경찰이 왔고, 우리는 모두 경찰 차에 실려 주정공장으로 끌려갔다.

주정공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뻥뻥하게 갇혀 살아서 우리 일 외로는 잘 모른다. 너무도 배가 고팠고 물이 그리웠다. 주정공장에 갇힌 지 1달 만에 아기를 낳았다. 시어머니가 받아줬다. 거기서 애기 낳은 사람도 여럿 있다. 음력 5월 그믐께 풀려났다. 아들은 음력 5월생이다. 애기 낳으니 기저귀 하라고 헌 천을 조금 주었다.”

* 시어머니 고난향과 시아주버니와 함께 전주형무소행(시아주버니 사망)

“주정공장에서 아기를 낳고 얼마 지나자 일부는 풀어주고, 일부는 형무소에 보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름이 잘못 불러 전주형무소로 가게됐다.(수형인명부에는 '고난향(高蘭香). 42세. 농업. 제주읍 오라2구. 무죄주장. 유죄판결. 징역1년. 연도일자 1949. 7. 7. 복형장소 전주형무소'라고 기재돼 있음)

시어머니는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무소에 계실 때 함께 업고 갔던 시아주버니는 결국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

◆ 3차 증언

■ 문순선(文順善, 2019년 90세)

— 3차 증언(문순선): 2019년 8월 29일 자택에서 구술 채록

* 임신한 몸으로 토벌대에게 고문받아…노인들에게 '말태우기' 모욕

“오라2동 회관(연미마을 회관)에 끌려가보니 할머니 위에 할아버지 태우고 운동장 마당을 뱅뱅 기면서 돌게 하는 것을 봤다. 12명쯤 있었고 70은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부리고 타면서 운동장을 강제로 돌고 있었다. 그런 꼴을 본 적이 없다. 줄줄이 운동장 마당을 기면서 돌고 있었다.

나도 끌려간 상태라 정신이 없었는데 우익청년단원들이 나무토막을 내 배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타서 밟았다.”

* 3달 동안의 피신 생활

“처음 흑담밭으로 피신갈 때는 그 동네 어른들 집 마루에서 2~3일 살았다. 그런데 그 동네도 불을 지르니 냇창의 돌을 의지해서 하룻밤 자기도 했다.

겨울에 가서 봄에 내려왔는데 3달 동안 피신생활은 먹지 않아도 밥 먹을 생각은 없었다. 사흘 정도는 굶은 수가 있는데 흑담밭 이후부터는 무서운 생각뿐이었다.”

(흑담밭은 닷새 살때는 음력 11월쯤인데 그 다음해 봄에 내려왔는데 3달간은 어떻게 지냈는가? 라는 질문에 증언자는 무서운 생각 뿐이었다는 말만 반복하였음)

* 주정공장 석방 이후 '진올레'에서의 생활

“내 시집은 어우늘이고 친정은 연미마을이다. 주정공장 석방된 후 집은 토벌대가 불태워버려서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찾으니 친정마을인 연미마을도 불타버려서 친정어머니도 오라2동의 '진올레안'(긴 올레)의 친척네 집으로 간 상태였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마루에, 작은방에는 친척네가 살았다. 다른 피난민들도 있었다. 원래 그 집 주인은 제주읍내에 살았고 밖거리는 집 주인의 친척이 살고 있었다. 구들방에는 자보지도 못하고 마루에서 지내다가 2년쯤 지나니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그 집을 차지해서 살았다.”

(그 때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강냉이 가루를 범벅해서 먹거나 밀꾸시를 사다가 범벅해서 먹었다.(밀범벅), 진올레안에서 일곱해 넘게 살았다. 아들도 진올레안에서 초등학교에 다녔다.

* 연미마을에서 양철집을 짓고 생활…딸나무 팔아 생계 유지

“다시 연미마을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밤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 꽃자왈 가서 나무를 해서 양철집을 지었다. 사태가 완화되니 지붕 할 양철과 시멘트를 지원해주니까 정식으로 연미마을 서쪽 아래로 가서 집을 지었다.

그때는 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산에 가서 땀나무를 모아 읍내에 가서 팔며 살았다. 그땐 연탄과 기름도 없던 시기라 땀나무를 해서 주로 식당과 일반집에 팔았다. 민오름 뒤 목장, 흑담밭 부근의 꽃자왈 가서 땀나무를 해서 왔다. 잔잔한 나무를 모아서 베에 져서 왔다. 땀나무를 사는 식당 사람들이 '아무 날이나 해옵서, 팔아줄테니'라고 해서 땀나무를 팔 수 있었다.

아무튼 주 수입은 나무 땀감이었다.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다. 조농사는 비로 안 해도 되지만, 보리농사는 반드시 퇴비를 만들어 거름을 주어야 되는데 퇴비를 마련할 힘이 없으니... 퇴비거름은 들에 가서 출을 베어다 썩혀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밭가는 거는 다른 사람 빌려서 했다. 밭가는 일꾼을 빌리는 방법은 돈을 준 적도 있고 일로 갚은 적도 있다. 여자들이 김매기는 할 수 있지만, 밭을 갈 수가 없으니 밭갈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밭을 갈라달라'고 하려면 돈을 주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그 집 일을 해줘야 했다. 돈을 못 주는 경우 보통 5일은 김매기를 해줘야 하루 밭갈이가 해줬다.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보리농사 못 짓고 주로 땀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땀나무를 팔아서 조나 보리 범벅을 해서 먹었다."

* 시아버지가 일본에서 보내준 돈으로 경제적 안정 찾아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재산은 있지 않았나?)

"남편 명의로 재산은 있었지만 많지 않았다. 일본에 사시는 시아버지가 돈을 보내줘서 집을 지었다. 마흔 살 이후부터 시아버지가 일본에서 돈을 보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에 계시는 시아버지가 '제주도에 사람이 다 죽었다. 아들들도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화병이 났다. 시아버지는 자신은 몸이 아파도 돈을 모아서 제주도로 보내줬다. 그 돈으로 이 땅을 사고 밭도 샀다. 시아버지는 내가 70살이 되던 쯤에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일본에서 시아버지가 지원해 준 것이 사는 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 4·3 이후의 삶

(아들은 어느 학교를 다녔나?)

"농업학교를 졸업했다. 농업학교 학비를 대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해 오고 갯돈을 부었다."

(2004년도에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다. 4·3으로 인해 화병이 났을텐데, 대략 언제부터 한이 풀렸나?)

"아직도 풀린 것 같지 않다. 살아온 생각을 하면... 갑자기 토벌대가 집에 불 붙이고, 그래도 아들이 사고치지 않고 곱게 자라줘서 다행이었다. 아버지도 없다고 강패짓이나 하면 속이 탔을 텐데, 어릴적부터 암전하게 지냈다. 우리 아들이."

(한이 풀리지 않았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한이 풀릴 것 같나?)

"속에 묻고 내가 죽으면 그때야 한이 풀리겠지."

(추념식에 가는 것이 위로가 되는가?)

"위로가 된다. 4·3특별법으로 공원도 만들고, 대통령 사과로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완전히 풀리지는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사과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했다. 대통령들이 고맙다."

7. 부원휴(夫元休, 제주 화북2동 거로마을 출신)

1차 구술채록 : 1995. 10. 9. 자택 방문

인터뷰어 : 김종민

2차 구술채록 : 2008. 4. 23. 자택 방문

인터뷰어 : 김종민

3차 구술채록 : 2019. 8. 15. 자택 방문

인터뷰어 : 김종민, 한상희

■ 인적사항

* 생년 : 1929년생

* 본적지(출생지) : 제주시 화북2동 * 23살 때 홀로 이도동으로 분가

* 학력 : 제주농업학교 졸업

* 군경력 : 육군 입대(1950년 9월 1일)

* 직업 : 총공직생활 20년(제주도청 제주도보훈처 사회과 보건계 5년 근무(54년~58년), 교육위원회, 교육청 학무과, 조천중학교 행정실에 5년 근무, 세화중 3개월 근무)

◆ 1차 구술채록 :

— 1995. 10. 9. 자택 방문

* 둘째형 부원욱(夫元旭, 당시 28세) 1948년 10월 30일 거로마을에서 총살

“둘째형은 당시 제주읍내에서 구둣방을 하다 몸이 아파서 집에 와 요양을 하고 있었다. 당시 젊은 사람들은 모두 숨어다닐 때였지만 몸도 아프고 또 죄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 30일 아침 무장한 군인 2명(함덕주둔 군인이라 함)이 와서 끌고 갔다. 나는 당시 17살이었는데 나보고도 나오라면서 끌고 가려했다. ‘나는 학생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사정하니 형만 끌고 가 총살시켜 버렸다. 죽은 것도 3일후에야 연락을 받고 알았다. 시체는 지금 거로입구(공업단지 입구)발이었는데 5명이 같이 죽어 있었다. 당시 죽은 사람들은 사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양민들이었다”

— * —

◆ 2차 구술채록 :

－ 2008. 4. 23. 자택 방문

* 농업학교 천막수용소에 갇혔다가 1948년 군법회의(인천소년형무소에서 1년형 만기 복역)

(「수형인명부」를 자세히 보다보니, 1948년 군법회의에서 1년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복역 후 출감한 것인가? 왜 전에 찾아왔을 때에는 형이 희생된 이야기만 하고 본인의 군법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수형인명부」에는 ‘부원휴, 18세, 농업, 제주읍 화북리, 징역 1년, 언도일자 1948. 12. 15., 복형장소 인천소년형무소’라고 적혀 있다)

“군법회의 이야기를 물어봤어야 대답을 하지. 묻지 않았으니 말 안했지. 난 농업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당시엔 9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6, 7월에 졸업식이 있던 시절이다. 지난 번 말했던 것처럼 형이 희생될 때 나는 학생이라고 호소하여 목숨을 부지했다.

1948년 12월 초 집에 있는데, 아마 이 날은 휴일이었나 보다. 왜냐면 농업학교에 9연대가 주둔한 곳은 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농업 실습장 같은 곳이다. 수용자 천막을 치고 있었으나, 교사(校舍)는 학생들이 사용했고, 학교 수업도 계속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너 나와!’하며 나를 농업학교 천막 수용소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어제까지 다니던 학교의 천막 수용소로 갇히게 된 것이다. 내가 끌려갈 때까지 우리 거로마을은 소개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아무튼 끌려가자마자 야전삽으로 마구 때리고, 엄지손가락에 전선을 묶어 전기고문을 했다. 그리고 손을 뒤로 돌려 손목을 묶은 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때렸다.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이라도 했는가?)

‘산에 협조했나? 자백하라?’면서 고문했다. 그런데 뭘 한 게 있어야 자백하지. 그 땐 너무 고문을 당해 정신이 없어서 허위자백이라도 했는지 뭔지도 모르겠다.

재판다운 재판은 없었다. 관덕정 옆에 있던 법원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옴!’하고 대답하면서 한번 일어났다 앉았을 뿐이다. 전혀 재판 절차가 없었고, 몇 년 형이라는 형량 언도도 없었다.

그 후 12월 중순경, 그러니까 내가 끌려간 지 20일 정도 만에 배로 목포로 갔다가 다시 기차로 인천소년형무소로 이송됐다. 굉장히 추웠다. 거기 형무소 운동장에 쭉 앉혀놓고 경찰관 같은 사람이 형량을 불러주었다. 내게는 ‘금고 1년!’이라고 했던 것 같다. 7년도 있고, 15년형도 있었다.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다.”

나는 1949년 10월 말 석방됐다. 지금도 인천소년형무소장 이름이 최양욱이라는 게 기억난다. 석방증이 있었는데 분실했다. 송요찬 9연대장 시절 끌려갔는데, 내가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함병선 2연대장도 제주를 떠났을 때이다.

* 예비검속 (같은 마을 같은 형량의 친구들 예비검속)

(6·25전쟁이 벌어지자 경찰지서에 한 번쯤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끌려가 예비검속돼 죽었다. 형무소 출옥 후 예비검속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형인명부를 보니, 같은 마을 또래 주민인 김아무개 등도 같은 날 1년형을 받았다. 6·25전쟁 직후 어떻게 예비검속을 피해갈 수 있었는가?)

“뭔가 경찰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용케 예비검속을 피해갔다. 당신 말처럼 김아무개 등은 우리 마을 주민으로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다. 함께 인천소년형무소로 갔고, 함께 출옥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김아무개는 예비검속에 걸렸다. 그래서 죽게 고생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은 쟁쟁한 집안이다. 그래서 빼냈다. 그는 곧 육군에 입대해 전장에 나갔는데,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와 살다가 50대 후반에 병으로 죽었다.”

* 육군 입대(1950년 9월 1일)…농업학교에 제5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전쟁터로 나가

“나는 전쟁 직후인 1950년 8월 하순 육군에 자원 입대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 보다 조금 앞서 해병대 3·4기로 입대했다.

제5훈련소에서 1달간 훈련을 받았다. 모슬포에 있는 훈련소는 아마도 1953년 또는 1954년경 생겼을 것이다. 제1~제4훈련소가 어딘지 모른다. 아무튼 나는 농업학교에 설치된 제5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전장에 나갔다.

육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3대대 제4중대 소속으로서 호남지구 토벌대가 되었다. 덕유산 일대에서 작전한 것이다. 그 후 강원도 간성으로 갔다. 1954년 1월 제대했다. 제11사단장은 최덕신→오덕준→임부택 등으로 기억한다.”

* 연좌제 피해

(이 증언자의 경우 당사자이므로 ‘연좌제’가 아니라 ‘전과 경력 피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과 경력 때문에 신원증명도 못 떴었다.”

(그래도 농업학교 졸업생이면 당시로선 인텔리인데 취직을 못했나?)

“졸업을 못했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받으면 명예 졸업장을 신청할 것이다. 그래도 도청에 취직해 일했다. 아무튼 전과 경력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외국 여행 같은 것은 안될 것으로 보고, 아예 포기했다.”

————— * —————

◆ 3차 구술채록 :

– 2019. 8. 15. 자택 방문

* 9연대 주둔 때에도 농업학교 정상 운영

(지난 번 증언 때, 9연대가 농업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시기에도 학교가 정상 운영됐고, 학교를 다니던 중 농업학교에 설치된 천막 수용소에 갇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학교와 9연대 주둔지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 공존했다는 말인가?)

“학교도 휴교 없이 그냥 다녔다. 나는 지금도 4281년(서기 1948년) 10월 16일자로 농업학교에서 발행한 학생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미군정과 제9연대 콘센트 막사는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 긴 하지만, 군대 막사는 교사(校舍)와 약간 떨어진 곳, 그러니까 농업 실습장 같은 곳에 있었다.”

그림 10. 4281년(서기 1948년) 10월 16일자로 발행된 부원휴 씨의 농업학교 신분증명서.
이는 9연대가 농업학교에 주둔 중일 때에도 학교가 정상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인천소년형무소 생활

“인천소년형무소에 있을 때 형무소 위생환경이 나쁘다보니 옥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로 이질에 걸려서 죽었다. 난 병에 안 걸려서 다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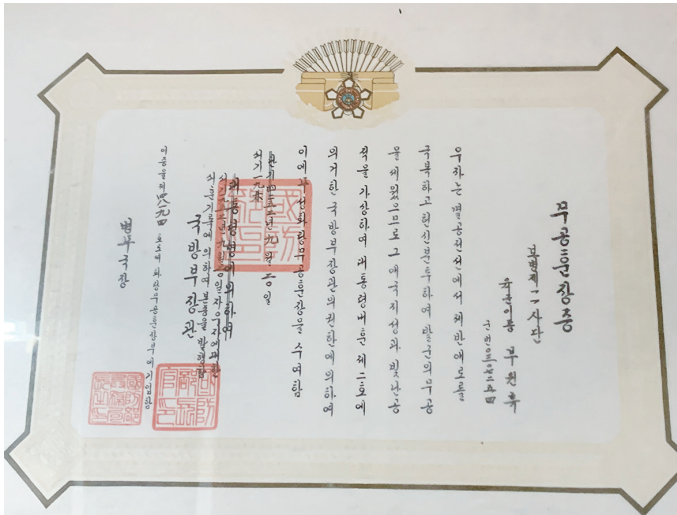
* 4·3 이후 생활, 회복과정

(억울하게 형도 죽고, 학교도 못다니게 되고, 형무소도 갔었는데, 6·25전쟁때 자원입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빨갱이 딱지를 떼려고 전쟁터에 자원해 나간 것이다. 사상이 깨끗하다고 증명하고 싶었다. 형도 돌아가시고 형무소 갔다왔으니 꼭도나 빨갱이라 했다. 그런데 군대 갔다가 오면 누가 그런말을 할 수 있겠냐는 마음에서 자원입대한 것이다.

농업학교에 설치된 제5훈련소에 9월 1일부로 입대했다. 실체는 8월 말 입대한 것이다. 육군 중에서 첫 자원입대했다. 군번은 0307254이다”

그림 11. 부원휴 씨의 무공훈장증



* 제대 후 홀로 분가...“탯줄을 태워버렸다”

“난 제대 후 아예 본적을 바꿨다. 바꾼 이유는 자주 조사가 심해서 억울하게 하니까... 화북 거로마일은 중산간마을이니까 남들이 볼 때 ‘산에 협조하는 마을이다’라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그 눈치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음에도 나 혼자 분가했다.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23살 때 혼자 제주읍내 이도리로 분가했다. 난 고향 화북리 거로마일에서 ‘탯줄을 태웠다’(본적을 바꿨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함). 분가할 때 형 두명과 모친은 화북에 그대로 남았다.

1954년 1월에 제대한 후에 3월 1일에 제주도청 제주도보훈처 5년 근무했다. 졸업은 못했지만 농업학교 5학년 다닌 인테리로 사회과 보건계에 근무했다. 그러다가 교육위원회에 갔다. 교육청 학무과, 조천중학교 행정실에 5년 근무했다. 이후에 세화중에 발령 나서 3개월 근무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갔다. 공직생활을 총 20년 했다.

1975년에 8월에 세화중학교를 그만두었다.”

(당시 마음이 불안하고, 시국이 어수선해서 신분상 위협 느껴 그만 둔 것인가?)

“그때는 지역마다 담당 형사들이 있었는데 형사들이 날 찾아온 건 아니지만 마음이나 편안하게 살자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그만둘 무렵은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군사정부가 심할 때여서

40대 중후반에 내가 스스로 그만뒀다. 경제 문제는 직업이 있어서 40대 중반까지는 해결이 되었다.”

(직업 구할 때는 다른 신원조회로 불편함 겪지 않았나?)

“당시 농업학교가 최고 학부였다. 아는 사람도 많고 학교에 인맥이 있었다. 도지사 했던 이군보 지사가 동창이고 송봉규 한림공원 대표, 김형옥 제주대학교 총장 등 다양한 인맥이 있어 취업할 수 있었다.”

* 군법회의 재심에서 무죄판결로 위로 받아

“군법회의 재심으로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 전과자 낙인만 아니었으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출세를 못했다. 동기 중에 전과가 없는 사람은 고위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고, 장교로 간 사람도 있었다.

추미애 의원의 수형인명부 발굴,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대통령 사과, 문재인 대통령 사과가 위로가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4·3에 관심을 안 보여 섭섭했다.”

8. 안인행(安仁行. 애월 장전)

1차 구술채록 : 1999년 3월 17일 자택 방문

인터뷰어 : 김종민

2차 구술채록 : 2019년 7월 18일 자택 방문

인터뷰어 : 김종민, 백가윤(허미선 보조)

■ 증언자 개인 정보

* 생년 : 1935년

* 4·3 당시 가족관계 : 8명(조부모, 부모, 나, 남동생(3명))

* 학력 : 고성 간이학교 중퇴

◆ 1차 구술채록 :

1999년 3월 17일 자택 방문

* 4·3당시 가족상황

“조부모님과 아버지 안태룡(安太龍·33), 어머니 강인팔(姜仁八·34), 그리고 우리 4형제가 있었다. 당시 14살이던 내가 장남이고, 밑으로 11살, 7살, 그리고 젖먹이 막내가 있었다.”

* 개수동으로 소개

“우린 장전리에 소개령이 내려지자 말젯어머니의 친정마을인 하귀리 개수동으로 소개했다. 아버지로서는 사돈 동네로 소개간 것이다.”

* 48.12.05(?) 부친 안태룡(安太龍, 33) 외도지서 화목 동원후 행불

“난 그날의 기억들이 너무도 생생하다. 만약 영화나 연극으로 만든다면 똑같이 재연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선하다.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 부친은 생일날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끌려간 날짜를 정확히는 모른다. 다만 부친이 끌려가고 약 3~4일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48.12.10).

본래 화목 동원은 개수동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소개민은 제외됐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신 나갔다가 당한 것이다. 즉 우린 개수동 김한주씨 부친택에 집을 빌어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다. 그래서 그 분은 아버지에게 보리를 갈아 먹으라고 밭도 빌려주셨다. 그래서 그 날도 본래는 그 할아버지가 장작 동원을 가던 중이었다. 아침에 아버지가 밭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도끼를 메고 가니까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보리밭은 내일 가고, 오늘은 그 할아버지 대신 장작동원을 가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가자마자 ‘너 나와, 너 나와’ 하는 식으로 끌려간 후 행불이다. 결국 외도지서에서 장작 동원을 한 것은 진짜 장작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개수동 청년들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 1948.12.10 모친 강인팔(姜仁八, 34) 비학동산서 학살

“어머니가 희생되던 날 모두 15명이 총살당했는데, 나 혼자 유일하게 살아났다.

청년들이 외도지서에 장작동원 됐다가 끌려간지 3~4일 후 외도지서에서 또다시 귀순하라는 통보가 있었다. 그러자 청년들이 도망을 갔다. 이쯤되자 우리는 아버지도 끌려가 불안한 터라 다시 수산리로 피난하기로 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소에 싣고 피난갈 준비를 하던 차에 외도지서의 경찰과 군인, 그리고 외도리 특공대원들이 마을을 포위했다. 그리고 가가호호 수색하면서 모두 속칭 ‘비해기동산’으로 모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모이자 토벌대는 시범으로 우선 여자 하나를 끌어내 옷을 훌쩍 벗겼다. 배가 많이 나온 임신부였다. 남편이 산에 오른 사람이라 했다. 그들은 그녀의 옷을 벗긴 후 겨드랑이로 밧줄을 묶어 팽나무 위에 달아맸다. 그리고는 총에 대검을 꽂아 찔렀다. 그녀를 죽이면서 ‘모두 잘 보라’고 소리쳤다. 차라리 총살시킬 것이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이어 토벌대는 집을 수색하다가 숨어있던 한 사람을 붙잡았다. 광령에서 소개온 사람이었다. 토벌대는 마구 구타하다가 도망치니까 다시 잡아 때려 죽였다. 그가 죽기 직전 70~80대로 보이는 연로한 그의 부친이 나타났다. 그 노인은 ‘우리 아들은 죄가 없다. 4대 독자이다’며 만류했다. 그러자 그 노인까지도 죽였다.

이어 주민들을 선별했다. ‘꼭도가족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전 외도지서에 장작 동원됐다

가 못 돌아온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 가족도 나오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나를 포함해 13명이 분류돼 30미터 떨어진 인근 밭으로 끌려갔다. 우리가족은 어머니와 나(14살) 동생(7살)까지도 묶여 끌려갔다. 어머니는 자신이 죽게 되자 젓먹이인 막내를 떼어냈다. 그리고 어린 동생을 살려달라고 했다. 어려선지 동생(7살)은 풀어주었다. 그런데 내게는 ‘이놈은 눈동자가 둥글둥글한 게 산에 연락함직한 놈’이라며 결국 풀어주지 않았다.

어머니와 나는 맨고트머리에 바로 옆에 묶였다. 경찰 3명이 총을 쏘는데 처음엔 우릴 북쪽으로 돌아서게 하고는 ‘칼로 찌르자, 시간없으니 총으로 쏘자’며 자기들끼리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그때 내 머리 속에는 ‘칼에 찔리면 고통이 오래 갈 것이니, 차라리 총에 맞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딱 차 있었고, 이제나 저제나 총소리가 울릴 것인가 하고 초조하게 있었다.

총소리가 탕 나면서 사람들이 쓰러지자 같이 줄에 묶인 나도 쓰러졌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 위로 쓰러지며 내 몸을 감쌌다. 어머니는 총 맞은 고통에 몸이 요동쳤다. 난 그 밑에 깔려 어머니의 피로 범벅이 된 채 가만히 있었다. 그들은 ‘덜 죽은 놈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대검으로 시신을 일일이 찔렀다.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이때도 나는 어머니 밑에 깔려 대검을 피해갔다. 얼마 후 호각소리와 차 소리가 나자 그들은 갔는데 나를 밟고 갔다. 그 후 밖으로 나왔다.”

* 동생들 사망

“우리 4형제는 이렇게 부모를 잃고 조부모님과 같이 수산리로 피난 갔다. 그런데 7살 난 동생은 홍역에 죽고, 젓먹이 막내는 젖을 먹지 못해 곧 죽었다. 이제 세살 아래 동생과 둘만 남았다”

* —————

◆ 2차 구술채록

– 2019년 7월 18일 자택 방문

* 1948. 12. 5. 부친 안태룡(安太龍, 33) 외도지서 화목작업 동원된 후 행불

“1948년 가을 경 우리 마을 장전리에 소개령이 내려지자 애월읍 하구리 개수동으로 소개를 갔다. 개수동에서 남의 집 빌어 살면서 소개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동짓달 초닷새(양력 1948. 12. 5)쯤이라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대략 닷새 전이다. 외도지서에서는 숨어있던 개수동 청년들에게 외도지서로 와서 자수하라고 했지만, 가면 죽을 거니까 사람들이 안 갔다. 그러니까 외도지서에서는 월동장작을 준비하러 오라고 이유로 마을주민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우리가 살던 집의 주인 할아버지는 노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성격이 좋으시다고 얘기하던 걸 당시에 나도 들었다. 장전리에서 소개 와서 보리를 갈러 갈 수도 없었는데 주

인 할아버지는 ‘장전리에 갈 생각 말고 우리 보리밭 갈아서 먹으라’고 해줄 만큼 좋은 분이였다. 마침 소 몰고 장대 지고 보리밭 갈려고 나가는데 그 날이 바로 장작 하라고 동원 내린 날이었다.

할아버지가 갔으면 노인이라 그냥 돌아왔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도끼를 메고 대신 갔다. 그것도 하늘의 운명인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보리밭은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갈아도 되니까 하면서 갔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라고 말을 많이 했다. 우리한테 밭도 빌려주신 집주인이 노인인데 동원될 생각을 하니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할아버지 대신 도끼 들고 장작동원령에 응했다가 그 길로 행방불명된 것이다.

딸감은 핑계고 숨어있는 사람 끌어내려고 함정 판 거다. 지서 월동장작 준비한다고 동원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 부친 시신 수습하러 노력…이젠 행방불명인 표석만

“토벌대는 아버지 등 장작동원령으로 속여 끌고간 사람들을 무수천 부근까지 데려간 후 두 줄로 세워놓고 ‘너 나와, 너 나와’ 그렇게 해서 일부는 차에 실어가고 나머지는 행방불명 됐다고 한다. 아버지 시신도 못 찾았다.

난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 수소문을 많이 했다. 우리 부친이 돌아가신 곳은 화북동에 있는 한

그림 12. 증언하고 있는 안인행 씨



밭이라는 소문이 이었다. 당시는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었다. 제주도 유해발굴 사업을 그곳에서 했는데 거기서 47명을 학살시켰다고 했다. 대동청년단을 동원해서 굴 파서(매장) 했다는 거야. 현장을 보니 서쪽은 소나무밭, 학살시킨 굴 판 밭은 아래쪽 밭인데 옴팡밭이다. 유해 발굴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한 건데 우리 종친들이 가끔 하는 말을 들으니 대동청년단 동원시켜서 끝까지 사살시켰다고 하더라. 47명을 학살하고 파묻으라 해서 동물 문듯 위에 흙을 뿌려놨다고 들었다. 5~6명쯤, 일부 유족은 시신을 찾아갔다. 당시 통행금지도 있고 혼자서는 왔다 갔다 못 하니까 결국 아버지 시신 찾으려 못 갔다. 발굴할 때 가보니 탄피는 있어도 시신은 다 녹아서 찾을 수 없었다. 지금은 4·3평화공원에 있는 행방불명인 표석에 아버지 표석이 있다. 처음에는 표석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없어서 행방불명된 사람들 하는 건데 우리 부친 왜 못하냐 따지니까 누락되었다고 다음번에 해 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설치해주었다.”

* 1948. 12. 10 모친 강인팔(姜仁八, 34) 비학동산서 학살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소식도 모른 채 돌아가셨다. 그 당시에 ‘소개 잘못 왔다. 가만히 보니 상황이 불리하다. 다시 수산리로 피난가자’ 하던 때에 아버지가 장작동원령에 걸려든 것이다. 결국 수산리에는 못 갔다.

우리 아버지는 장작동원령에 따르지 말고 그냥 첫 소개지인 하귀리 비학동산을 떠나 버렸으면 살았을 것이다. 정치에 아무 것도 가담한 일도 없고, 산에 간 가족도 없었으니까. 소에 짐 싣고 수산리로 출발하려던 차에 군경차가 온 것이다.

아버지가 끌려간 지 며칠 후 경찰이 와서는 모두 다 ‘비해기 동산(비학동산)’으로 모이라고 했다. 대개가 본래 하귀리 개수동 사람들이 모였는데 토벌대는 산에 오를 사람들 가족이라며 명단을 호명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소개간 사람들이니까 명단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나, 동생까지 묶어서 데려갔다. 그 밑(막내)은 어려서 그런지 그냥 두었다. 그 때 산에 올라간 사람의 가족인 지 임신부인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라’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막 때렸다. 옷을 다 벗겨서 나무에다 매달았다. 총에 대검을 끼워서 찌르니 피가 흘러내렸다. 경찰은 벗긴 여자의 옷으로 대검의 피를 닦았다.

다음은 광령리에서 소개를 간 사람이 무서우니까 비해기동산에 안 가고 집에 숨어 있었는데 잡혀 와서 마구 취조를 당했다. 그의 아버지가 ‘우리는 광령리에서 소개 내려온 죄 밖에 없고 우리 아들은 집안에 4대 독자다’고 계속 말했지만, 경찰은 그 아버지에게도 방망이를 내려쳐서 죽였다. 아들도 총에 맞아 같이 죽었다. 총을 맞아 당장 죽은 건 아니고, 총을 맞으니까 도망쳤는데 결국 잡혀서 두들겨 맞아 죽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어머니와 나를 포함해 13명이었다. 우리에게는 일렬로 돌아서라고 하더니 군인과 경찰 세 명이 다투기 시작했다. 하나는 총으로 쏘자, 하나는 실탄 아까우니 대검으로 찌르자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 당시에 나는 어린데도 총을 맞아 죽을 건가, 차라리 죽으면 총을 맞고 죽으면 좋은데 칼 맞아 죽으려나, 셋이서 싸우는데…. 총을 맞고 죽냐, 칼을 맞고 죽냐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다 들렸는데 셋이 총으로 쏘버리자 하길래 이제 총으로 죽냐 보다 하고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총소리 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총으로 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탕’하는 총소리가 난 뒤에 ‘다다다다’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어머니 제일 꼬트머리에 묶어 있었는데 총알이 우리 어머니 몸을 맞쳤다. 내 어머니가 팔로 나를 감싸서 내 몸에 피가 묻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총 맞아 죽는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 생각이 났다.

마지막에는 소대장이 덜 죽은 놈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했다. 이번 참에는 나도 죽겠구나 했다. 어머니 밑에 깔려 피가 낭자했는데 나한테까지는 대검이 안 왔다. 죽은 사람들도 다 찢렸는데 어머니 밑에 깔린 나한테까지는 대검이 닿지 못했다. 우리 어머니도 대검으로 찢렸다. 차 소리가 나니까 다 갔구나 했다. 마지막에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자랄 때 알고 지내던 침술 할아버지가 눈에 딱 띄었다. 그 할아버지는 ‘너만이라도 살았으니 됐다’ 하며 피신시켜주었다

결국 그 날에만 15명이 죽었다. 임신부와 광령리에서 소개 온 부자(父子), 16명이 되는 걸 내가

살아서 15명이 된 것이다.

그 당시 내버려도 죽었을 것이지만 총알이 배를 관통했는데도 살아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외도지서에서 3일 만에 그 사람을 찾아내 죽였다.”

* 동생들의 죽음

“막내는 젓 못 먹어 죽고 7살 남동생은 초등학교 다니다가 홍역이 돌아 죽고, 결국 나하고 세 살 아래 동생만 살아남았다.”

* 4·3 이후~2000년 이전의 삶

“우리는 고아가 된 거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여운동(수산리에 속하는 자연마을)에 살고 있었다. 나중에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수산으로 데려갔다. 그 뒤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났다.

학교는 고성에 있는 간이학교 다녔는데 4·3으로 인해 학교 졸업도 못 했다. 살기 바쁜데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솔직히 눈치밥 얻어먹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아버지는 4형제 중 장남으로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총살당하기 전에 ‘아들인 네가 간직해두라’며 나에게 주셔서 현금을 갖고 있었다. 갖고 있던 돈을 할아버지한테 맡겼는데 아버지가 끌려가신 후 작은아버지들도 잡혀가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자 할아버지는 내가 맡긴 우리 아버지 돈을 갖다 줘서 작은아버지들이 살아났다.

그때 내게 맡겨진 많은 현금은 소개 가기 전에 받을 사려고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밭이 5,000평 있었다. 자식들 살리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다 썼지만, 그래도 아버지 밭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 땅 안 팔고 보리, 조, 메밀 등 잡곡 농사를 지으면서 겨우 밥만 먹고 살 정도였다.

양봉한 지 50년가량 됐다. 과수원도 하다가 나이 많고 밀감도 무거워서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다. 19살에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벌이 도망가고 난 분봉(分蜂)을 하나 구해 양봉을 시작해했는데 한 3년간 양봉 관련 방법을 배워서, 혼자 연구하면서 계속하게 되었다. 27살부터 양봉했다.”

* 2000년 이후의 삶, 특별법 제정 전후의 차이

“4·3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대통령이 사과도 해서 위안이 된다. 4·3평화공원에 행방불명인 표석에 아버지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점도 그렇고. 특히 행불인 표석은 위안이 많이 된다. 억울한데 국가에서 표석을 세워주니까. 4월 3일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어머니 묘소 옆에 아버지 비석도 세워두었지만, 평화공원 행불인 표석을 보면, 이름이 있으니 묘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4·3 위령제 때 동생하고 행불인 표석에 제일 먼저 간다.

*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

4·3은 역사에 잘 기록해 뒤야 한다. 역사,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이상은 남겨야 한다. 우리 세대가 없다면 우리 자식 세대는 모른다. 이것을 역사로 잘 남겨두어야만 한다.”

9. 양봉천(梁奉天, 남원 의귀)

1차 구술채록 : 1995년 3월 18일 방문 취재

– 인터뷰어 : 김종민

2차 구술채록 : 2019년 7월 28일 '의귀리 4·3길 센터'에서 취재

– 인터뷰어 : 김종민, 한상희

■ 인적사항

* 생년월 : 1947. 4.

* 본적지(출생지) : 남원면 의귀리

* 학력 : 의귀초, 남원중, 서귀농림고등학교, 공군하사관학교(현재 부사관학교)

* 가족관계 : 아내, 딸(1970년생)

* 사회 활동 경력 : 영평동 4H 회장, 영평동 청년회장, 영평동 새마을지도자, 제주도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제주도 농촌지도자부회장, 영평동 마을회장, 제주시 4H 후원회 청소년 사무국장

* 4·3 관련 경력 : 현의합장묘 회장(1974~2017.5), 도유족회 남원을 지회회장, (전)제주도4·3 실무위원회위원, 4·3 명예교사

◆ 1차 구술채록

– 1995년 3월 18일 방문취재

– 1995년 당시 49세. 三墓同親會회장

* 부친과 형, 토벌대에게 희생

“부친 양기필(梁沂弼. 당시 51세)은 의귀국교에 수용돼 있다가 1949년 1월 10일(음력 48년 12월 12일) 학살됐고, 형님 양봉석(梁奉錫. 당시 19세)이 1950년 7월 29일(음력 6월 15일) 경찰에 끌려간 후 행불됐다.”

(부친 양기필이 바로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에 묻혀 있는 건가?)

“그렇다. 그 현의합장묘 3기에 묻혀 있는 분의 후손들이 모인 단체가 三墓同親會이다. 묘가 세 개여서 삼묘동친회라고 이름지는 것이다. 매년 음력 7월 그믐날 벌초하고 사월초파일날에 함께 제사지낸다. 또 편의상 음력 1월 11일에 총회를 갖는다”

(부친이 어떤 연유로 희생됐는가?)

“당시는 소개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갈 곳 몰라 이리저리 들녘을 헤매던 때이다. 그러다가 2연대 군인들에게 잡혀 2연대가 주둔하고 있던 의귀국교에 수용됐다. 그런데 당시 무장대가 의귀국교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인들은 수용자들을 모두 집단학살했다. 군인들은 시신을 학교 동쪽 2~3백미터 지점에 버렸다가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이듬해 현재 묻혀있는 현의합장묘 자리로 옮겼다. 희생자들은 대개 의귀리와 수망리 사람들이다.”

(일부에서는 그 때 희생자들은 바로 학교를 기습하려던 무장대였다는 주장도 있다.)

“나도 알고 있다. 2연대 군인 출신이라는 사람이 어디엔가 쓴 글을 보았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당시 무장대가 2연대 주둔지인 의귀국교를 습격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때 희생된 무장대의 시신은 ‘송령이골’에 따로 매장돼 있다. 그의 글에도 ‘폭도 30여명을 사살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30여명의 시신이 묻힌 곳은 따로 있다. 그들은 원래 학교 북쪽에 묻혀있었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고 하니까 이장을 해 가매장했다.”

* 형 양봉석, 6·25전쟁 직후 끌려간 후 행방불명

“6·25가 발생하자 끌려간후 행방이다. 현재 끌려간 날 제사지낸다. 그날 많이 끌려갔다. 그때 같이 끌려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현재 나포리호텔(서귀극장 자리) 자리에 수감돼 있다가 끌려가 죽었으며 자신은 경찰인 인척이 빼 줬다고 한다.”

* —————

◆ 2차 구술채록 :

2019년 7월 28일 의귀리 ‘4·30이길 센터’에서 취재

* 부친(양기필)의 희생 상황

“어머니께 들은 바로는 부친께서는 마을지도자였다. 그런데 토벌대가 집을 불태우고 마구잡이로 잡아가니까 형과 아버지는 피신을 가고 어머니는 어린 아기인 나를 데리고 어머니의 언니의 시집 동네인 방구동(신흥리)로 피신을 가서 살아남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피신생활 중에 잡혀서 의귀국교에 감금됐다가 총살당하셨다.

당시 의귀리, 수망리, 한남리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1948년 11월 7일 갑자기 마을에 들어닥친 군인들이 집들을 마구 불태우고 총을 쏘았다. 마을이 불탈 때 아버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곳자왈에 숨었다. 아버지는 토벌대를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 잡혀서 의귀국민학교에

수용되었다. 아버지는 수용된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죽은 것 같다. 당시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은 2연대 1대대 2중대였다. 아버지는 잡혀가서 의귀국민학교에서 취조당하다가 죽었다. 아버지는 무장대가 군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학교를 습격하기 전에 죽은 것 같다. 형님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대살한 것 같다.”

* 형(양봉석)의 유해, 공항에서 발굴…DNA검사로 확인

“형님은 학교 교사를 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동안 잘 숨어 지냈다. 형님은 초토화작전이 한창 벌어지던 1948년 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 들녘에서 숨어 지냈는데, 1949년 6월경 사람을 막 죽이던 시기가 지나고, 토벌대가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니 내려왔다가 서귀포 절간 창고에 수감돼 있었는데, 1950년 6·25전쟁이 벌어지자 제주공항에서 학살당했다.

그동안 형님은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2007년 제주공항 유해발굴 때 형 도장이 나왔고, 또한 DNA 감식으로 형으로 확인되어 현재 위패봉안소에 안치되어 있다. 도장에 새겨진 글씨는 ‘양봉석’이다.”

* 현의합장묘 조성과 이장

(현의합장묘 봉분을 3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거창 사건’의 경우를 보면 남자, 여자, 어린이 분류를 하여 봉분 3개 만들었다.)

“처음 현의합장묘를 조성할 때는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있던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땅 판 것 만큼만 시신 놓고 흙 덮고 하는 식으로 조성한 것이다.

1950년대 이후 1960년대인가? 자기 조상의 시신이 묻혀있다고 생각하는 유족들이 음력 7월 그믐날 함께 모여서 벌초를 했는데, 그때 산담, 부지 조성 등 논의가 있었다. 난 어릴 때라서 심부름을 하면서 5백원씩 종자돈 모아서 1984년에 구묘지에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그때부터 널리 알려져서 삼묘동 친회라고 하지 않고 현의합장묘라고 한다. 조직명칭도 현의합장묘 4·3유족회라고 한다.

그런데 1984년에 비석을 세우니까 자꾸 서귀포경찰서 남원지서에서 조사를 나왔다. 그 이후 4·3유족회 창립 후에 남원지회가 먼저 생겼는데, 남원읍 지회 회의를 하면 뒷날 아니면 며칠 후에 남원파출소에서 조사가 나왔다.

2003년에 현재 위치로 이장을 했다. 그때 제주대 강연욱 의대 교수가 확인을 했는데 남자 15명, 여 7

그림 13. 의귀리 4·3길 센터에서 만난 양봉천 씨



명, 어린이에 포함 성별 미상 17명 등 총 39구이다.

나는 1974년부터 그러니까 내가 27살부터 2017년까지 회장을 했다.”

* 고교 졸업 후 공군에 입대

“고졸이다. 초등학교는 신흥리 방구동 살면서 흥산국민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의귀국민학교로 전학했다. 의귀초등학교 졸업 후 남원중학교 졸업, 서귀농고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건대 출신의 선생님 추천을 받아 건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에 합격했다. 그런데 가보니 경제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학교를 포기했다. 그 후 포스터 보고 공군 하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야간대학도 할 수 있다고 하니 군대에 갔다. 의무병 특기로 중사까지 하다가 만 6년 4개월만에 1974년도 10월 31일부로 제대특명을 받았다.”

* 4·3 직후의 경제생활

“밭은 넓었지만 요즘처럼 제대로 경작하기 어려웠다. 특히 나는 너무 어렸고 어머니가 여자 힘으로 혼자 밭농사 하는 건 힘든 일이었다. 특히 밭가는 것은 여자가 못했다. 소 있는 집에 밭갈쇠를 빌렸다. 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며칠 일을 하고 밭갈쇠를 빌렸다. 육체노동으로 다 농사짓지 못하니까 병작을 썼다.”

(지금처럼 한라봉 같은 고소득 작물이면 경제적 여유가 있었겠지만, 당시 조, 보리, 메밀 등 환금작물이 아닌 농사로 어떻게 고등학교 등록금을 해결했나?)

“어머니가 해결해줬다. 서귀농고를 다니는 것도 서귀포중학교 바로 뒤 주유소 뒤편 초집이 의귀리사람이 시집간 곳이어서 그곳에서 살았다. 나무를 하고 좁쌀, 보리쌀을 사고 가서 해먹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부모네가 용돈을 주는 일이 거의 없어 집에서 계란을 가지고 가서 공책을 샀다. 지네를 잡아서 한약방에 팔아서 용돈으로 쓰기도 했다.”

* 제대 후 감귤농사로 나아진 경제생활

“공군 중사로 제대한 후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6,000평에 굴나무를 300주를 심었다. 그때만 해도 군대 전별금이 있었고 퇴직금 40만원도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걸로 집을 지었다. 또한 이웃의 사람이 내가 제대하니까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우리집에 와서 경운기로 밭도 갈아주고 농사법도 가르쳐줬다. 탕자나무 접붙이는 것도 배우면서 묘목생산을 해서 6,000평에 모두 심었다. 심어서 3년 후 700관이 달렸다.

1975년도는 감귤농사가 본격화된 시기였다. 묘목도 팔고 감귤 수확량도 많아지면서 생활이 나아졌다. 그래서 서귀포에 집도 샀다.”

(군대에 간 동안 어머니 혼자서 뭐하셨나?)

“일을 할 수 없어서 밭을 병작했다. 어머니는 내가 제대하고 나서 30대에 돌아가셨다.”

* 유족회 활동에 적극적인 까닭

(삼묘동친회도 그렇고 유족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계기는?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의귀리 학살을 자행했던 군인들의 만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군 복무를 하며 듣고 보던 이야기를 통해 ‘군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극적 참여 동기는 4·3연구소 창립대회를 했을 때 그 때 다녀와서 했다. 1989년에 유족회도 막 출범할 때였다.”

* 4·3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사과, 행불인표석과 유해봉안소로 위로받아

(2003년에 현의합장묘를 말끔하게 이장하면서 전에 만났을 때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진 것 같다.)

“의귀리 4·3길 표지판 만들 때 내가 고민 끝에 김석범 선생이 쓴 소설 『화산도』 1권 5쪽인가에서 본 표현을 인용했다. 김석범 선생은 군경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 수장을 당하거나 암매장을 당하면 장례(葬禮)가 아니라 감출 장(藏)이 맞지 않겠냐 해서 감출장자와 장례장을 번갈아 썼다.

특별법 개정, 진상보고서 작성, 노무현 대통령 사과와 같은 정치·사회적 변화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 행불인표석에 형님이름이 있다. 또한 유해발굴로 형님의 유해를 평화공원에 안치된 것이 맺힌 한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다.

* 4·3교육 활성화해야...트라우마로 불면증에 시달리다 치료받아

4·3이 바로 정립되었으면 한다. 제주도교육청에서 4·3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악몽 때문에 괴로웠다. 사람 죽이는 모습, 현의합장묘 명령들 발굴하는 모습, 잡동사니로 나타났다. 누군가 찾아와서 4·3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나면 정신적으로 괴롭고 꿈도 꾸고... 그래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얘기하고 서귀포 병원에서 치료하기도 했다. 그러나 낫지 않았다. 그러다 소개를 받아 올해 제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준혁 교수의 처방을 받아 2달간 약 먹고 나왔다. 그분이 나의 사연을 듣고 약 처방을 해줬다.”

10. 오맹은(吳孟銀, 구좌 상도리 출신)

1차 구술채록 : 1997년 4월 14일 자택 방문

– 인터뷰어 : 김종민

2차 구술채록 : 2019년 7월 17일

– 인터뷰어 : 김종민, 백가윤(허미선 보조)

■ 증언자 개인 정보

* 생년월 : 1940년 12월

* 당시주소 : 구좌면 상도리

* 현주소 : 구좌읍 하도리

* 4·3 당시 가족관계 : 8명(조부, 부모, 나, 동생 3명). 이 중 증언자와 막내 여동생(당시 1살)만 살아남았으나 1살짜리 여동생은 며칠 후 굶어 숨짐

* 현재 가족관계 : 부인, 아들 1명, 딸 6명, 손자 및 손녀 다수

* 학력 : 세화국민학교, 세화중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1차 구술채록

– 1997. 4. 14. 자택 방문 취재

* 1948. 12. 5. 가족 희생 상황

“당시엔 일주도로가 우리마을 상도리를 지났기 때문에 상도리는 중산간마을에 속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개령도 없었다. 당시 우리집은 상도리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 소와 말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밭갈쇠가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지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 그런데 지서에서는 폭도로 올라간 친척에게 제공하고선 허위신고를 했다면서 아버지를 감금했다. 곧 풀려나긴 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집에서 누워있을 때이다.

집안이 피해를 당하던 날, 경찰은 토벌작전에 방해가 된다면 큰 나무를 자르도록 했다. 벌목작업은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했다. 그런데 오후 4시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몸이 아파 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할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둘 등 온가족이 모두 나서서 ‘우영팻’에 쌓아놓은 땀감이 젖지 않게 손보았다. 그리고 우영팻과 마당을 잇는 좁은 문을 통해 할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마당에 들어섰다. 나도 막 들어서려는데 경찰들 여러 명이 우리집 울레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중 경찰 세 명이 똑똑히 기억난다.

곧이어 총소리가 나고 집에 불이 붙었다. 난 겁에 질려 거의 혼이 나갔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온통 불바다여서 어찌지 못했다. 조부 오지현(吳志炫, 54세), 부친 오문형(吳文形, 28세), 모친 김정숙(金貞淑, 29세), 남동생 오차은(吳次銀, 7세)과 오계은(吳季銀, 5

세)이 모두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런데 불타는 집 마루에 한 살 난 여동생이 구덕 안에서 울고 있었다. 경찰은 ‘불에 타 죽겠지’라는 생각에 그 여동생에게는 총을 쏘지 않은 것 같다. 난 급히 여동생을 안고 나왔다.

지금도 한으로 남는 것은 당시 여덟 살이던 내가 열다섯 살만 됐어도, 열다섯 나이의 힘이 있었더라면 시신이 불에 타지 않도록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여덟 살에 불과한 나는 너무 힘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시신이 불에 타 화장한 셈이 됐다.

그 후 난 졸지에 고아가 돼 큰어머니 손에서 컸다. 난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들이 눈을 뜨고 우리 가족을 봤는지, 눈을 감고 봤는지.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그럴 순 없다.”

* 가족 희생의 원인

“난 우리가족이 희생된 원인을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입산자의 친척이라서 죽었을 거라는 말도 하지만, 우리보다 더 가까운 그의 친척들도 희생되지 않았다.”

————— * —————

◆ 2차 구술채록 :

– 2019년 7월 17일 자택 방문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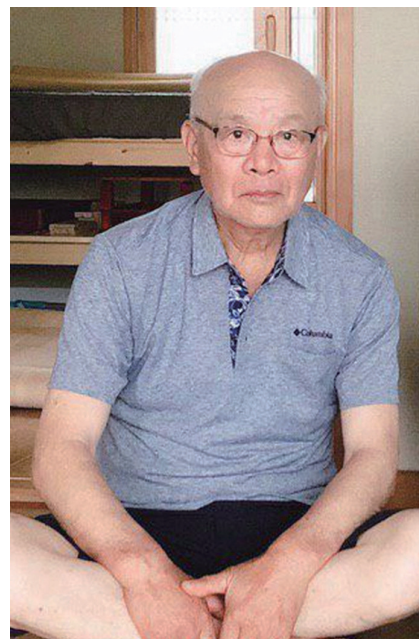
* 1948. 12. 5. 가족 희생 상황

“사건 발생일은 내 나이 여덟 살로 11월 5일(양력 1948년 12월 5일)이다. 당시 우리집은 상도리의 2백여 호 가구 중 2, 3번째 정도로 잘 살았다.

그런데 사건이 나던 날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온가족이 모두 나서서 쌓아놓은 땔감이 젖지 않게 손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총살했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에 들어가 보니 온통 불바다였지만 어찌지 못했다. 불타는 집 마루에 한 살 난 여동생이 구덕 안에서 울고 있었다. 내가 15살만 되었어도 어머니, 아버지 시체를 마당으로 끌어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다 불타버렸다. 어머니는 축담 밑, 할아버지는 대문 앞, 아버지는 방안에 시신이 놓여 있었다. 남동생 시신은 옆집 사는 삼촌이 바깥으로 빼내서 불타지는 않았다. 당시 큰아버

그림 14. 오맹은 씨



지도 떡(음식)을 무장대한테 제공했다는 죄명으로 총살당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일 후인 음력 11월 13일에 돌아가셨다.”

* 희생원인

“나중에 외할머니한테 들어보니 사적 감정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 개인감정으로 입산자의 친척이라는 명분을 씌어서 우리 가족을 몰살시켰다.”

* 여동생의 죽음

“총에 맞지 않은 채 구덕 안에서 울고 있던 한 살 난 여동생을 업고 큰길로 나오니 외삼촌이 낫이 간 채 서 있다가 나를 보고는 ‘어서 외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했다. 당시 외삼촌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다. 막내 여동생은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기아 아동을 보면 그 때 죽은 여동생 생각에 눈물이 난다. 부모님은 묘를 만들어 모셨지만 동생들은 정상적인 무덤 없이 그냥 묻혀 있다. 아이들이라 무덤을 안 만들고 방치해 둔거다.”

* 4·3 이후~2000년 이전의 삶

“사건 직후에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그런데 내 앞으로 재산이 많다보니, 내 재산 때문에 나에 대한 주요 사항은 친척들 간의 회의로 결정되었는데 친척 집에 살면서는 눈칫밥을 많이 먹었다. 차라리 고아원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다.

세화초등학교, 세화중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세화고등학교까지 진학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자 내가 결정해 농업학교로 전학해 살았다. 선친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반도 안 남았다. 삼년상 치르면서 팔고, 학비도 마련하느라 팔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식품 가공업체에 취업해 살았다. 5~6년 정도 일하고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공기업에 일한 것은 아니어서 연좌제에 대한 피해의식은 없었다. 40살부터는 양봉도 시작해서 지금은 밭도 어느 정도를 갖고 있다. 29살에 지금 이 자리에 초가집을 처음 짓고 이후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집을 지었다가 53살에 벽돌로 된 지금 집을 지었다.”

* 길에서 만난 가해자

“내가 30대 때 우리가족을 쏘아죽인 자 중 한 명인 김아무개가 중학교 교장으로 있었다. 마침 외가집 초상이 있어 매장하러 가던 날인데, 하얀 눈이 내릴 때 그를 우연히 만났다. 용눈이오름 위에서 그와 마주쳤는데 그는 내게 봉변을 당할까봐 도망갔고 내가 뒤쫓았다. 중학교 후문 쪽에 있는 관사에 사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갔지만 없었다.

나는 상가에서 술도 마신 상태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관사 문을 다 부수면서 ‘나를 고발하라’고 소리쳤다. 김아무개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다. 김아무개 교장의 부인이 처음엔 ‘잘못했다’며 나

를 붙잡고 사정하더니만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 친척집에 내가 행패를 부렸다고 전화했던 모양이더라.

한번은 그가 다른 중학교로 전근 갔을 때인데, 그때 내가 양봉일 하던 중 다방에 들렀다가 다시 그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또다시 도망갔다. 나는 쉽사리 잊을 수가 없다. 김아무개 교장은 4·3때 경감이었다. 그래서 순경들 다 모아서 데려올 수 있었던 거다.

아직도 나는 당최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가슴 속에 응어리는 여전하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 2000년 이후의 삶, 특별법 제정 전후의 차이

“이젠 연좌제 없어지고 4·3특별법이 제정된 후부터는 4·3을 알리는 학생도 많아지고 요즘은 많이 풀렸다. 옛날 같으면 무슨 말이라도 하면 바로 ‘폭도 새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고 그런 눈짓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눈치 보는 것 같다. 과거엔 말로 밀리거나 힘으로 밀리면 바로 ‘폭도 새끼’라고 했는데 말이다.

22살에 큰어머니 소개로 결혼해서 아들 1명, 딸 6명을 두었다. 아들은 제주시에 자영업을 한다. 손주들도 다 커서 11월에 외손주가 결혼한다. 자식들에게는 4·3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 큰 줄거리만 이야기했다.

유족회 활동은 하지 않지만 위령제는 간다. 4·3공원 만들고 추모식하는 걸 보면 우리로서는 많은 위안을 받는다. 유족이 아니라도 제주도민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

“4·3은 엄청나게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정부 시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다음에 그러한 세상이 오면 절대 안 된다. 미국 책임도 크다고 본다. 지금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주둔 시키는 거 아닌가. 강대국의 텃세라고 해야 하나. 일본놈들도 트럼프 쫓아가는 것 같다.”

11. 홍춘호(洪春好, 안덕 동광리)

2019년 7월 24일 안덕면 동광리복지회관에서 구술 채록

－ 인터뷰어 : 김종민, 백가윤(김명지 보조)

■ 증언자 개인 정보

* 생년월 : 1938년 9월

* 4·3 당시 가족관계 : 7명(아버지 38세, 어머니 35세, 구술자 11세, 남동생 8세, 5세, 2세 등 3명, 사촌언니 16세)

* 현재 가족관계 : 아들 3명, 딸 1명, 남편 작고

* 학력 : 없음(초등학교 1학년)

* 군·경 토벌대에게 주민 1/3이 희생

“1948년 11월 15일 토벌대가 안덕면 동광리의 우리마을 무등이왓에 들이닥쳤다. 당시 토벌대에 의해 마을 사람 1/3이 죽었다. 며칠 뒤엔 우리 마을이 전부 불탔다. 우리 가족이 살던 집도 불에 타 한동안 숲 속에서 지냈다. 한곳에 모여 있다가 잡히면 몰살될 수도 있어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이 따로 지냈다.

당시 우리가족은 아버지(38세), 어머니(35세), 나(11세), 남동생 세 명(8세, 5세, 2세), 그리고 사촌언니(16세)가 있었다.

아버지는 밤에만 만났다. 아버지는 토벌대가 마을에서 떠나면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여러 집터를 돌며 그곳에서 곡식을 구해오셨다. 아버지는 범벅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누가 그날 죽었는지 설명해주시곤 했다. 언제 죽어도 이상 할 게 없는 시국이었다. 그땐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들을 볼 수 있어서 위안이 되었다.”

* 남동생들 영양실조로 말라 죽어

“우리는 앞작지(마을 앞에 있는 자왓), 중통굴, 구석밭, 숨비나리, 뒷빌레, 원물오름 등 마을 근처에 있는 곳자왓을 옮겨 다니며 피신생활을 했다. 그런데 2살 남동생은 앞작지에서, 5살 남동생은 숨비나리에서 죽었다. 오랜 피신생활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서 말라죽은 것이다. 남동생들이 죽은 뒤 침통해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난다. 4대 독자였던 아버지는 아들들의 죽음에 많이 큰 상심을 느끼셨다.”

* ‘큰넓궤’ 속으로 피신

“‘큰넓궤’라는 굴속으로 피신해 들어간 때는 1948년 12월 25일로 기억한다. 마을에 불이 나고 한 달은 숲에서 숨어 지냈는데, ‘무등이왓’ 사람들끼리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

다. 그래서 큰넓궤 속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옆 마을인 ‘삼밭구석’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서 지내고 있었다.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 나무사다리를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절벽 바로 아래에는 삼밭구석 사람들이 지내고 있어서 우리 무등이왓 사람들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지냈다.

몸을 숙여 팔과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지냈다. 목이 마르면 굴 위에서 똑똑 떨어져 돌 틈에 고여 있는 물을 마셨다. 누가 먼저 마실 건지 다툼 정도로 물이 많지 않았다. 억새를 빨대로 삼아 돌 틈에 조금 고여 있는 물을 빨아 마시기도 했다.

억새는 동굴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쓸모가 있었다. 억새를 바닥에 깔아 그 위에서 생활을 했다.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부딪혀 불꽃을 튀게 해 억새에 불을 붙였다. 억새는 불씨가 은근히 오래간다. 불씨가 남아있는 억새를 굴 바닥에 털어내면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길을 표시해 주었다.

캄캄한 동굴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하는 생활이 너무나 답답했다. 토벌대가 마을을 떠난 밤이라도 나가서 하늘을 보겠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단념케 하셨다. 아버지는 ‘시국이 편해지면 나가자’고 나를 달랬다. 큰넓궤에서는 대략 40~50일 동안 지냈다.”

* 은신처 큰넓궤, 토벌대에게 발각

“큰넓궤에서 나오게 된 것은 토벌대에게 발각 당했기 때문이다. 삼밭구석 사람들이 고추와 지푸라기 등을 태워 그 연기를 토벌대가 지키고 있는 동굴 밖으로 내보냈다. 연기가 매워서 토벌대는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퇴각했다. 하지만 토벌대는 동굴 밖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았다. 그런데 인근 도너리오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굴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워줘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결국 다른 피신장소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동굴 속에서 지내다보니 작은 빛에도 눈이 예민해져 있었다. 동굴을 나온 것은 밤이었는데, 밖으로 나오니 대낮처럼 밝아보였다. 삼밭구석 사람들은 볼레오름 쪽으로, 우리 무등이왓 사람들은 미오름으로 피신했다.

삼밭구석 사람들은 피신하면서 남긴 발자국 때문에 토벌대에 잡혀가 죽었다. 다행히 토벌대가 우리 무등이왓 사람들은 찾지 못해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당시 미오름 정상에는 예전에 동광리 마을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파놓은 인공 동굴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마을사람 20~30여명이 있었다. 미오름이 화산 송이로 되어있었던 탓에 벽이 쉽게 부서졌고, 그 덕분에 조금씩 파서 공간을 넓힐 수 있었다.”

* 1949년 3월 토벌대에게 ‘자수’

“미오름에서 다음해(1949년) 3월 20일께 나와 앞작지 숲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8살이었던 동생 역시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런데 그 무렵 토벌대가 ‘산에서 내려와 자수하면 살려주겠다’며 선무공작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막대기에 흰 천을 매달아 토벌대에게 ‘항복’해 산에서 내려갔다.”

* 토벌대 항복 이후 우리 가족은 ‘폭도자식’으로 살았다

“우리는 항복한 후 한 마을로 끌려갔다. 우리는 토벌대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쌓은 성 안에 서 지냈다. 우리가 지낸 곳은 마을 사람들이 보초를 서는 곳 바로 아래였다. 우리는 ‘폭도자식’이라는 욕을 들었고 돌에 맞기도 했다. 너무 무서워서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과 ‘앞으로 그쪽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다.

이후 우리 마을 사람들은 화순지서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사람들을 가두는 방이 두 군데가 있었다. 하나는 창이 없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 또 하나는 빛이 들어오는 방. 우리는 빛이 들어오는 방에 감금됐다. 우리 방에는 무장대 가담 가능성이 덜한 노약자들이 많이 있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는 젊은 남성들이 있었다. 우리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방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은 보이지 않았다.”

* 서귀포 단추공장에서 감금생활

“화순지서에서 나와 우리는 작은 배에 탔다. 우리 마을 동광리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봤다. 우리를 바다 속으로 빠트리려 죽이려는 줄 알았다. 가족들과 부둥켜 울며 죽어도 같이 죽자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서 지금 천지연폭포 아래 항구에 배를 댔다. 이후 근처에 있었던 단추공장에 감금됐다. 민간인수용소였다.

민간인수용소를 지키던 경찰은 그 안에 있었던 몇몇 아이들을 다른 집의 식모, 애기업게, 양자, 양녀로 보내주었다. 어머니는 어린 내가 밥을 굶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를 보내셨다. 우리 가족과 함께 있었던 사촌언니는 식모살이를 했다. 나는 다른 집의 애기업게(아기를 대신 돌봐주는 사람)으로 보내졌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전히 단추공장에 갇혀있었다.”

* 시국은 나아졌어도 손가락질 당하며 ‘짐승처럼’ 살았다

“1949년 겨울, 어머니와 아버지가 단추공장에서 풀려나자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나 화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14살 되던 무렵 남동생이 태어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동생을 얼마 보지 못하고 그해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어느 날엔가 일을 하다가 다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오셨다. 평소 아버지는 덩치가 크고 건강하셨다. 결국 며칠을 앓다가 병원도 가보지 못한 채 엿새 만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화순에서 어머니와 나, 그리고 남동생이 함께 살았는데 삶이 참 고통스러웠다.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살았다. 집 주인의 눈치가 많이 보여 먹는 것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눈에 거슬러 ‘폭도 자식’이라는 욕을 들을까봐, 생활이 곤궁해 이불 한번 덮지 못했다. 쌀이 없어 밀껍질을 구해다 삶아서 먹곤 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손을 빌려 공터에 움막을 지었다. 나무로 벽을 만들고 역새를 이어 지붕을 만든 3~4평 남짓한 작은 움막이었다. 집이라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어 우리 가족은 참 기뻐했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지붕 사이로 눈이 떨어지는 집이어서 마음이 편했다.

7년을 움막에서 살았다. 내 나이 23살, 결혼을 하게 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동광리 남자를 만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결혼을 하고 2년 후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당시 남동생이 9살이어서 보호가 필요한 나이였다. 동생을 데리고 시집으로 왔다. 동생을 거둬 시집에서 키우려고 하니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남동생은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남편이 한라산에 나무를 베러가는 사이, 동생은 남편을 대신해 쇠테우리(소몰이꾼)로 일을 했다. 나 또한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지만, 공부도 하지 못한 채 생활전선에 내몰린 동생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혼자 발일을 하며 울었다.

살아남는 것만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었다. 꽃다운 20대부터 30년간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다. 내 나이 50살이 될 무렵부터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된 밭을 사고, 소도 키우며 먹고 사는 걱정을 덜었다. 4·3으로 가족과 집을 잃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딛고 가정 형편이 나아지자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끝났다.”

* ‘폭도자식’이라는 낙인이 지워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졌지만 내 마음 속에는 ‘폭도자식’라는 낙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4·3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하려는 시도가 큰 위안을 주었다. 4·3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위령제 참석 등이 나를 떳떳한 존재로 만들어줬다. 제주4·3평화공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이 나에게 큰 위로를 해준다.

한때는 나의 고향이 안되면 동광리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던 세월도 있었다. 우리 마을이 ‘폭도마을’이라는 낙인이 찍혀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말하지 못했다.

유족회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4·3 때 우리 마을과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 말고도 두 명이 함께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와서 기분이 좋다.

최근에 우리 부모님과 4·3때 세상을 떠난 동생 두 명(당시 8세, 5세)에 대한 피해자 신고를 마쳤다. 이름을 짓지도 못한 채 죽었던 동생(당시 2세)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다.”

*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자세히 4·3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물론 동생에게는 4·3때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본 적은 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4·3과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번은 큰며느리가 가족들에게도 4·3 때 겪었던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더라. 동광리 4·3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들이 4·3을 많이 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구진

연구책임	김 종 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공동연구	한 상 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 남 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이사장

제주학연구 62

4·3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

발행인 || 김 동 전

발행일 || 2019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720-5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